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온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3월 6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호국

한국불교는 국가와 민족의 복리를 축원해온 호국의 교법이다. 기도의 공덕으로 국가를 위호하며, 국난이 일어났을 때는 지성으로 국가안녕을 기원하고 호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궐기했다. 또다시 영유권 시비를 거는 일본에 대해 독도를 지키기 위해 불교계가 나서고 있다. 부처님과 역대 선사들이 설한 호국사상을 새겨본다. 〈편집자 주〉

종조(宗祖)를 공경하고 여성들이 예의바르고 몸가짐 또한 단정하며 종교인들을 우러러 받들어서 사회윤리가 확립된 국가는 어떤 무력으로도 넘어가지 않는다. 〈장아함경〉

현명한 왕이 있어서 닭이 울 때에 일어나 먼저 불당에 들어가 성자에게 경례하여 복의 도움이 있을 것을 빌고, 조종에 제사드려 은덕 갚을 것을 생각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효도하도록 온 세상에 남모르는 이익을 내리십사 빈 다음, 조정에 나아가 모든 대신들과 정사를 다스린다고 하라. 이 두가지 일을 마친 다음에야 수라를 들며 그 다음에 목욕하고 원림에 나가 놀며, 해가 질 무렵에는 전각에 논좌를 만들고 국내의 큰 지혜가 있는 사문 바라문을 청해다가 바른 가르침을 설법하게 하되, 무엇이 선이요 무엇이 악임과 무엇이 바른 일이요 잘못임과, 무엇이 발전하고 전개하는 작용이요 멈추고 멸하는 작용인가를 물으며, 때로는 오래된 슬기로운 신하와 덕높은 은자를 모아 국정을 물어 그 득실을 광하게 한다면, 이렇게 하는 까닭에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경계하는 것이 되어 왕의 덕은 날로 증대해 갈 것이며, 이웃의 강국은 모두 굴복하고 온갖 신하들은 다 엄숙해져서 안팎이 한마음이 될 것이다. 〈화엄경〉

나라를 사랑하고 종사(宗社)를 근심함에는 산승도 또한 한 사람의 신하이다. 〈청허집〉

이 불(佛)이 세계를 사바라고 이름하는데, 어떠한 인연때문에 이름하여 사바라고 하느냐 하면, 이의 제 중생은 삼독 및 제 번뇌를 참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저 세계를 인토(忍土)라고도 한다. 〈비화경〉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외적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에는 백명의 비구들을 청하여 〈인왕경〉을 외우는 의식을 차려야 한다. 우선 백개의 높은 연단을 만들고 그 앞에 백개의 등불을 켜고 백가지 향불을 피우며 백가지 꽃으로 부처와 불경과 승단을 장식하며 좋은 음식과 의복으로 비구들을 후하게 대접하고 하루 두번 이 경을 읽게 하면 온갖 잡귀신들도 이 설교를 기꺼이 듣고 나라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인왕경〉

법공양페이지 포함 20면 발행
농아불자 47명 '갓바위' 순례 15면
일제 지정문화재 재평가 17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우리땅 독도 수호 기원"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 총무부장 법타, 재무부장 원우스님등 종단 간부스님과 육해공군 법사들은 지난달 28일 독도를 방문, 해안경비대원들과 국토수호를 위한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이자리에서 월주스님은 "독도를 지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기를 지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일본의 망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선포하기 위해 종단차원에서 마련됐다.

"신도증으로 공원 무료입장" 요구

조계종,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수입분배 · 문화재보수비 현실화도

조계종 총무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회에 '국립공원내에 위치한 사찰을 출입하는 신도가 신도증을 제시할때 입장료를 면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스님)은 지난달 29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교계 요구서를 전달하고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관련기사 3면〉

총무원이 제안한 요구사항은 △공원사업 수입분배 △문화재 보수비 현실화 △신도증소유자 입장료면제 △공원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합동징수 명문화등으로 수년째 제기된 교계의 현안 사항이다.

총무원은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의 입증여부를 놓고 매표소 직원과 신도간에 마찰이 빚어지는가 하면 사찰에 있는 스님이 공원입구까지 내려와 신도임을 증명하는 등 불편이 따르고 있다"며 3월15일부터 조계종 포교원이 발급하는 신도증 소유자에 한해 공원입장료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매표소직원에게 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는 '당해 공원구역안의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를 입장료 징수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협조 여부에 따라 조계종이 발급하는 신도증을 소유한 불자는 자유롭게 사찰을 참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은 또한 "대부분의 국립공원은 사찰의 토지와 사찰이 보존한 환경을 바탕으로 사업을 펼치고있다"고 지적하고 "사찰의 기여도를 인정해 공원사업수입을 분배하고 공원에서의 사찰 토지구성비율, 사찰토지에 위치한 공원시설의 토지이용에 따른 대가 지급을 정부에 요구 하겠다"며 공원관리공단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밖에 국립공원마다 무원칙하게 지급되고 있는 문화재보수비를 현실화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입장료 수입의 30%를 공원구역내에 위치한 문화재 보존 관리자에게 적절하게 분산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총무원 관계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출한 요구사항의 시행을 위해 국립공원내 사찰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대사회홍보 및 정부와의 대화를 모색하는 한편 헌법소원청구 등의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문체부, 내년 '문화유산의 해' 지정

국보 · 보물 재평가등 민족 자긍심 고취

내년 1997년이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된다.

해마다 문화예술의 해를 지정해 온 문체부는 지난달 28일 97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확정하고, 내년 한해 동안 민족문화 유산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법국민적인 사랑 운동을 펼쳐 나간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난해 석굴암 · 팔만대장경 · 종묘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따라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관심이 매우 높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문화재관련 민간단체들이 참여한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를 올해안에 구성해 구체적인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불련 위원장 초청

월주스님, 초파일 서울에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26일 남북종교인 북경회의에 불교대표로 참석한 성타스님(조계종포교원장)을 통해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호 위원장의 서울방문 초청장을 전달했다.

월주스님은 초청장에서 "4월 8일 남북상호 교환법회 및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참석을 위하여 서울에 초청한다"고 밝혔다. 월주스님은 그러나 서울방문이 불가능 할 경우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공동축원문'을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월주스님은 또 북한 외금강산의 '신계사 복원불사'를 남한의 평불협을 중심으로 전종단의 참여아래 전개하고자 한다며 이에 대해서도 조속한 답변을 바란다고 전했다.

규약기초안 마련

중앙신도회 준비위

조계종중앙신도회 창립준비위 현장 · 규약기초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준비위사무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규약기초안을 마련했다.

규약기초안에 따르면, 조계종 중앙신도조직의 명칭을 '조계종 전국신도연합회'로 했으며 회장선출방법은 대의원총회에서의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을 택했다. 대의원회 구성은 별도의 규정을 두기로 했다.

규약기초안은 총무원기획실과의 협의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확정된다.

'종교인회의 서울 · 평양 정례화' 합의

남북종교협 북경서 첫만남…6월 일본서 예비회의

한국종교협의회(회장 이재석)와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회장 장재철)는 지난달 26~28일 북경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을 주제로 남북종교인회의를 열고 남북종교인회의를 서울과 평양에서 정례적으로 개최하자고 합의했다.

두 협의회는 남북관계가 경색돼있는 현상황에서 종교인들의 상호대화 필요성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오는 6월 일본 도쿄에서 정례모임 실현을 위한 예비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번 북경회의에 남측에서는 한국종교협의회 이재석회장을 단장으로 성타스님(조계종 포교원장) 혜초스님(대고종 총무원장) 등 각 종교대표 13명, 북측에서는 조선천주교인협회 장재철회장(단장)을 비롯 황병대 조선불도연맹 부위원장, 한명수 조선기독교연맹 부위원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전자게시판 부다피아
모뎀번호 732-1520~4



사 설

문화재 재평가에 거는 기대

해방 50년, 그간 우리의 자주성 확립과 국권신장의 의지는 분명했다. 그러나 6·25전쟁과 그에 이어지는 경제성장에만 열중한 나머지 자신의 주변을 사려깊게 돌아볼 틈이 없었던 것 같다.

가령 국민학교의 명칭 변경은 겨우 금년부터 이루어졌다. 본래 '국민학교'란 히틀러 치하 나치독일에서 시작되었고 군국주의 일본이 그것을 본받아 식민지하의 우리에게 강요한 것이다. 나치독일과 일본은 패망즉시 이 명칭과 체제를 철폐했으나 해방된 한국에서는 50년만에 겨우 그 명칭만을 바꾸었을 뿐이다.

최근 일제가 지정한 문화재에 대한 재평가가 거론되고 있다. 해방 반세기가 지난 이 시점까지도 일제 식민주의자들이 정한 한민족의 얼이 담긴 문화재를 스스로 재평가하지 못했음은 우리가 내세워 왔던 일제청산, 민족문화 신장의 구호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던가를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들 일련의 일에서 깊은 성찰과 민족으로서 일관된 철학의 절실함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이번에 실시되는 문화재 재평가는 깊은 성찰을 기본으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마다 민족에는 고유의 문화의지가 있으며 모든 문화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문화의 핵', 즉 원형이 있다. 어떤 민족일지라도 원형에는 풍토와 역사성이 있다. 이들 고유의 원형은 뚜렷한 개성을 지니며 시대적 상황에 어울리는 문화를 꾸려 나간다. 어떤 민족의 원형에도 우연이 없다.

그러나 이질의 원형에서 파생되는 문화현상을 불합리하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인이 중하게 여기는 문화재가 한국인에게는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귀한 것이 일본인의 눈에는 보잘 것 없이 여겨지는 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또한 같은 민족의 문화일지라도 시대의 문화정신이 달라질 때는 가치의 기준이 전도될 수가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불교문화가 조선시대의 유교적 가치관으로 그릇되게 평가되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주 박물관 앞뜰에 늘어져 있는 목이 잘린 불상들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 특히 민족문화의 재평가는 한국인의 원형을 의식하는 초시대적인 관점에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한국 문화재를 일본의 가치기준으로 당시의 시대사조속에 조선시대를 중점으로 평가했었다.

일제때 지정된 문화재 503점 가운데 국보·보물급이 252점이고, 전체적으로는 50%이상이 불교문화재이다. 1600여년에 걸쳐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온 불교가 많은 문화재를 남긴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상당한 수준급의 불교문화, 예를 들면 불화등이 일본인의 몰이해 때문에 가볍게 평가되어 누락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록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일단 문화재로 지정받는다면 보존방법이 달라진다.

대량의 불교문화재의 압도적인 양을 감안하더라도 진정한 한국 문화재 지정에는 당연히 불교문화에 깊은 이해가 있는 인사가 많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고관의 망언이나 독도문제와 같은 것이 터질 때마다 크게 분개했고 격렬한 데모도 벌인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투철한 민족의 기본철학과 일관된 태도이다. 그것은 우리 원형에 입각한 가치관으로 스스로의 역사문화를 평가하고 그 정신으로 일본을 대하는 일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문화마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표면화된 일본의 망언에만 반응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문화재 재평가는 우리의 자주성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다.

열 린 마 당

화폐도안 시비

지난달 24일 목사 20명이 화폐에 도안된 그림이 우상을 상징하는 것들이라며 새 지폐를 발행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화폐에 그려져 있는 용, 봉황새, 다보탑 등이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상이 그려진 흠있는 예물을 헌금하는 일이 더이상 없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상식밖'의 시비에 새삼 화폐도안의 의미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겨레 얼' 차원으로 해석해야 마땅

영 담 〈석왕사 주지〉

조상의 얼과 혼이 살아 있는 민족의 문화유산을 종교적 우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모든 국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야 할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종교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신교 목사들이 화폐의 도안이 종교편향적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사실에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수치감마저 느낀다.

특히 화폐를 단지 금전적인 문제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의 전통과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린다는 점에서 한 종교의 색깔을 짙게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종교인의 자세라 할 수 없다.

우리 주위의 관공서를 비롯 공공시설에서 이와 유사한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만약 화폐도안촉구위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화폐가 특정 종교만의 것이고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한다면 결국 수백년간 이어온 우리의 문화유산을 모두 청산해야 한다는 결론밖에 내릴 수 없을 것이다.

문화유산 종교상징 혼동말아야

김 용 헌 〈목사·기독교인권위〉

이땅에서 종교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어느 누구든 남의 종교를 침해할 수 없고 침해당해서도 안된다.

최근 정부정책 가운데 종교편향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종교계 단체들은 종교편향 정책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4일 목사 20여명으로 구성된 화폐도안변경촉구위원회가 종교색깔을 삭제한 지폐를 발행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자신의 의견을 헌법소원을 통해 제시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화폐의 도안이 종교편향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화폐에 그려져 있는 도안이 특정종교를 상징하고 있다는 주장은 편협된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거리가 있다고 본다.

어쨌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종교편향이라는 지적이 있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으니 현명한 결과를 기대해 본다.

'우상상징' 헌법소원 실효없을 듯

김 용 호 〈변호사〉

개신교 목사들이 제출한 화폐도안변경 촉구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는 한국은행의 화폐발행 자체를 공권력 행사로 보고, 공권력을 중재해 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헙법소원이 청구요건을 충족시킬지는 의문이다.

화폐도안변경촉구추진위원회의 이번 헙법소원은 조상의 얼과 혼이 살아있는 '민족문화유산'을 종교적 유산으로 해석한 것으로, 수백년간 이어온 우리의 문화유산을 모두 청산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사고라 아니할 수 없다.

화폐는 국가의 얼굴이다. 어느 특정 종교를 편애하거나 우호하기 위한 방편과 이기적인 의도로 도안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그림으로 그려진다. 때문에 민족의 문화유산이 화폐에 새겨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민족문화유산을 우상으로 치부하고 종교적 행위를 위해 문화유산을 부정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하겠다.

이와함께 헌법재판소의 현명하고 명쾌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도안내용 종교편향 지적은 '억지'

오 희 도 〈서울은행 불교행우회〉

화폐에 그려진 용, 봉황새, 다보탑이 우상이라며 일부 목사들이 제기한 화폐도안 변경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화폐에 그려진 도안들은 불교의 상징을 넘어 동양적 한국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더 어울릴 것이며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민족의 기원을 계승하려는 차원이라고 사료된다. 특히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 경내에 있다.

그럼에도 '우상이 그려진 흠있는 예물을 헌금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기독교인의 주장은 한국사회에서 기독교적 오류의 한 단면을 보이는 것이며 불교의 민족정통 맥을 훼손하고 말살하려는 의도로 비쳐진다.

근간에 일고있는 종교편향정책을 보며 한국불교의 조직체계가 너무 느슨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화폐도안 시비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불자들은 기독교인들의 집요한 종교편협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작은 일부터 조직적으로 대응해내는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

한국은행 반응

발권부 조 병 수 부부장

화폐발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 발권부 조병수 부부장은 '화폐에 그려져 있는 문양이 특정종교를 상징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과 관련해 "해당 화폐에 그려진 용 봉황 사슴 다보탑은 우리민족의 정서를 나타내는 동물과 문화재를 도안으로 차용한 것일 뿐, 특정종교를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신교 측에서 문제

"다보탑·용·봉황·사슴문양 민족정서 표현위해 도안"

삼은 화폐 가운데 1천원권과 1만원권을 도안한 장본인인 조 부부장은 "각자의 입장에서 일일이 트집잡으면 난감하다. 학과 용 문양이 들어있다 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은 과민반응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1만원과 5천원권 1천원권에 도안된 용 봉황 사슴(열뿔짐승이 아님)은 한국 중국 일본 동양권에서 성스러운 동물의 상징으로 여겨왔다. 용은 조선시대 임금 의복의 흉배를 장식한 상상의 동물로 천자즉 황제를 의미한다. 문관은 학 또는 십장생을 무관은 호랑이로 흉배를 장식했다.

조 부부장은 '다보탑 또한 특정종교의 상징물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재를 도안에 사용한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개신교측의 문제제기가 있어 새 화폐발행시 도안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폐발행은 한국은행에서 화폐의 종류와 모양 발행시기 등을 결정하고 이에따라 추진된다. 한국은행에서는 화폐의 기본적인 모양 즉 화폐의 규격 도안 재질은 물론 제조비 화폐의 수급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한국조폐공사에 제조를 의뢰한다.

화폐제조를 대행하는 조폐공사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행-재무부-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화폐가 발행되므로 특정종교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의 도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운〉

현대만평 박구원



내 집처럼 왕래하기를…

목어

우리는 간장이 없으면 밥상을 차릴 수 없다. 한국사람들은 음식의 간을 대체로 간장으로 맞추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호화스런 잔치상이라도 중앙에 간장종지가 빠지면 흉잡히기 십상이다. 이처럼 국민식생활 나아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간장에서 발암(發癌)과 불임(不妊) 유발물질이 검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말 '입맛' 떨어지는 소식이다.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식품 제조업자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하는데는 설명이 필요없다. 그런데도 콩나물, 두부, 참기름, 물엿, 해초무침, 자장면 등 불량식품 파동은 늘 스쳐지나가듯 했다. 그러다보니 그 천하의 못된 짓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돈에 눈먼자들이 양심을 저버린 탐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 전생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생으로 내려오는 그 죄업을 다 어떨려는지 한번 묻고 싶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떤 사기꾼 상인이 있었다. 그는 친구와 장사를 하여 이익을 많이 남겼다. 간사한 상인은 자기가 이익을 더 챙기려고 친구가 과식하여 소화불량으로 죽을 날을 기다렸다. 부처님께서는 '그 간사한 상인은 전생에도 그러하였다'며 과거의 일을 말씀하셨다.

옛날 현인과 대현인이 공동으

사기꾼 상인의 전생

로 장사하여 이익을 나누게 되었다. 대현인은 현인보다 2배의 이익을 가져야 한다고 우겼다. 두사람은 결국 다투게 되었다.

대현인은 꾀를 내어 자기 아버지에게 빈나무에 들어가 목신노릇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벗이여 내가 대현인이니까 두몫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자네가 안된다니 저 목신에게 물어보자" "목신님 우리의 송사를 공정하게 판결해 주십시요" 두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나무는 대현인이 두 몫을 가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때 현인은 짚을 가져다 나무에 불을 붙였다. 그 아버지는 불에 탄 몸으로 땅에 떨어지며 게송을 읊었다. '현인은 실로 착하고 대현인이야 말로 실로 나쁘다. 아들이 대현인이었기에 그 아버지인 나는 이렇게 탔네'

국민 건강의 파수꾼인 보건복지부의 신속하고 준엄한 조치를 기대한다.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말씀

남을 업신여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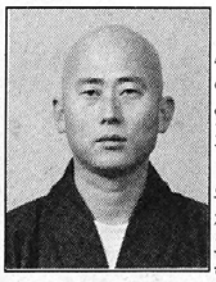
아는 것이 조금 있다하여 스스로 뽐내면서 남을 업신여기면 마치 장님이 촛불을 든 것처 같아 남을 비추지만 자기를 밝히지는 못한다.

〈법구비유경〉

협찬 (사)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이사장 현 성

칠보문화 축제 및 백일 용맹 기도

비구스님 열 분이 재가불자와 함께 24시간 백일간 철야정진합니다



21C로 향하는 새로운 시대가 밝아 오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과 국제적 문화 개방의 영향으로 감각적이며 행동적인 문화가 형성되고 있음은 불교가 행동하는 불교로서 이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 가야 함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각양각색의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세대의 가치관이 난무하는 혼돈의 사회 속에 휩쓸리지 않고 개인의 참된 가치관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정신적 횃불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고도의 경제성장과 문화의 다변화로 인한 여러 사회 현상을 살펴 보면, 상승된 여성의 인권과 핵가족화의 부산물인 소외된 노인 계층의 문제, 물질문명의 병폐인 건전한 가치관의 부재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실제적 사회 현상의 부산물을 대비심으로 흡수하여 창조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우리 불교가 함으로써 이 시대의 문화에 이끌려 감이 아닌 이 시대의 문화를 재생산하고 이끌어 가는 행동하는 불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자각에 임하여 「한길 칠보회」에서는 무량한 불법의 힘으로써 사회복지 시설을 마련하기로 원력을 세웠으니, 여성들의 창조적인 활동과 사회적인 발전의 터가 될 「불교 현대 종합관」과 소외된 노인층을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품으로 감싸기 위하여 한길 수양원을 설립하고, 또한 미래 세대에게 영명하고 밝은 반야의 지혜로, 스스로 자신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관을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다함께 평등히 조화롭게 살아 가는 불국토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끊임 없이 부처님의 대지혜 안에서 올바른 사회복지 시설을 일구어 나갈 것이며, 행동하는 적극적인 불교로서 태어나기 위해 우리 「한길 칠보회」는 신명을 다 바칠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뜻을 대외에 널리 알려 많은 사부대중들의 뜻을 한데 모으고자 이 행사를 시행하게 되었으니 많은 협력과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주지 무상 합장

■ **불기 2540년 제 1회 '칠보(七寶)문화 축제'는**
— 대구·경북 지역의 불교 문화 복지 사업을 대표할 불교 현대 종합관과 노인 복지 한길 수양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대외에 알리는 행사이다.

■ **불기 2540년 제 1회 '칠보(七寶)문화 축제'는**
— 불법의 진리를 바탕으로 한 '민족 정서 함양을 위한 터'를 건립함이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임을 만천하에 알려 대중을 일치단결로 이끄는 문화축제이다.

■ **불기 2540년 제 1회 '칠보(七寶)문화 축제'는**
— 시대적 변화에 의해 새로운 불교 문화를 필요로 하는 당면성을 대중적으로 인식하는 행사이다.

주최: 대구 칠보사 주지 무상 합장 (053)963-8975
주관: 불교극단 '바람' 기획 사업단 (02)737-0885

행사 구성안 개요 - 불기 2540년 5월 8일 (수) ~5월 11일 (토)

사회자: 이재섭 외 女 1명

구 분	행 사 명	행사 일정/시간	비 고
개막행사 5월 8일 (수)	1)개막제- 개막행사 (개막 법회, 노인 문화 대축제)	5월 8일 (수) (오전11시)	· 개막 법회 이후 취타대, 사물 놀이, 풍선 뛰우기, 바라춤, 북춤, 국악 대향연, · 노인 전통 혼례식, 노인 장기자랑, 음식공양
주행사 5월 9일 (목)	1)칠보 노래 자랑 (신도 및 시민 노래 경연 대회) 2)품바	5월 10일 (목) (오전 1시)	· 연예인 찬조 출연
주행사 5월 10일 (금)	1)초청 세미나 2)합창 대회 3)신도 백일장 4)불교 관현악 연주	5월 10일 (금) (오전 11시) (오후 1시)	· 한국 불교와 여성의 역할 의 다수 · 나의 신행 일기 - 당일 시상 (주부, 청소년, 노인 대상)
폐막 행사 5월 11일 (토)	1)폐막제 - 화합의 장 2)칠보 체육 대회 3)연예인 찬조 출연 4)사물놀이 5)폐막 법회	5월 11일 (토) (오전 10시)	· 승려 가수 초청 · 노년층, 중장년층, 청소년층 화합을 유도 · 연예인 가수 출현 · 줄다리기, 제기차기, 널뛰기, 공굴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

■ 행사 후에는 비구 스님 열 분과 함께 하는 백일 철야 정진 기도가 이어집니다.

'불교권리 제도화' 의지 표출

지난달 29일 조계종 총무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출한 요구사항은 1980년 이후 불교계와 국립공원관리공단간에 빚어진 갈등에 쐐기를 박는 선전포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조계종은 더 이상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소모적인 마찰을 중단하고 불교계의 정당한 권리를 법적장치로 제도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원관리공단의 상급기관인 내무부와의 협의에 앞선 입장발표로 풀이된다.

조계종 '국립공원 신도증 출입' 요구서 제출배경

총무원의 요구사항 가운데 주목을 끄는 부분은 국립공원내에 있는 사찰에 대한 공원사업수입의 분배와 사용료 지급 요구이다. 이는 대부분의 국립공원은 사찰과 사찰이 보존한 환경을 바탕으로 지정되었으며 사찰의 토지와 시설을 이용해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것에 근거한다. 따라서 공원에서의 사찰토지구성비율, 사찰토지에 위치한 공원시설의 토지 사용료를 합산하여 지급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총무원은 무분별하게 운영되고있는 공원관리공단의 문화재보수비를 현실화하고 내무부 지침으로 합동징수하고 있는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총무원은 더 나아가 그동안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 입장객의 무단이용으로 손실을 입고있는 사찰에 대해 현재까지의 무단사용료를 소급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무원은 만일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원에 토지를 제공하지 않는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총무원의 강력한 의지표출은 신년 종무행정 발표에서 언급된 가운데 관행처럼 되어온 공원관리공단의 전횡으로 돌출됐다.

공원관리공단은 지난 1일 공원내에 위치한 사찰과 협의없이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8백원에서 1천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공원입장료는 해마다 물가상승률 한도액인 10%씩 인상됐으나 금년에 25%가 기습 인상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동결시켜오던 문화재 관람료가 오는 7월1일부터 자율화됨에 따라 공원관리공단이 선수를 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원관리공단의 전횡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문화재 보수비 지급.

오대산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보 3점 보물 3점 지방문화재 4점을 보유하고 있는 월정사에 입장료의 10%를 문화재보수비로 지출하고있는 반면 가야산국립공원은 국보 2점 보물 4점을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인사에 30%를 지출하고 있다. 또한 국보 1점 보물 3점이 있는 쌍계사나 국보 5점 보물 4점의 소백산 부석사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신도들이 자유롭게 공원내의 사찰을 참배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불교계의 불이익 가운데 하나다. 특히 총무원은 사찰참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불자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을 감안, 이번에 꼭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총무원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포교원에서 발급하는 신도증이다. 포교원은 이미 신도증 발급에 따른 제반사항 준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발급작업에 들어갔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불교계가 공원관리공단에 손해를 보고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총무원이 자료를 수집해 논리 및 법리상으로 대응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은 지난달 29일 국립공원내 위치한 사찰에 대한 공원수입의 분배와 사용료 지급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요구했다. 사진은 국립공원내 위치한 월정사 전경.

공원 입장료와 사찰토지 사용료

1967년 공원법 개정에 따른 국립공원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공원내 토지와 임야 등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공원내 사찰에서 전담해 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되고 공원내의 사찰 토지가 공원구역으로 지정 포함되자 공원관리공단은 사유재산 수용에 대한 사용료 명목으로 입장료 수입금의 30%를 공원내의 사찰에 일률적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80년이후 사용료지급을 중단하다가 85년부터 10~30%의 범위내에서 사찰에 재지급하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국립공원내에 위치한 사찰은 월정사(오대산) 신흥사(설악산) 구룡사(치악산) 법주사(속리산) 갑사 동학사 신원사(계룡산) 내장사 백양사(내장산) 백련사(덕유산) 도갑사(월출산)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쌍계사(지리산) 대전사(주왕산) 희방사(소백산) 해인사(가야산)등 20여개 사찰에 이른다.

이준엽 기자

'사찰참배 불자에 입장료' 어불성설 주장

공원수익중 사찰토지 사용료 환수 당연

'백지화' 여론…법적대응 움직임도

교계 16개단체 항의성명서 정부에 제출

교육부 3월경 시행령 발표…내년 실시

확산되는 '성직자양성전문대학원' 파문

대통령자문기구 교육개혁위원회가 지난달 9일 제2차 교육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교계의 백지화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려는 신학대학에 대해 재정적 지원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종교편향의 우려까지 더해주고 있다.

교계는 정부차원의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의 설립제도 자체가 철폐돼야 하며 각 종교의 성직자양성은 각 교단에서 종교특성에 맞는 성직자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특정종교인 개신교계에 난립하는 무자격 목사들의 수준향상과 제도적인 양성을 위해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계는 오는 6일경 조계, 태고, 천태, 진각종 등 종단, 단체 등이 연대해 불교대책위원회를 결성키로 하고 범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결성되는 불교대책위는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의 제도에 대한 발상단계부터 방안이 공포되기까지의 사안을 분석하고 나타날 결과를 파악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내기로 하는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교계는 불교인권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동국대 석림동문회, 조계종 증앙신도회 창립준비위 등 16개 단체가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 설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정부 각 기관에 제출했으며 부산불교지도자들이 주요 정부인사에게 항의 뜻을 전하는등 주시하고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도 지난달 14일 교육개혁위 발표 이후 교개위에 건의서를 보냈으며 이에대해 청와대측으로부터 "법시행령 제31조에 명시된 '신학대학원'을 '종교관련 대학원'으로 변경하겠다"는 대답만 들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와관련 교계 내부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것은 교육개혁방안 마련 당시 교계인사도 참여했으며 교육개혁위원회가 교계 관계기관에 2차례의 심의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교계 백년대계를 가름하는 교육개혁안 시안을 공론화 하거나 논의등 사전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수렴하고 있다"며 "각 종단에서 개진되는 의견도 취합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과 관련한 교계내의 종합적인 의견집약이 시급하다.

조계종 교육원의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교계 내부의 자체적인 세미나 등을 개최해 문제점을 심도있게 집약하여 이에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움직임을 가시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은 앞으로 제도적 장치와 법령을 마련, 3월중에 교육부가 시행령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원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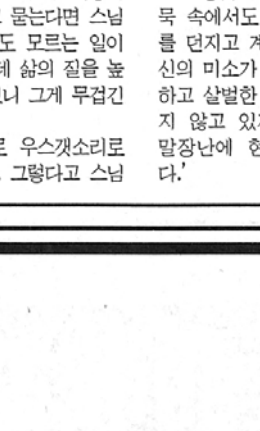
시 론

삶의 질을 찾아서

며칠 전, 낮의 일이다. 거리는 봄의 손길 같은 가랑비가 내리면서 촉촉히 젖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남쪽 쌍봉사에서 소곤대는 빗소리를 들어본 적이 벌써 20년도 더 지난 것 같았다. 방학이 되면 배낭속에 수건 하나, 치약 치솔 하나만 달랑 넣고 바람처럼 쌍봉사로 달려가 머물곤 했던 게 대학시절의 젊음이었던 것이다. 앞으로 봄 햇살이 더 재이면 남쪽 산자락의 동백나무 꽃망울들도 일제히 주사(朱砂)같은 붉은 빛깔을 독처럼 흘리고 말겠지.

분별심에 빠진 현대인

영축산의 나한(羅漢)처럼 보이기도 하는 명정스님이 머무는 극락암으로 전화를 건 것은 바로 그런 상념에서 깨어난 후였다. 최근 저잣거리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세속의 한 쟁점에 대해서 궁금증을 덜어보기 위해서였다.



정 찬 주
〈소설가〉

그러나 스님은 출타중인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 10여분 간격으로 두어 차례 더 걸어 보았지만 역시 무응답은 마찬가지였다. 많은 스님 중에 왜 하필이면 '세번 웃게 하는 굴' 즉 삼소굴(三笑窟)을 지키고 있는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그 이유는 불분명했다.

다만, 필자가 지난 해 가을 극락암을 찾아가 경봉스님을 소설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스님이 고생스럽게 손수 정리한 이런저런 자료를 한 묶음이나 넘겨준 인연이 있기는 했다.

필자는 어젯밤에도 다시 통화를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그만 두고 말았다. 아무래도 '삶의 질(質)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질문 자체가 극락암의 선승에게는 우문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가 하면 또 선거일이 다가오자, 이제 의식주 걱정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믿는 중산층을 향해서 쓸개라도 내줄듯 다가서는 정객들의 천박한 추파가 연상되기도 해서였다.

만에 하나, 스님과 통화가 되어 '여기저기서 삶의 질을 높이자는 세간의 소리가 많은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스님은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좋지요. 그런데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 걸 보니 그게 무겁긴 무거운 모양이구려.'

맥없는 질문이므로 우스갯소리로 대답할 것은 뻔했다. 그렇다고 스님이, 텔레비전 보고 신문 몇줄 정도 읽은 지식인이라면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예컨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오. 경제개발의 혜택도 누렸지만 그 반대로 지금 공해문제 등으로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있소? 이제부터라도 삶의 질을 생각해서 종교나 정신, 문화 등에 관심을 돌려야 될 때지요'라는 식으로는 결코 대답할 리가 없을 것이다. 스님 역시 선승으로서 근원적인 깊은 지혜를 보여주려 할 뿐이지 현실의 시비를 가리는 데는 자신이 몫이 아니라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른 체 넘어가기에는 그것도 찜찜한 일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허공에 고개를 쳐들고서 언제나 믿음직한 빽이 되어주는 부처님에게 묻기로 하였다.

'무엇이 삶의 질이냐고요? 부처님, 그거야 행복을 위한 삶의 조건같은 거 아닙니까? 헌데 이상합니다. 삶의 필요충분 조건은 양(量)에도 있고 질에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질만 높이겠다고 하니 그 구호가 좀 어색하기도 하구요. 질을 외면하고 양만 추구한 지난 과거는 불행하게 살아왔다는 말이 되는 셈이니까요. 아, 부처님 그렇군요. 이것도 역시 양과 질을 따로따로 생각한, 분별심에 빠진 현대인들의 어리석음이군요.'

스스로 얻어지는 행복

그래도 모순은 여전히 남는다.

'부처님,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하게 해준다는 말도 가만히 들여다보니 수상찍기만 합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남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얻어지는 것 아닙니까?'

불교는 자각의 종교이다. 불교적 삶의 시발점은 크게 보아 정각(正覺)이고 작게 보아 자각(自覺)이 아니겠는가.

불교인의 삶이란 자각에 의해서 스스로 그 질이 높여져야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높여짐을 당해서는 그거야말로 흉내내는 삶에 불과하다는 말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당신은 침묵 속에서도 화두 같은 깊은 미소를 던지고 계십니다. 연꽃 같은 당신의 미소가 있기에 그나마 어수선하고 살벌한 세상은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있지요. 결코 공해 같은 말장난에 현혹당하지 말 일입니다.'

성 명 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전면 설정 결정에 대하여

각 종단 사부대중과 2천만 불교도를 대표한 본 종단협의회는 지난 2월 20일 일본각의에서 독도를 사실상 포함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을 결정하고, 카지야마 관방장관이 독도에 대한 일관된 입장 표방과 함께 200해리 안에 있는 어떠한 수역도 제외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종래 주장을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밝힌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제법상으로나 역사적으로 온당치 못한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본 종단협의회는 지난 2월 9일 일본 정부를 대표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수상과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외상의 2백 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방침과 관련, 독도 영유권 주장 발언이 이러한 각의 결정의 사전 여론 포석용이었음을 직시하며,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가 더 이상 영유권 분쟁 지역이 되거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와 관련 어떠한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음을 재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역사적, 국제법상으로 객관성을 잃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종래와 같이 되풀이하고 철회하지 않는 이면에는 독도를 경제·군사 전략적 요충지역으로 활용, 새로운 방식으로 대동아 공영권을 형성하여 지배하려는 야욕과 신 군국주의가 내재되어 있음을 거듭 확인하는 바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입증된 우리 고유 영토

독도는 이미 역사적으로도 신라 지증왕 512년에 신라 소속국이 된 우산국의 영토였으며 일본도 이러한 사실을 1667년에 밝혀 자국 어민들에게 渡海금지령을 내린 바 있으며 1877년에 발간된 공식문서와 고지도를 통해 한국 영토임을 표기하고 있다.

더욱이 1904년부터 일본 문부성이 발행한 국정 교과서에서는 한국 영토로 표기하였고, 1905년에 들어서 한반도 강점 정책이 무르익자 일본은 러·일 전쟁을 앞두고 어민 나카이의 출원을 받아 시마네(島根)현 고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토 편입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일은 한국 주재 일본 영사관조차 모를 만큼 비밀리에 행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공지된 바 있다.

■대마도도 역사적 근거에 의하면 우리 영토

당시 일본 내무부가 공식 발간한 고지도에는 독도는 물론 대마도가 우리 영토로 표기되어 있으며, 「삼국사기본기」「지리지」에도 우리 영토임을 기술하여 조선시대에는 조선의 속주로써 경상도에 편입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들도 대마도가 한국 영토임을 사료와 고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그 동안 역사적 진실을 밝혀 온 학자들이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며 대마도도 한때는 한국의 영토였음을 사료를 통해 입증하는 연구 발표를 하여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한·일 양국의 고문헌에서도 이미 우리 영토임을 기술하고 있는 마당에 대마도 해협 영해를 확대한다는 방침은 독도 문제를 고리로 하여 정치·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극우 정치인들의 술책을 드러낸 것일 뿐이다.

■ EEZ발표 때 독도 관련 미언급은 고도의 이중적 기만책

일본 정부가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을 결정하면서 영유권 문제와 어업 협정을 분리해 협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독도 문제에 대한 종래의 일본측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분쟁의 시비는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이번 경제수역 설정에 있어서 독도 관련 경계, 기점 등 구체 사항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한국인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독도를 포함시키고, 새로운 어업 협정 협상을 유리하게 체결키 위한 고도의 계산된 이중적 기만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얼마 전 일본 정부가 2월 16일 발표키로 한 바타적 경제수역 설정 결정을 20일로 연기한 것도 한국인의 반일 감정을 잠시 누그러뜨려 일시적인 긴장을 완화시키고, 한반도 주변 해역의 어업 질서를 재편하는 데 있어 독도를 계속적인 영토 분쟁 지역으로 이용하겠다는 저의를 일부 나타낸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지난 번 연립 여당 정조 회장단이 방한 연기를 밝히면서 정부의 영유권 주장은 시종일관된 우리 입장이라는 발표는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이 절대로 변할 수 없음을 잘 나타내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독도 문제를 정치적 이해 관계의 지렛대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속셈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더욱이 일본 정부가 한국인들의 일본 상품 불매와 망언 규탄 등 높아지는 반일 감정의 파고와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하여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외교상으로나 내정상으로 일보의 후퇴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일본 언론들 또한 이번 사태의 본질이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경제 수역 선포를 둘러싼 어업권 문제라고 보도하고 있는 것은 영토 문제에 대한 본질을 은폐하고 희석화시키려는 일본 정·관·언론계의 기만책일 뿐이다.

■ 독도문제는 한민족 정신을 바로 세우는 자각운동으로 승화

일본 고교 교과서의 한국 관련 왜곡이 아직도 심각하며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동해를 일본 해로 표시해 자국의 어린 학생들을 교육 단계에서부터 역사의식과 영토에 대한 전해를 호도시키고 있으며,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문화적 침략까지 자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독도 영유권 문제는 주권의 문제와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문제에서 더 나아가 한민족의 정신을 일깨우는 정신 자각의 문제로 승화하여 대처해야 한다.

이제 자국의 영토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 얼을 지키는 것이다. 정신적 공허감을 심화시키는 물질 위주의 전도된 가치관에 함몰된 이 사회에서 일본의 경제적·문화적 지배가 그 상상을 초월하고 있음을 우리는 피부적으로도 익히 느끼고 있다.

우리는 지난 번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팔만대장경, 종묘의 세계 유산 등록을 통해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우수성을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가진 바 있다.

어느 문화유산할 것 없이 頑頭物物에 녹아 있는 조상들의 비원과 경건한 삶은 물질 중심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민족의 얼을 잃고 전통문화가 사라진다면 영토의 잃음보다 더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일본이 至難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 심대하게 고통을 주어 왔던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반성하지 않고 줄기차게 역사 왜곡과 영토 분쟁을 조장하고 있음은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통해 경제적, 문화적 지배를 공고히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민족 고유의 맥과 얼을 없애려는 장기적 전략에 기인하고 있음을 우리 국민들은 직시하고 있다.

■정부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이번 우리 정부의 신속한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 방침발표와 김대통령의 3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회담 취소 계획, 일본 연립여당 정조 회장단 면담 취소, 외무부의 소극적이고도 미온적인 대처 방식에 대한 질책, 독도 부근에서의 해·공군 합동 기동 훈련 실시와 접안시설공사 진행, 정수장 시설의 추가 방침 등은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잘 나타내 보였지만 그 동안 정부가 일본 정치인들의 과거사 망언, 한일 과거 청산과 관련한 제반 문제 등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여 왔음을 비추어 볼 때 망언에 대한 강경 대응과 신속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이번만은 한·일 관계를 재정립시키는 근본적인 방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재발 방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는 독도의 점안 사실을 연내 완공하여 천혜의 관광지로 개발, 개방하여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 영토가 아니라 온 국민의 사랑 속에 함께 숨쉬는 독도가 되도록 실효적 관리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

또한 중첩수역은 국제법과 관련국과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고 선언만 할 것이 아니라 독도를 포함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전면 선포하여 독도가 어떠한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우리 수역 관철 방침에 따라 어자원 보호는 물론 어민들이 기존 어로 활동을 유지하는 등 제반 경제적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책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당부와 함께 가장 중요한 문화민족으로서의 우수성과 자긍심을 갖기 위한 국토 사랑, 전통 문화 계승, 한민족 정신 지키기에도 다각적인 대책과 노력을 강구해 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불기 2540년 2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조계종 총무원장)송월주 · 부회장(태고종 총무원장)최혜초 · 부회장(천태종 총무원장)전운덕 · 부회장(진각종 총무원장)김락혜
부회장(조계종초심호계원장)김월서 · 부회장(조계종 종회의원)방지하 · 부회장(관음종 총무원장)이홍파 외 이사 일동

법회 안내

(사)대한불교 삼보회
(02)913-2859

정기법회
첫째주 일 오전10시30분
〈선가구감〉…정병조교수(동국대)
둘째주 일 오전10시30분
〈승만경〉…종범스님(중앙승가대)
셋째주 일 오전10시30분
〈육조단경〉…송찬우교수(중앙승가대)
넷째주 일 오전10시30분
〈아함경〉…박경준교수(동국대)

동선사(0523)82-5074

선무도 주말 수련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6시 입산
일요일 오전9시 하산
철야정진법회 매월 음력 그믐 오후11시

관음사(053)421-3700

관음기도 매월 1~3일 오전10시
불일법회 매월 9일 오전10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 오후7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1시

대성사(053)651-6108

정기법회 매월 1일 오전11시
야간법회 매월 15일 오후10시
청년부법회 매주 수 오후8시
어린이·학생부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월정사(0374)32-6664

고불학생회 매주 일 오전10시
신중기도 매월 5~7일 오전10시

삼화사(0394)34-8313

중·고등법회 2·4주 일 오전11시
신도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성불원(0371)762-4848

성불회원대법회 매월9일 오후6시
불광청년회 매주 수 오후6시
시창법우회 매월 둘째주 토 오후3시30분
선우가족법회 매월 1·3주 화 오후7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4시
인등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1시

대원사(0694)52-1755

백만편법회 매월 1일 오전10시
다타재일법회 매월 15일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주말수련회 매주 토 오후5시~일 오후2시
특별수련 매월 넷째주 금 오후5시~일 오후2시

자비사(051)505-3000

정기법회 매주 금 오후2시

광성사(051)243-2468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교차로

광주불방 1돌 기념식서 설법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4일 불교방송 광주지국 개국 1주년 기념 법요식에서 설법했다.

생명나눔실천회 2돌법회



법장스님(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수덕사 주지)은 오는 20일 오후 2시 화계사에서 생명나눔실천회 창립 2주년 기념법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95·96년도 예·결산과 운영위원을 선출한다.

청소년선도위원장 취임



정암스님(부산 기장군 사암연합회장)은 지난달 28일 해운대 글로리콘도 연회장에서 기장군 청소년 선도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다.

태고종신협 정총



인곡스님(태고종신협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서울봉원사에서 태고종신용협동조합 제1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납골당 시설 건립의사 밝혀

구본무회장(LG그룹)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죽으면 화장(火葬)을 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공익사업의 하나로 납골당 등을 갖춘 종합장례문영시설을 만들어 사회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 군포지구당 창당대회



여익구씨(민주당 군포시 지구당 창당준비원장·전 민불련 의장)는 지난달 29일 군포시 엘림복지원에서 민주당 군포시 지구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불교청소년의 해 기금 전달

김일성회장(조계사 국청회)은 지난달 23일 조계종 포교원을 방문, 불교청소년의 해 사업기금으로 1백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지난해 11월 14일 일일찻집을 통해 모금된 것.

다보법회서 매월 강연



박완일씨(전 조계종 전국 신도회장)은 이달부터 대한불교진흥원이 주관하는 다보법회에서 매월 한 차례씩 특별강연을 한다. 이달은 6일 오후3시 다보빌딩 3층 대법당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주제로 강의한다. 4월에는 3일, 5월에는 1일 강의할 계획이다.

문화교육장 '동양서숙' 개원



맹란자씨(역문관 서우회 회장)는 최근 논현동 YMCA 뒤에 동양문화교육장인 '동양서숙(東洋書塾)'을 개원하고 동양화 강좌(매주 월·수·금) 주역강의(매주 화·목·토)를 하고 있다. (02)545-3938

서울역 문화관서 개인전



손철씨(희극인)가 오는 7일까지 서울역 문화관 제5전시실에서 여섯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손씨는 연예인불자회 창립회원.

인사

국방부 ▲군승단 △대령 김상래 △소령 설상동, 경연수

게시판

▲보육교사 모집=중앙승가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이 주야간 각 1백명씩 1년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02)929-5004

▲산천기행=월간〈대중불교〉는 오는 9일 '남한강의 폐사터와 절들'이라는 주제로 여주 고달사터, 신륵사, 원주흥법사터 등을 돌아본다. 함께하는 스님은 효림스님(실천불교승가회 부회장). (02)752-7047

▲노인대학 개강=개금사회복지관(관장 범산)은 한글, 노래, 풍물교실 등을 내용으로하는 노인대학 개강식을 오는 3월 8일 오후2시에 가진다. (051)893-5034

▲어린이 영어교실=삼전사회복지관은 월, 수, 금요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회화 강좌를 마련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02)421-6077

▲홈패션 수강생 모집=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방석, 앞치마, 식탁보, 커텐, 침대카바 등을 만드는 홈패션 교실을 개강한다. 수업은 화, 목요일 오전11시. (042)633-1141

▲자원봉사자 모집=대전광역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소장 종실)는 오는 31일까지 만20세 이상 60세이하를 대상으로 청소년과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42)585-0735

▲근본불교학교=자비마을부설 근본불교학교에서는 불교입문·완성반과 참선교실 봄강좌를 오는 9일 개강한다. 참가비는 6만원. (02)553-0643

▲천수경 강의=청계사 서울포교당은 오는 6일 2개월 과정의 천수경 강의를 개설, 수강생을 모집한다. (02)676-2279

▲육조단경 대강좌=정토포교원(원장 유수)은 봄 정기강좌로 '육조단경강좌'를 마련했다. 기간은 오는 6일부터 6월 26일 매주 수요일, 오전11시, 오후7시30분. (02)379-1650

▲생활소품교실=공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석산)은 매주 화·목요일에 생활소품을 만들기 위한 도자기공예, 등공예 교실을 개설한다. (051)361-2063

▲불교수화교실=(사)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는 오는 5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불교수화교실을 개강한다. (051)464-2020

▲불교사상강좌=탄허불교문화재단은 불교사상강좌(3년과정)와 대승경전강독(6년 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사는 최봉수교수(동국대)와 각성스님(삼일선원 상임법사)이며, 3월 5일 개강한다. 수강료는 1학기당 15만원. (02)237-4438

"교종 전통본찰 면모 되찾아 기뻐"

봉선사 능엄학림 초대학장 운경 스님



"급변하는 현대사회속에서 전통강원을 이룰수 있게 되어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28일 개원한 봉선사 능엄학림 초대학장 운경스님은 중단된 교종본찰의 면모를 되찾아 기쁘다고 말했다.

운경스님은 또한 "이번 능엄학교 개원은 봉선사 젊은 문도들의 발원으로 이루어졌다"고 소개하고 "학림을 중심으로 문도가 화합하고 나아가서는 종단화합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능엄 학림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운경스님은 "학림개원에 이어 추진위원들이 추진위를 운영위원회로 전환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며 "선대 운허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새로운 교종본찰을 창출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앞으로 도서관, 자료실 건립 불사를 착수해 학림의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엽〉

인 터 뷰

"교민불자 교화에 108배가 최선"

일시귀국 프랑스 길상사 주지 지 묵 스님

언어장벽 애로…"한인사회 자리매김 기여했으면"



"서구 유럽의 한국불교 포교 현실은 바로 '민들레 포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들레 꽃씨 퍼지듯 자생적으로 인연따라 억세게 생명력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3월 송광사 파리분원 길상사 주지로 부임한 지묵스님이 1년만에 일시 귀국해 진단한 유럽포교 실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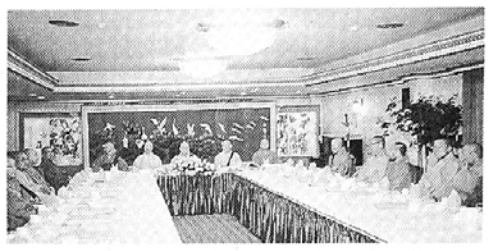
지묵스님은 오는 13일까지 국내에 머물며 '93년 10월 창건한 길상사가 발행해온 '길상회보' 33호까지 합본집을 만들고 길상사 안내 소책자 1천부를 제작한다. 이 소책자는 프랑스은행 식당등 공공기관과 대중장소에 배포돼 한국불교를 알리게 된다는 것.

"길상사가 지금까지 사찰건립에 온 힘을 기울여온 것을 토대로 저는 사찰을 정비하고 신도층의 대다수인 유학생불자들의 탄탄한 정신적 지주로 자리매김 하려고 합니다. 더우기 한인사회에 한국불교의 위상정립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길상사가 새주지 지묵스님을 맞아 1년여동안 크게 변신했다. 이는 길상회보 합본집인 〈길상〉에 기고한 신도들의 글속에서 생생히 나타나 있다. 그 첫째가 프랑스에서는 최초로 작년여름 '출가 3박4일' 선수련회가 열렸고, 108배 절하기가 '붐'처럼 너도나도 열심이라는 것.

"학문과 교리적으로 나름의 일가견이 있다고 여기는 신도들을 교화하는 방편은 수행면으로 이끄는 것이지요. 그리고 포교 교화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의 장벽입니다. 장기비자와 체류증이 나와서 어학교육 1년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언어소통이 될때까지는 프랑스인 스님이 자국인을 스스로 지도하게 하는 방식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길상사 신도를 위해 108염주를 아주 많이 준비했다며 의욕에 차있다. 〈란〉



조계종 중진스님 신년간담회

조계종은 지난달 26일 교계 중진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원주(총무원장) 원산(교육원장) 설정(종회의장) 태응(btn사장) 설조(불국사 주지)스님 등 30여명의 종단중요기관장 스님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스님들은 대통령의 군중앙교회 예배사건 일지, TV3사 프로그램 분석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단발전과 화합을 위한 대화를 나눴다.



봉선사 능엄학림 개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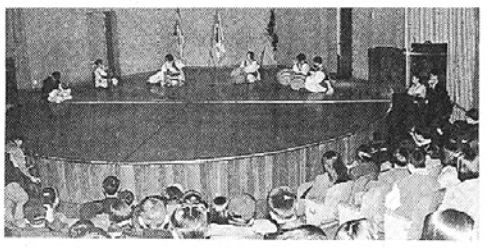
조계종 25교구 본사 봉선사는 지난달 28일 능엄학림(학장 운경)을 개원했다. 청하(통도사부방장) 원산(교육원장)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개원식에서 대강주 월운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능엄학림개원으로 교종본사의 전통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능엄학림은 2년과정으로 10명의 학인스님이 1기생으로 입학했다.



조계종 사무장 연수교육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지난달 27~28일 양일간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교구본사 및 주요사찰 사무장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전국 주요사찰 사무장 60여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교육에서 우수사무장으로 선정된 성일영(범어사) 윤주을(선운사) 이정용(전등사) 권부현(해인사)사무장이 총무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청교련 서울지부 붓다의 메아리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서울지부(지부장 광명스님)는 지난달 25일 목동청소년회관에서 제46회 붓다의 메아리 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탈춤(동대부고), 패션쇼(구룡사), 마당극(대각사), 사물놀이(화계사)등을 비롯 특별공연과 레크리에이션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삶을 나눕시다

창립2주년 생명나눔실천회 기념법회 및 정기총회

"육신은 헛것이어서 생이 있고 멸이 있지만 참마음은 허공과 같아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 몸이 무너지고 흩어져 불로 돌아가고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마음은 항상 신령스러워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
「보조국사」

생명나눔실천회가 따사로운 봄기운을 안고 태어난지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창립2주년 기념법회에 무루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생명나눔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명 나눔 운동이란?

1. 신장기증자 접수 신장수혜자 수술
2. 골수기증자 접수 골수수혜자 수술
3. 헌혈자 접수 수술대기자 혈액공급
4. 사후 각막기증자 접수 각막수혜자 수술
5. 장기기증자 접수 장기수혜자 수술
6. 사후 시신기증자 접수 의과대학교용 기증

■ 일 시 : 3월 20일(음력 2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 소 : 화계사 대적광전 전화 902-26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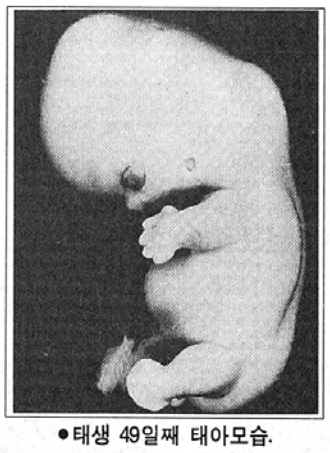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대형빌딩 501호
전화(02)734-8050, 팩스(02)734-8052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한생명을 살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金 法 長 합장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태아(낙태) 영가 천도 "사경" 참회 법회 봉행



●태생 49일째 태아모습.

생명을 빼앗긴 태아(낙태) 원혼 영가는 천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낙태한 부모들은 태아(낙태) 영가를 천도 "사경"참회기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53존불경 사경참회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그 선업으로 원혼 태아(낙태 영가와 그 부모가 왕생극락·구경성불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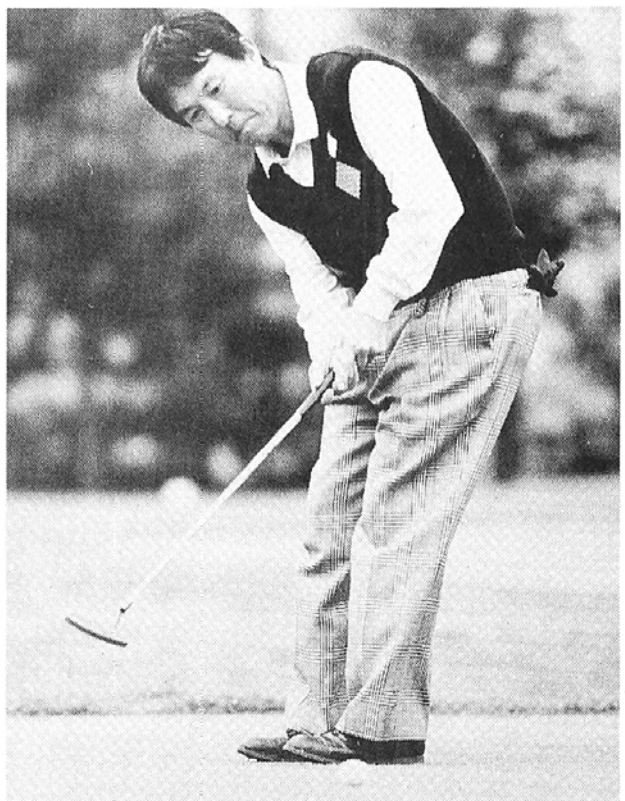
■ 일시 : 불기 2540년 4월5일 10시, 11일 10시, 18일 10시 사경참회
회향 4월 25일 9시, (3, 7일 기도 : 동참금=5만원=백미)
■ 장소 :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31-8 (전화 02-993-3744)
■ 영현봉안소를 개설하여 설·추석·기제사 영구위패 봉안합니다.

영현봉안소 개설 영가 천도 도량 금강사 천도 법주 변산 자우

"필드 서면 싸움상대는 자신"

산문밖의 선禪

프로골퍼 곽흥수 씨



지난해 6월 골프전문잡지 〈파골프〉는 '41세 노장 곽흥수 5타차 우승쾌거'란 타이틀과 함께 표지에 그의 마지막 샷 모습을 사진으로 실었다.

프로골퍼 곽흥수. 89년 이후 상금랭킹 10위권 안을 지켜왔고, 일간스포츠 주최 포카리스오픈 선수권대회를 비롯 참피온시리즈 동아생명오픈대회 등 굵직한 대회의 우승을 세차례나 차지한 한국골프의 간판급선수다. 따라서 그의 우승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41세의 나이는 놀랍다.

자기 다스림의 연장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골프에서 40대면 노인축에 낀다. 그러나 골프는 몸만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다. 자기와의 대면이며, 자기 다스림이다. 물론 4일 연속의 경기를 치뤄야하기 때문에 체력의 뒷받침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체력관리 또한 자기다스림의 연장일 뿐이지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지만 40의 나이에 들어서며 그도 초조함을 숨길 수 없었다. 후배들의 대열이 물밀 듯 밀려오는 모습이 자주 떠올랐다.

그럴수록 더욱 불교의 가르침에 귀가 솔깃해진다. 초조함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말한다. 중년의 나이, 되돌아봄이 자연스러울 때에 다다랐으며 앞으로의 삶을 가늠하자는 뜻이라고 말한다.

요즘 그는 경전을 자주 들춘다. 그러면서 한가지 놀라움을 발견한다. 25년 동안 숱한 경기를 치뤄오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아깝게 우승을 놓쳤을 때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샷을 잘못했으면 빨리 잊어버리자, 만회하겠다고 마음 한켠에 실수했던 모습을 담아두어서는 안된다는 생각들. 최종일 우승을 놓고 상대방과 격돌할 때, 이 홀에서 실수하면…. 어떨 때는 차라리 2등이다 하고 생각되지만, 이는 용납할 수 없다. 그때 가졌던 생각들이 어찌 그리도 똑떨어지게 표현되어 있는지….

"다른 운동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득을 보지만, 골프는 코스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만큼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잘 친다고 긴장하거나, 못 친다고 얕보면 영락없이 내가 무너집니다. 선수들간의 기량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마음가짐의 차이죠."

그의 이말에 골프와 불교와의 낯선 세계는 돌연 둘이 아님을 깨우치게 해준다. 물론 그의 집안대대로 불교와 인연지어 살아온 탓도 있지만, 그에게는 골프가 불교를 가르쳤다. 그는 매번 시합 때마다 이를 확인한다. 마치 경전의 한 구절을 듣는 듯하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니라."(잡보장경)

프로의 세계는 냉혹하다고 한다. 엇갈리는 승부에 따라 명확한 희비가 뒤따른다. 그보다는 시합에 임하면 2등은 있을 수 없다는 프로세계만의 엄격한 규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웃을 때 그의 눈가에 접히는 주름에 기쁨과 좌절의 구비구비가 스며 있다.

"퍼팅 긴장감 무심으로 극복"… 욕심이 승패 결정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경기때마다 되뇌이며 마음안정

승부의 세계는 고독하다. 호쾌하게 휘두르는 샷, 보는 이들은 더없이 시원한 장면이다. 그런가하면 마지막 퍼팅의 떨리는 긴장도 보는 이들의 재미를 더해준다. 그러나 이를 업으로 삼는 프로의 세계에선 즐거움만이 따르지 않는다. 한 타에 상금의 차이가 천양지차로 벌어지는 현실이 압박해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진실은 한쪽면으로 다가오지 않듯 또다른 일면이 있다. 경기장에서 평소에는 안그렇던 동료들이 손목에 염주를 차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렇다. 그들이 오히려 경쟁자라는 생각보다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도반이 될 수 있다는 즐거운 상상이 들 때가 있다며 웃음을 짓는다.

그들이 불자라는 사실이 반갑기도 하지만 한켠으로는 자기는 미안한 불자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한다. 결정적인 순간에 닥쳐서야 부처님을 찾으니 그렇다는 것이다. 자기는 부처님을 부르는 불자이지 부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베푸는 불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네푸는 불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키워가고 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그는 생각이 행동이 된다는 말도 믿기 때문에 언제까지 미안한 불자로 머물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짐이 있다.

최연소 프로입문 '기록'

골프는 고급스포츠로 알려졌다. 돈있는 사람들의 놀이로 알려졌다. 틀린 말은 아니다. 1~2억을 호가하는 회원권이 있어야 사용예약이 가능하며, 한 번에 최소한 10만원의 경비가 들어간다. 이 정도의 준비가 없으면 즐기기 어렵다.

이에대해 그는 할 말이 많다. 중 3때 골프를 시작했지만, 결코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이 운동을 했던 것은 아니다. 집 근처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세워진, 지금의 어린이대공원 자리에 있었던 서울컨트리클럽이 있었고, 골프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가까운 친척이 선수생활을 하기도 해 자연스레 접할 수 있었다. 중학교 3학년의 나이에 처음으로 골프채를 잡았다. 그리고 골프가 단지 좋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프로에 입문했다. 최연소 프로 입문이었다. 아직도 이 기록은 깨어지지 않고 있다.

부처님은 골프장에도 계신다. 곽흥수가 찾는 부처님이다. 첫 날 첫 샷이 가장 긴장된다. 무슨 징크스처럼 이때의 느낌이 좋아야 마지막 날까지의 경기가 잘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때의 팽팽함. 이것의 조율이 승패의 갈림길을 좌우할 때가 있음을 그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부처님을 찾는다. 긴장의 팽팽함을 풀어주기 위함이다.

"넓은 그린 위에 나 혼자만 서있을 뿐 어떤 움직임도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퍼팅으로 우승의 향배가 갈릴 때, 그때 가져야 할 마음이 무심이겠지요."

정성운 기자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뜻은

문 금강경에 있는 저 유명한 사구게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起心)은 어떤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유영필 · 울산시 남구 신정동〉

답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을 굳이 말로 한다면 부처님의 마음자리라고 할 수 있지요. 또 우리들이 흔히 마음이라 할 때는 중생심을 말하는데 한 생각 일어나는게 모두 중생의 업식놀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습에 물든 마음이지요. 그러니 비유하자면 맑은 물과 더러운 물의 차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 내는게 죄다 구정물이니 이걸 언제 다 맑히겠습니까? 따라서 나는 생각 내기 이전의 마음자리, 말하자면 에너지를 배출해 주는 자기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몰락 맡겨놓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해줍니다. 자기뿌리는 만법을 다 행할 수 있으니 중생심으로 따지지 말고 자기뿌리를 굳게 믿고 오로지 믿는 마음으로 몽땅 맡겨 놓고 산다면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경지인 것입니다. 그럴때 법과 생활이 둘이 아닌게 됩니다.

경전 읽는 바른 마음은…

문 불교에 입문한지 근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많은 경전을 섭렵했고 관련 해설서도 제법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제 스스로 공부에 진전이 있었다고 자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전을 보아오면서도 늘 불립문자, 일자무설이 생각납니다. 어떤 마음으로 경전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조인건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답 나로서는 경전을 봐야 옳다, 안보아야 옳다라고 말할 수 없군요.

왜냐하면 이 오장육부 속도 천차만별로 모습들이 다르고 행도 다르듯이 세상사람들 마음 내는게 천차만별로 다른데 그건 제 그릇대로 제 생각대로 하는 것이지 누가 보는게 옳다 안보는게 옳다고 말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들려드릴 말씀은 경전을 풀어 놓은 것 중에 기복으로써 놓은 게 적지 않은 것 같다는 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공부하면서 때로는 마음계발과 자기점검을 위해 경전을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해서 이름을 모른다면 생각도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먹고 싶은 것은 먹어보았거나 이름이라도 들어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와같이 길잡이로써의 경전은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경전, 어떤 구절을 보더라도 밖으로 의지하거나 복을 비는 내용을 참고하거나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뜻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경전을 보면서 마음공부에 좋은 참고로 활용한다면 그 경전은 살아있는 경전이 될 터이지만 기복으로 받아들이고 지식을 쌓는 재료로 삼는다면 그 경전은 읽는 그 사람에 의해 죽은 경전이 되고 맙니다. 불립문자니 일자무설이니 하는 말은 바로 그 점에 유의하라는 경책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전의 뜻은 제쳐두고 경전 그 자체를 신성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뜻이 진리로써 소중한 것이지 책이 소중한 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의 생활, 일체의 경계가 그대로 화엄경입니다. 그 속에서 마음을 계발하여 맛을 보고 고집멸도의 길을 깨달아야 합니다. 경전은 외우라고 있는 게 아니라 길잡이로서 있는 것입니다.

남을 '부처'로 보자면

문 어떻게해야 상대방을 부처로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부처가 되어야 상대가 부처로 보인다하는데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은 말뿐이고 사사건건 습기를 떨쳐버리지 못하니 대인관계에서 비난과 손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중인 ·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답 상대가 부처로 보이고 둘아니게 여겨지려면 살아서 열반을 해야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자식이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하며 고정된 이름이 없이 이 역할 저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인연에 따라서 다른 부모한테 몸을 빌어 태어났다가 어떤 때는 짐승의 자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돌고 돌다보면 서로 부모가 되었다가 자식이 되었다가 형제가 되었다가 했으니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가 아닌 상대가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해골무덤에 절을 하셨다는 얘기를 알고 계시겠지요.

아무튼 우리는 한 염주에 염주알이 꿰어 있듯이 그렇게 꿰어져 인연따라 나오는 것이니 '아! 이게 모두가 둘이 아니구나' 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한번 죽었다가 깨어나고 깨어났다가 죽는 도리를 확실히 알고자 지금 마음공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도리를 알지 못하고야 어떻게 나와 상대가 둘이 아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모습이 둘이 아닌게 아니고 마음이 둘이 아니다, 한 염주에 꿰어진 염주알같이 모습은 따로따로지만 한줄에 꿰어 있으니 둘이 아니다라고, 그점을 확실히 알아야 하겠지요. 그렇게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한다면 믿으셔야 하지요. 믿고 실천하는 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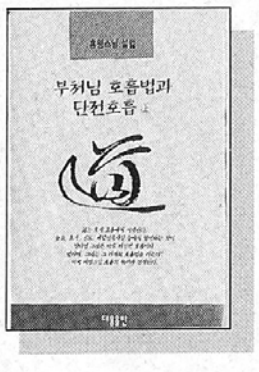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 ·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부처님 호흡법과 단전호흡

金日河(홍명) 스님 설법테이프

부처님 호흡법과 단전호흡, **테이프 ① ②**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불교전통호흡법을 소개하고 호흡과 기(氣)와 마음, 선정의 관계를 밝혔으며 전통적인 단전호흡, 기(氣)수행원리를 밝혔다. **테이프 ③**은 전국의 초능력자 수십명을 취재 보도한 바 있는 영남일보 변성석 기자와 대담한 취재 형식의 내용이다. **테이프 ④**는 법문을 듣는 수행 청중과 토론한 내용이다.



「전통적인 불교수행법은 어떤 것인가?
단전호흡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기(氣)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통적인가?」

전국 불교 서점에서 구입하십시오.
※下편도 곧 나옵니다.

대웅불교음반 대구시 수성구 수성3가 142-1 (053) 755-9537, 742-4017

카운슬러대학

제21기 입학안내

현대생활에서의 각종 스트레스와 복잡한 인간관계로 갈등을 겪는 현대인의 지친 정신과 마음을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는 카운슬러는 아름다운 「사회봉사직」입니다.

인간성 회복과 도덕성 회복운동에 앞장서온 본원에서는 그 권위와 전통을 인정받고 있는 「카운슬러대학」 제21기 수강생을 모집하여 전문카운슬러와 인간교육 지도자를 양성하여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개 강 : 1996. 3. 14 「1년 전문과정」
● 과 목 : 상담심리, 발달심리,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심리, 인간관계론, 감수성훈련, 교류분석, 정신위생, 상담기법, 심리검사, 위기개입, 부모교육, 상담실습
● 특 전 : 본원 카운슬러자격증 및 수료증 수여
● 과 정 : 정규과정 및 지방거주자를 위한 통신과정
● 접 수 : 원서는 본 대학 교학과에서 배부, 접수(지방우송)
● 문 의 : 본원 카운슬러대학 교학과

☎ (051) 466-5161~2

교육부허가 카운슬러양성기관
사단법인 한국인간교육원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8-15 명지 B/D 6층

1996년도 1학기
원효학당 신입생 모집

1996년도 동장(銅章)법사과정<2년제>신입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입학 자격 :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
- 개강일시 : 1996년 3월 12일(화) 10시 30분
- 모집과정 : 동장(銅章)법사 과정 ○○명
- 전형방법/합격자 통보 : 서류전형/개별통보
- 문 의 처 : 본 학당 사무국(☎ 3411 - 6167 ~8)
- 개강과목/시간표

강의과목	교 수	일 시
불교개론(1)	이기영 박사(본원 원장)	매주 화요일13:30~15:00
장 자(1)		매주 수요일 10:30~12:00
인도불교사	정병조 박사(본원 부원장)	매주 목요일 15:30~17:00
대 학(1)	진성규 박사(중앙대 교수)	매주 금요일 13:30~15:00

※상기 과목 외 2개 과목 수강신청 가능함

◀통신 수강 / 출석수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강의 테이프와 교재를 통해 가정에서 공부하며, 수시로 통신을 통해 담당교수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 있음
◀특 전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인 경우 면접을 통해 선발된 자는 수강료 면제함

동서양의 철학사상에서부터 현대의 제반 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접근을 통해
원효사상의 요체를 현대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심도 있는 교과과정을 통해 하나의 앎을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지성인을 모집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원효학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3동 186-1 개포빌딩 6층 ☎ 3411-6167~8 (지하철 3호선 대치역 ▶개포5단지 경기여고 앞)

"선불교는 포스트모더니즘 뿌리"

영문학계 선문답의 언어특징 규명

이정호 교수 동양사상이 철학적 배경 제공
이 합 합 산 敎外別典·脫正典化 공통 요소
알랜 와일드 화두의 해학과 '아이러니' 밀접

포스트모더니즘이 90년대 초부터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을 때, 영문학계에서는 선불교의 '언어 사용'과 비교해 포스트모더니즘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정호교수(서울대)는 그의 저서 '포스트모던시대에서의 영미문학의 이해'에서 "동양철학이 서양의 포스트모더니즘에 끼친 영향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도 깊고 넓다"라고 지적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적 배경을 제공한 동양사상은 선불교와 노장사상"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문화비평가 이합 합산(Ihab Hassan)은 그의 '다원주의의 포스트모던적 조망'(1990)이라는 논문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탈정전화'(脫正典化 decanonization)와 '축제적 요소'(canivalization) 등 10가지로 꼽고 있다. 그런데 이교수에 따르면 선불교의 정전(正典)화를 거부한 교외별전(敎外別典), 언어나 글자에 기대는 것을 배격한 불립문자(不立文字), 직관과 통찰을 통해 앎에 이르는 직지인심(直指人心), 자신의 본성을 봄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견성성불(見性成佛) 등이 이합 합산의 탈정전화, 축제적 요소와 같다.

또한 문화비평가 알랜 와일드는 "선불교의 화두는 선사가 운수납자에게 주는 문제를 지칭한다. 그런데 선문답의 특징인 역설, 해학, 직관(直觀)은 아이러니를 중요시 여기는 포스트모던적 언어 사용의 예를 보여준다"며 그의 논문 '주장의 한계'에서 이교수와 동일한 견해를 피력해 선불교의 언어 사용과 포스트모더니즘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선은 '불립문자'란 의미처럼 문자나 말의 지시성을 깨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는 선의 중심이 '空'이라는 근본 출발점에 근거를 둔다.

그러므로 지시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시어의 지시대상을 인정하는 사실 자체가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다.

당나라시대의 선승 단하(丹霞) 스님은 목불을 쪼개서 불을 지핀 일화로 널리 알려졌다. 그런데 단하의 일화는 지시어(목불)가 지시대상(부처님)을 가리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방해가 됨을 행동으로 보여 준 것이다.

이교수는 이처럼 선불교와 포스트모던시대의 언어 사용에 있어서, "지시대상을 지칭하지 않는 지시어는 하나의 사물에는 하나의 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던 고전적 언어관에서 해방된 언어이며, '空'을 지시대상으로 삼는 언어"라고 공통점을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학술단신

조선말 관영스님 초상화 정읍시 문화재지정 신청

정읍시는 고부면 두승산 유선사(주지 성수)가 소장해 온 조선말기 고승인 관영선사의 초상화를 문화재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지난달 21일 전북도에 제출했다.

이 초상화는 세로 81.5㎝ 가로 55㎝ 크기로 중앙에 장삼 가사의 坐像으로 주위에 꽃다발이 놓여있고 소박함과 장중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보관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괘불7점 문화재자료 선정

신원사, 갑사, 마곡사(이상 공주), 장곡사(청양), 용봉사(홍성), 광덕사(천안), 개심사(서산) 등 7개 사찰의 괘불이 지난달 말 충남도 문화재 자료로 선정됐다.



◇경북 문경 사불산 대승사는 붉은 비단으로 싸여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사면석불의 설화와 대웅전이 조화를 이루는 신비감이 서려있다.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대승사

무명전

墨池水滴曇花雨
(묵지수적담화우)
淸磬聲傳具葉風
(청경성전구엽풍)

처의 성품이요
맑은 못에 비친 밝은 달은
선승의 마음일세
뜻은 고요하여 흐르는 물
따르지 않고
마음 한가로와 흰구름이
웃음 전해 주네.

해설 대승사는 오르는 길에서부터 매우 청쾌한 풍경을 느낄 수 있다. 산어귀 마을의 정겨운 풍치를 지나면 그야말로 출세간의 담박한 수행도량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환경의 아름다움은 이 절에서 수행정진하는 스님들은 물론 속진의 때를 벗고자 찾아 드는 중생들의 마음을 맑혀 주기에 모자람이 없다. 무명각의 주련이 풍겨주는 이미지 역시 청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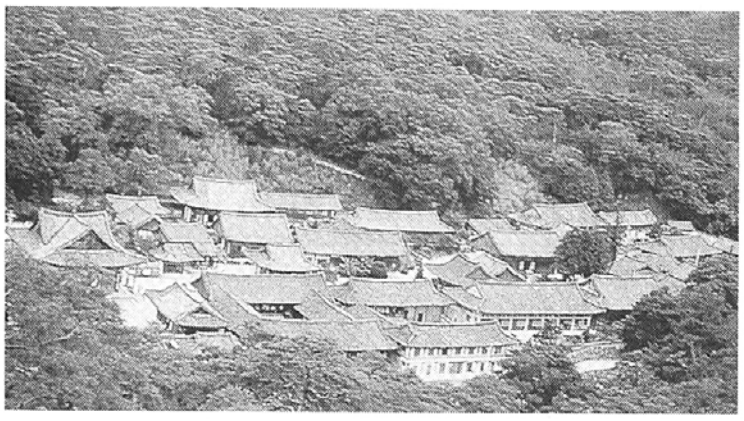
아무튼 앞의 네구절과 뒤의 네구절을 따로 음미해 보면 맑고 신선한 풍치 속에서 무상의 도리를 다 깨우쳐 버린 해탈의 미소가 느껴지는 것이다. 일체의 아름다움 그 자체 역시 공(空)한데서 본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보는 순간 성품이 저절로 맑아진다는 것이 앞 네 구절의 의미이다. 뒤의 구절들은 이미 깨달은 눈으로 보는 세상이 어느 것 하나 불성과 동떨어져 있지 않음을 매우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뜻은 고요해서 흐르는 물을 따르지 않는다는 표현은 오늘의 우리들 삶이 갖는 혼란스러움을 다시금 생각케 하기도 한다.

〈안동 경안중 교사〉

"세상만사 즐기는 깨침의 노래"

煙霞淸淨塵無跡
(연하청정진무적)
水月空虛性自明
(수월공허성자명)
翠竹黃河皆佛性
(취죽황하개불성)
淸池皓月照禪心
(청지호월조선심)
意靜不隨流水動
(의정불수류수동)
心閑還笑白雲博
(심한환소백운단)

붓 벼루 씻는 못에 연적 담그니 구름은 꽃비를 뿌리고
맑은 磬 소리 바람 타고 다라수 나무잎에 전하네
산수의 경치 맑고 맑아 티끌 흔적 전혀 없고
수월은 공허하니 성품은 저절로 맑도다.
푸른 대 맑은 강 모두가 부



◇통도사 전경

"자장율사 창건 '통도사' 건축미 탁월"

김봉렬교수 주장 삼로전에 '3 중심사상' 반영 통일성 갖춰

통도사 개산조 자장율사는 뛰어난 건축가였으며, 통도사는 창건주 자장율사의 '3개의 중심 혹은 3개의 영역' 개념이 철저하게 적용된 건축물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흥미를 끌고 있다.

문화재자문위원인 김봉렬교수(울산대 건축학)는 월간 〈이상건축〉 2월호에 기고한 '불교적 건축이론-통도사'라는 논문에서 불교건축의 축소판이자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율사는 사찰의 건축적 개념을 정립한 훌륭한 건축가였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논문에서 통도사에는 한국불교의 모든 신앙요소와 교리적 체계가 공존하고 있으며, 자장율사는 이들을 하나의 사찰에 수용하기 위해 상로전, 중로전, 하로전 등 개별의 고유 성격과 가치를 지닌 3개 영역의 완결체를 이들이 모인 삼로전(三爐殿)이라는 또 하나의 완결체로 구축한 독특한 건축적 방법론을 적용했다고 분석했다.

자장율사의 탁월한 건축적 수법은 중첩과 분절, 연속이라는 정교하고 교묘한 양식을 전체적으로 완벽한 통일성을 이루게 하고 있고, 휘어진 축들은 건물들의 입체적 중첩은 물론 공간적 규모까지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건물의 차원과 건물군 차원에서 부분들을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로 엮어나가는 자장율사의 건축론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전체성아래 부분들을 조절해 나갔던 유교건축과는 상반된 양식이라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삼로전 각 영역의 구성에는 교리적 원리가 깃들어 있고, 둘째 이들 각각의 건물군은 단일한 중심통로로 전체화되며 여기에 3개의 남북축이 부축을 형성, 시각적인 변화와 중첩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하로전에서 상로전까지의 크기가 5.4.3의 비율로 엄격한 건축적 기준이 적용돼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자장율사가 사찰건축에 적용했던 '3개의 중심 혹은 3개의 영역' 기본개념에는 계율과 장엄이라는 일관된 사상이 투영돼 있으며, 황룡사의 3개 금당 등에서도 이와 같은 기본개념이 잘 나타나 있음도 부연했다.

한명우 기자

"스미스 '法·神 비교' 종교이해 기여"

보조사상硏 월례발표회서 류제동씨 주장

"불교 열반은 기독교 하나님에 해당"
'염세적 종교' 그릇된 서구인식 비판

불교의 法을 기독교의 하나님과 비교해 고찰한 캔트웰 스미스(美 종교학자, 하버드대 교수)의 연구는 불교를 이해하기보다는 불교인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 신앙인들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키고 각 종교에 대한 보다 균형있고 본질적인 이해를 돕는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류제동씨(서강대 강사)는 보조사상연구회(이사장 현호스님) 제1차 월례발표회에서 '불교의 法과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비교 연구의 가능성 고찰'이란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류씨는 스미스의 연구는 法 자체의 의미를 탐구하기 보다는 붓다를 비롯한 불교인들에게 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추구하는 것이며 法에 대한 불교인들의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규정하고, 불교가 염세적이고 이지적인 종교라는 서구의 그릇된 인식을 설득력있게 반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피상적인 외면적 고찰에 그치지 않고 붓다의 내면적 삶에 들어간다면 법과 신을 대비함에 있어 불교에서의 무신론은 재해석되어야 하며 붓다를 비롯한 불교인들이 신앙을 갖고 살아왔다고 긍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미스의 고찰은 믿음체계만이 아니라 그 믿음체계에 대한 신앙인들의 마음을 중시하는 연구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우〉

선암사 연못 '삼인당' 복원

이달 민간문화단체 착수

통일신라의 연못으로 최근들어 원형이 훼손되고 있는 전남 순천시 선암사내 삼인당(三印塘)의 복원작업이 민간문화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순천전통문화보존회(회장 박관수)는 지방기념물 제46호로 지정된 삼인당이 최근 수십년 사이에 석축 내부곡선이 변형되고 바닥에 토사가 쌓이는 등 원형이 훼손됨에 따라 3천3백여만원을 들여 본래 모습대로 복원키로 했다.

순천전통문화보존회는 이 연못이 담고 있는 깊은 뜻을 기리고 복원을 계기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그동안 문화재 전문가들의 철저한 고증을 토대로 삼인당 복원을 위한 설계를 마쳤으며 이달말 전남도로부터 현상변경승인을 받는대로 복원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삼인당은 길이 30m, 너비 9~13.5m의 장타원형 연못가운데 길이 10m, 너비 7.5m의 알모양의 섬이 있는 모양을 하고 있으며 불교의 세가지 근본 교의인 三法印을 상징하고 있다. 통일신라 경문왕2년 도선국사가 절을 창건했다.

선암사 주지 지허스님은 삼인당에 대해 "거북은 천년에 한번, 그것도 남쪽 못이 아니면 알을 낳지 않는다는 당시의 풍수사상이 반영된 작품"이라며 "국태민안이 수천년동안 지속되기를 바라는 선인들의 기원이 깃들여 있다"고 설명했다.

"팔만대장경 재질은 산벚나무"

박상진교수 '자작' 통설 뒤집어…돌배나무도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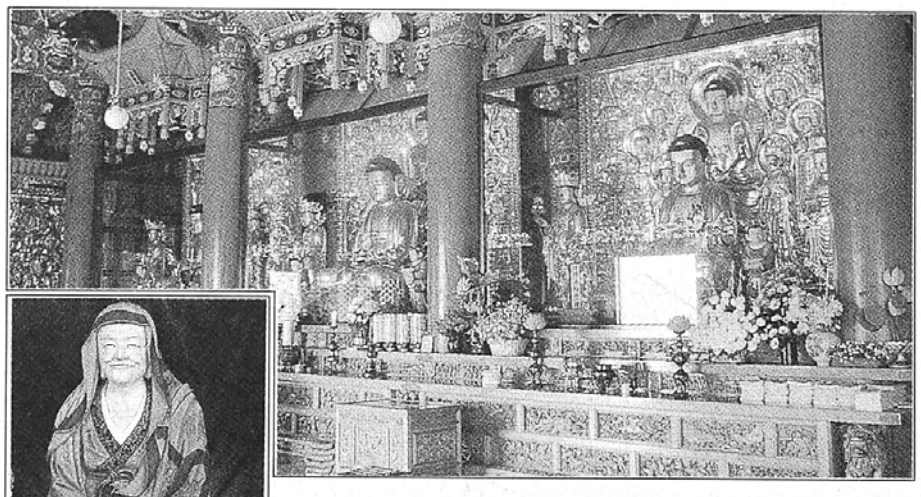
고려대장경 경판제작에 사용된 나무는 지금까지 자작나무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산벚나무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이 밝혀졌다.

박상진교수(경북대 임산공학)는 지난달 23일 열린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회장 이태녕) 학술발표회에서 고려대장경판의 제작수종은 산벚나무류(74%)와 돌배나무류(16%)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기타 자작나무, 박달나무, 후박나무, 단풍나무 등이 1~3%의 비율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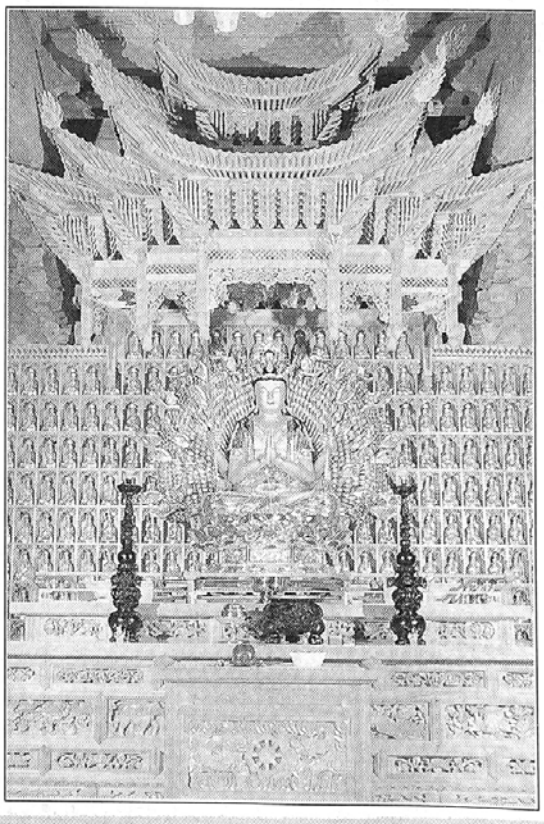
경판의 수종이 지금까지 자작나무로 알려져 온것에 대해 김교수는 본초강목, 해동신서 등 옛 문헌에 자작나무와 산벚나무를 혼용하여 같은 화목(樺木)으로 표기한 내용을 각종 발표문이 자작나무로 단정해 인용하면서 생긴 오류거나, 거제도산(巨濟島産) 나무가 남부 높은 산에 자생하는 去災樹나무와 혼용돼 쓰이다가 자작나무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우〉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 진 형 합장

부처님 열반 무상 보여준 교훈

"뒤늦게 도착한 가섭이 슬피울 때 부처님은 관 밖으로 두발을 보이셨다"

보르헤스의 ⑦ 불교강의

전기속의 佛陀 〈5〉

석존의 죽음은 "열반에 들었다"고 표현된다. 열반은 깨달음의 경지를 일컫는 말로서 죽음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지만, 부처님의 죽음에 한하여 이 말이 사용되고 있는 예가 많다. 훗날 경전에서는 진리와 일체가 되어 시공을 초월한 존재가 된 붓다가 생사의 본질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상(無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석존은 쿠쉬나가라 숲속 두그루의 사라나무 아래에서 안락한 죽음을 맞이하였다. 날이 새자 아난다는 부처님의 입멸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모두가 놀라고 슬퍼했지만 이윽고 향과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석존의 유체에게 바치고 악기를 연주하여 6일동안 성대히 장례식을 치렀다. 먼 곳에서 포교활동을 하던 제자 다하가섭이 뒤늦게 도착해 슬피 울었다. 가섭의 울음이 끊임없는데 이변이 생겼다. 부처님이 관 밖으로 두발을 내보이신 것이다. 그것은 부처님의 열반이 죽음도 소멸도 아님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7일째되는 날 쿠쉬나가라 동문밖 천관사(天冠寺, 마루타 반다나 차이타)에 시신을 안치하였다. 사람들은 향목으로 장작을 만들어 화장할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장작에 불을 붙여 보았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마침내 석존의 심장에서 불이 일어나 삽시간에 장작더미로 번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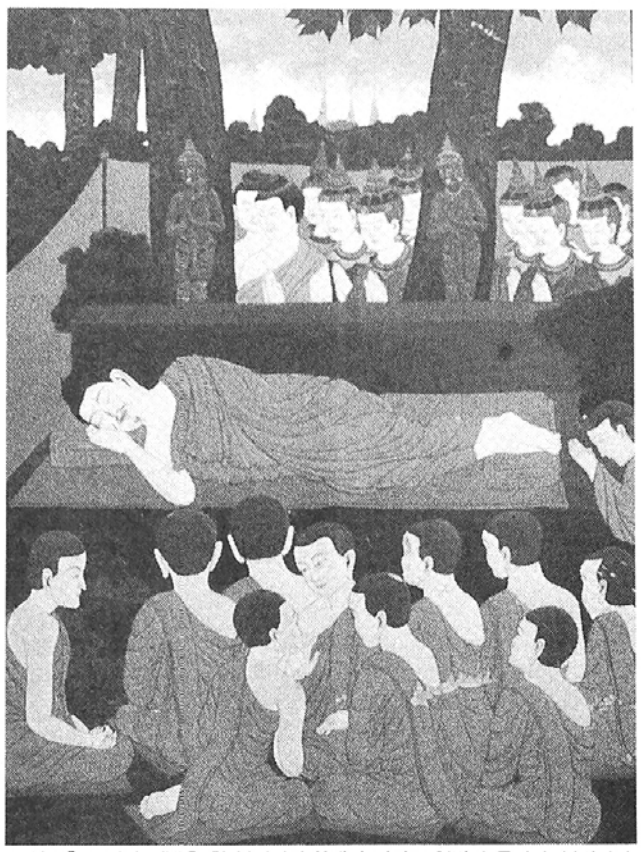
화장 뒤 유골은 수습되어 사리함에 담겨졌다. 한조각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사리함은 꿀로 채워졌다. 유골은 다시 삼등분되었다. 하늘에서 신들이 내려와 한부분을 하늘로 모셔갔다. 또 한부분은 용왕이 모셔다가 지하세계에 보관하였다. 나머지 부분은 8명의 왕들이 나누어서 각각 자기의 왕국에 사리탑을 세웠다. 부처님의 입멸을 지켜보지 못한 많은 참배객들은 가장 가까운 사리탑으로 가서 참배하였다. 이때 건립된 불사리탑 8개 중에서 오늘날 분명히 확인된 것은 2개 뿐이다.

지금까지 부처님 전기에 내려오는 붓다의 생애를 살펴보았다. 파울 도이센(Paul Deussen)은 1887년에 쓴 그의 책에서 말하길 "18~19세기에 서양에 알려진 인도, 티벳 등의 불교설화를 읽고서 그 내용이 너무나 환상적이면서 깊은 신비감에 휩싸였다"고 했다. 그는 서구인들의 사고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를 접했던 것이다. 또한 설화에 등장하는 여러 사상(事象)들의 상징체계가 서구인들의 언어세계와 다른 점에도 놀라움을 표시했다. 예를 들어, 붓다가 6개의 상아가 달린 흰코끼리가 되어 어머니의 옆구리로 들어갔다는 것은 서구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그러나 이런 서술은 인도와 인근지방의 사람들에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6은 신성한 숫자로서, 6개의 상아는 브라만의 육문(六門)이라고 불리는 동, 서, 남, 북, 상, 하의 여섯 공간 즉 우주를 의미한다. 또한 코끼리는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동물로서 순종과 성스러움을 상징한다.

이상 석존의 전설상의 생애를 살펴보기 위해 두권의 책을 참고로 했다. 한권은 윈터니쯔(Winternitz)가 '붓다의 생애에 관한 세세한 이야기'라고 번역한 〈불전(佛傳, Lalitavistara)〉인데 이 책은 뒤에 대승불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시 인용될 것이다. 이 책은 20세기 초에 서구어로 번역되었다.

또 다른 한권은 기원 후 2세기경 북인도의 바라문 출신인 마명(馬鳴, Asvaghosha)이 지은 〈붓다차리타(佛所行讚, Buddhacarita)〉이다. 이 책은 석존의 일생을 찬술(讚述)한 감동적인 서사시로서 원래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되었고 후에 중국어와 티벳어로 번역되었다. 쿠산 왕조 때의 이 불교시인은 부처님의 전기를 아름다운 음율에 실어 노래했다. 그 내용은 세속적 행복에 대한 태자 싯다르타의 무상감(無常感)과 고뇌, 대각(大覺)의 환희, 교화사업, 제자 사리불(舍利佛)과 목련과 대가섭(大迦葉) 등의 출가인연, 입적과 사리탑의 건립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서사시는 당시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주 낭송되어 대중사이에 불교신앙이 널리 퍼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책은 1894년 영어로 번역되었다.

마명의 또 다른 서사시로는 아난타(阿難陀)가 아름다운 아내 순다리(Sundari)에게서 애집(愛執)을 버리고 성자의 경계에 들어 대승불교적 사도로 승화되기 까지의 경위를 유려한 미문체로 묘사한 〈순다리와 난타의 시(Sundarananda-Kavya)〉가 있다.



◇ 성도후 45년간 전법을 한 부처님이 80세의 나이로 열반에 들었다. 부처님의 열반은 단순한 죽음이 아닌 무상의 도리를 일깨운 교훈이기도 했다. 사진은 부처님 입멸을 슬퍼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묘사한 조계사 벽화.

◇ 부처님의 죽음은 육체적인 소멸의 의미보다 생과사의 무상함을 일깨운 것이란 의미에서 열반이라 부른다. 사진은 조계사 대웅전 벽화의 열반상.

화장뒤 유골을 삼등분하여
神들은 하늘로 모셔가고
용왕은 지하세계로
여덟 왕들은 왕국에 사리탑을 세웠다

편역 : 김 홍 근
〈외대강사 · 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김 영 무 〈작가〉



"좋은 작품쓰기 최선의 수행이죠"

'작가로서 계율지키고 있나' 자문하는 생활

이렇게도 말 할 수 있으리라.

'자연인은 끊임 없는 선택의 결단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아리에서 서울역으로 나가려 할때 잠시만 생각해봐도 사람들은 버스, 택시, 지하철, 자가용, 오토바이 등 대여섯가지의 수단과 방법 중에서 어느 한가지를 택해야 하고, 한끼니의 점심을 먹을 때도 한식, 분식, 일식, 양식에다 중국요리 중에서 한가지를 택해야 할뿐만 아니라 한식 중에서도 백반, 김치찌게, 된장찌게, 산나물 밥 또는 불고기 백반 등 수십가지 매뉴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심지어는 한 켤레의 양말을 구입하는데에도 색상이나 디자인에서부터 가격문제까지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다시 보면 매사를 두고 그처럼 까다로운 선택의 고민을 해가며 사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자신이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부모형제나 국적 또는 어느 시대가 숙명적(?)으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자기 인생을 책임 질 나이가 되면서부터 본인이 의식하던 의식 못하던 자기 삶을 위한 일종의 계율을 갖게 되고 점차 그 계율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사람의 작가로 수십년 살아온 나 역시 숙명적인 환경에다 나름대로 작가적인 삶을 위한 계율을 지키며 살아온 셈이다. 불교라는 종교에 대한 선택 또한 과거세의 무수한 인연에 의한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최선의 수행을 최선의 작품쓰기로 환치시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 나는 사람이 직업으로 택할 수 있는 수십만가지 일들중에서 글쓰는 일을 직업적으로 택했던 사람이고, 마치 수도승이 사리를 남기듯 좋은 작품을 남기려고 딴엔 치열한 의식으로 살아왔던 사람이다. 그런데 바꾸어 말하자면 어느 한가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나머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도 되는데 실인즉 선택도 어렵지만 포기를 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일 수는 없는 것이다. 속세에 머물면서 세속적인 많은 유혹들을 물리치며 살기가 어려웠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내게는 이제 선택의 번거로움은 끝났다는 말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인간에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크고 작은 선택의 고뇌는 따라 다닌다.

'나는 과연 무슨 작품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나는 왜 이런 글을 써야만 하는 것인가?' 예를 들자면 지난해 연말경에 나는 '윤회'라는 장편소설을 펴낸 바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본 많은 친구들이 내게 "언제 이런 소설을 썼는냐? 어째서 이런 소재를 택해 이런 주제를 묘사했느냐?"고 놀라움을 표현해 주었고 한 후배작가는 그 작품의 TV드라마 각색권을 기어코 자기에게 넘겨 달라며 매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그 친구들에게 일일이 대답을 해 줄 수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엄격히 따지자면 나는 '윤회'라는 그 한 작품뿐 아니라 불교를 소재로 했던 많은 희곡들을 쓰기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해도 충분한 대답이 되는데 내 입으로 감히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가.

부처가 되고 싶어 한다고 모두 부처가 될 수는 없고, 뽕잎을 먹는 벌레면 모두 비단실로 고치집을 짓는다는 말도 할 수 없듯이 사람은 결코 자기 초상화를 스스로는 완성 할 수 가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작가라 하더라도 이런 작품을 쓰겠다 한다고 해서 꼭 그런 작품이 빚어지지도 않는 법이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뽕잎을 먹으며 살아온 누에가 어느 날엔가는 저절로 비단실을 토해 낼 수가 있듯이 작가 역시 작가로서의 계율을 엄격히 지키며 살다보면 어느날엔가 마음먹고 있었던 작품이 빚어질 뿐이란 게 평소의 내 소신이었다.

한방울의 빗물이 바닷물이 되기 위해서는 냇물이 되었다가 강물이 되어 멀고도 긴 여행을 해야 하듯이….

물론 작가들은 수시로 또 반문도 해보기 마련이다.

'나는 지금 나의 계율을 잘 지키고 있느냐?' 그런 반문 앞에서의 대답은 언제나 간단하다. 자기 자신의 작품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수행여정을 잘 걸어 온 셈이 아닌가?

다행이라 말할까? 나는 아직 내 작품 앞에서 수치심에 몸을 떨어 본 적도 없고, 자괴감에 빠져 본적도 없다. 제 삼자들에게서도 좋은 인정을 받아 왔고…. 그런 것들이 또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려운 역경 속에서 佛事(불사)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스님께 알려드리는 귀중한 정보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 62cm × (세로) 160cm

◎ 佛塔다라니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주는 강력한 氣가 발산됨이 입증된 본회의 佛塔다라니 2종류를 사용함으로서 인체(人體)와 영계(靈界)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하여, 길흉화복을 판단할 수 있고, 조상영을 관단하여 運을 좋게 변화시키고 또한 佛塔다라니로서 영(靈)을 천도시키는 방법 등이 수록된 귀중한 정보책자를 일차로 금년에 1,000군데 사암에 보내드려 큰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리오니 주소, 사찰명, 전화번호만 알려주시기 바라오며, 이 책자는 현재 사암을 운영하시는 스님께만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이 方法은……

① 신도 개개인의 현재의 運과 그 신도의 남편, 부인, 자식, 부모, 형제들의 운까지도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해줄 수 있고 이 방법으로 스님께서 신도들의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바꾸어줄 수 있으며

② 영가의 빙의상태, 관념파장의 방해를 확인하여, 영가의 빙의 및 관념파장을 천도, 차단하는 원리를 보여줄 수 있으며

③ 신도들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관단하여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방해줄 수 있으며

④ 산소에 탈이 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산소를 잘못 써서 조상령이 천도되지 못하고, 그래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어느 산소이든 그 산소 자리를 좋은 地氣가 넘치도록 하여 후손들이 발복하도록 해줄 수 있고

⑤ 집터나, 상가, 사무실 등에 좋은 운기가 계속적으로 뻗치도록 하여 만사형통하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님은 다년간 경험을 해본결과로, 그 신비성이 확실함을 알게 되어, 이번 기회에 책자를 만들어 보내드리고, 사찰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역경을 겪고 있는 스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佛子들 대부분은 자신의 현재의 운세와 운명을 몸시 알고자 하며 또한 나름대로 간절한 염원과 소원들이 있어 이것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방편을 스님들께서 제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불탑다라니가 스님의 기도법력과 합해져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것입니다.

■ 상담문의 : 대한불교 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 :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전화:(051) 864-3740

■ 책자신청 : ①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0335) 34-9490, 39-1906, 야간(0342) 706-3060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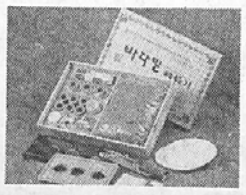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낳고자 별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쑥뜸을 먼저 떠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쑥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반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쑥뜸기 내용
1) 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셋트화(강화약쑥 약 2개월분 포함)
2) 쑥뜸 도구 일체 반영구적
3) 쑥뜸기 한셋트로 전가족이 사용
4) 노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는 제일입니다.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쑥뜸기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1) 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쑥만을 엄선하여 쑥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한번에 영묘한 쑥의 약효를 몸속으로 많이 침투시키기 위해 뜸쑥기둥을 크게 만들어 뜨도록 되어있다.(재래식 뜸쑥의 50배 이상되는 크기)
2) 한약재와 곡물과 경면주사등으로 만든 쑥뜸 링받침과 이것을 받칠수 있는 또하나의 받침대 2종류를 사용하여, 뜨거움을 본인이 조절함으로서 흉터가 생기지 않고 살갗에 직접뜨는 쑥뜸보다 질병치료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3) 쑥뜸은 쑥을 태울때 생기는 쑥엑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쑥뜸에서는 쑥엑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땀구멍)속으로 흡수시켜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거기에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건강요법

◎ 바라밀 쑥뜸기 구입시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금강경 신탑다라니 1매씩을 같이 드립니다.
◎ 전국 시, 군 단위로 바라밀 쑥뜸기를 보급할 분을 찾습니다.

구입문의 및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연구회
■ 부산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스님)
• 부설 : 불교바라밀건강연구회 • 전화 : (051) 864-3740
■ 서울·경기 :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 전화 : (0335)34-9490, 39-1906 / 야간 : (0342)706-3060

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49〉

白侍郎六讚偈幷序
(백시랑육찬게병서) ③

發願
발원 사홍서원을 갖춰 발원함

煩惱願去 涅槃願生 十地願登 四生願度
번뇌원거 열반원주 십지원등 사생원도

번뇌는 물러가기를 바라오며(번뇌무진 서원단), 부처의 열반에 머물기 원하며, 보살의 십지에 오르기 원하며(불도무상 서원성), 사생제도를 원하오며(중생무변 서원도)

佛出世時 願我得親 最善勸請 請轉法輪
불출세시 원아득친 최선권청 청전법륜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몸을 나투실 때 내가 친히 뵙고 최초로 권청하여 법륜 굴리시기를 청하고자 원하오며(법문무량서원학)

佛滅度時 願我得值 最後供養 受菩提記
불멸도시 원아득치 최후공양 수보살기

부처님께서 멸도에 드실때 내가 거기에 이르러 최후의 공양을 올리고 보살의 수기를 원하나이다.(부처님 열반시 일체천인의 공양을 마다하시고 오직 순타의 공양 받으시며 최후공양의 복이 일체의 복보다 수승하다 하심)

仁宗皇帝讚三寶文
(인종황제찬삼보문)

讚佛
찬불 부처님을 찬탄함

天上天下 金僊世尊 一心十號 四智三身
천상천하 금선세존 일심십호 사지삼신

천상천하에 위없는 금선세존이시어 한마음의 갖가지 명호로 나투시고 무루·불이의 자재함을 보이시고 법신·보신·화신으로 감응하사

度脫五陰 超踰六塵 生靈歸敬 所謂能仁
도탈오음 초유육진 생령귀경 소위능인

오온의 생사바다를 건너고 육경의 티끌을 넘어서 구경 열반에 이르시니 일체중생이 귀의 공경하매 이른바 사생의 자부이십니다.

讚法
찬법 법을 찬탄함

萬法唯心 心須至靜 由彼一心 能生萬行
만법유심 심수지정 유피일심 능생만행

만법은 오직 마음의 나툼이라 마음은 모름지기 지극히 고요할지니 저 한마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만가지 행이 나도다

背覺爲妄 悟眞則聖 稽首法門 昭然佛性
배각위망 오진즉성 계수법문 소연불성

깨우침을 등지면 망념이되고 진여자성을 깨달은 즉 바로 부처라 법문에 머리조아려 귀의하니 불성은 절로 밝고 뚜렷하노라

讚僧
찬승 스님을 찬탄함

六度無解 四悉弘常 爲人眼目 助佛津梁
육도무해 사은비상 위인안목 조불진량

육바라밀 수행에 게으르지 않고 네가지 은혜에 떳떳치 않은지라(늘 겸손한 지라) 중생의 안목이 되어 부처님의 진량(중생제도:불법은 고해를 건너는 나루요 교량)을 돕는도다

體閑一雨 心薰衆香 道無不在 此土他方
체윤일우 심훈중향 도무부재 차토타방

몸은 부처님의 법에 젖고 마음은 오분향에 쏘이는지라(계·정·혜로써 해탈경계를 향하니) 도가 있지 않음이 없음이여 이 세상 저 세상이로다(이 세상이든 다른 세상이든 도는 어디에고 있도다)

明敎嵩禪師尊僧篇
(명교숭선사존승편) ①

敎必尊僧 何謂也 僧也者 以佛爲師
교필존승 하위야 승야자 이불 위사
以如來 爲家
이여래 위가

불교가 반드시 스님을 존숭케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스님이란 불로써 성씨를 삼고 여래로써 집을 삼으며

以法爲身 以慧爲命 以禪悅 爲食故
이법위신 이혜위명 이선열 위식고
不恃俗氏 不營世家
불시속씨 불영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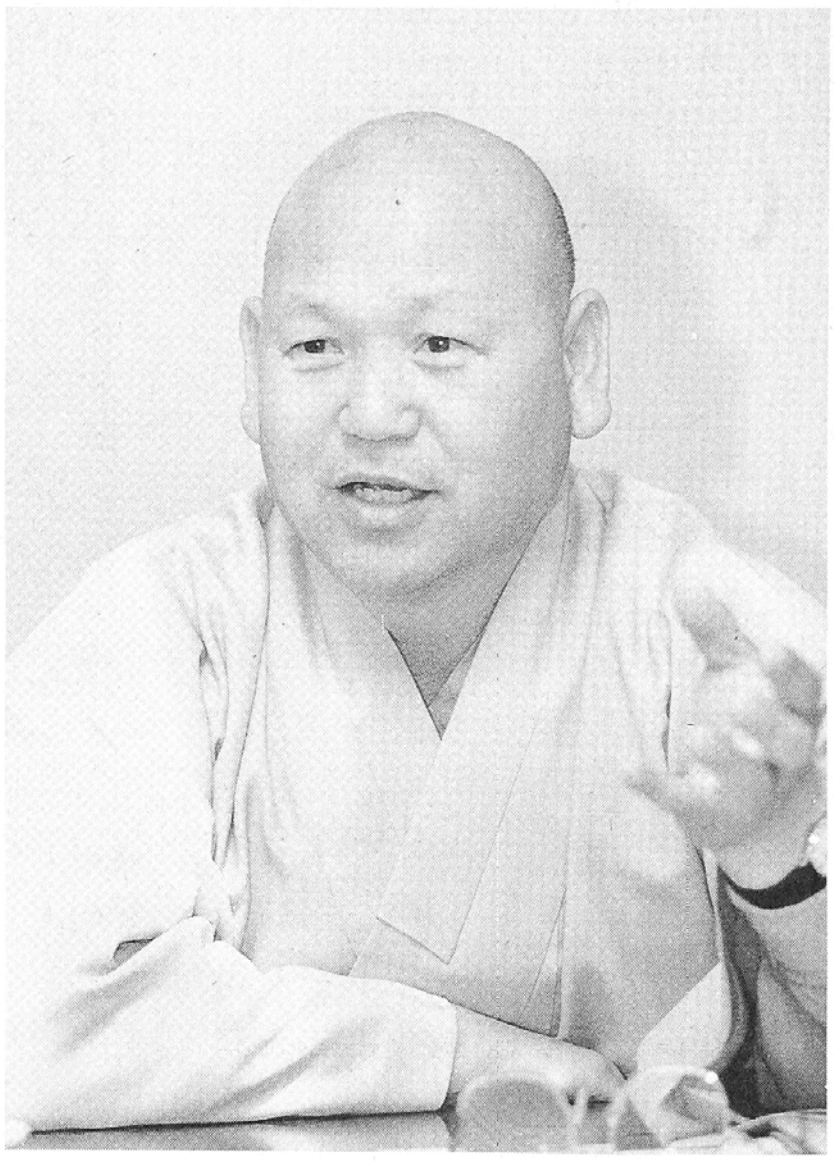
법으로써 몸을 삼고 지혜(반야지)로써 목숨을 삼으며 선정삼매의 즐거움으로써 밥을 삼는 고로 속세의 성씨(가문)에 의지하지않고 세속의 가정을 이루거나 꾸려가지 않는다. 龍眼

"만법 마음나툼이니 지극히 고요하면 한 마음으로 능히 만가지 행이 나도다"

★ 지상법석

'오늘불행'을 행복으로

월탄스님 〈용화사 주지〉



부처님은 마음으로 사물실상 통찰하고 자비·지혜 실천으로 참된 삶을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부처와 중생은 누구입니까?

마음이 밝으면 부처라하고, 마음이 어두우면 중생이라 하므로 일찌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모두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를테면 부처님도 마음에서 태어나고 중생 또한 마음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일생동안 팔만사천 종류의 많은 법문을 하셨지만, 그 많은 법문들의 진정한 내용은 결국 한 뜻으로 통하는 것이니, 부처님적 자기로 살아가는 마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 말미암아 사물과 생명들에 대한 실상을 냉철하게 통찰하여 깨닫도록 하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참된 삶을 살도록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마음은 모든 법에 근본이 되고 모든 것에 앞선다.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면 행동 또한 악해지는 것이다. 이로 인한 죄와 고통이 악행을 따르는 것은 마치 수레바퀴에 자국이 따르는 듯하고, 마음으로 착한 생각을 하면 행동 또한 착해지는 것이다. 이로 인한 복과 즐거움이 선행을 따르는 것은 마치 물체에 그림자가 따르듯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마음 하나를 삶과 수행의 근본으로 삼고, 마침내 우리도 부처님적 자기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 실천적인 세 단계 삶의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력

- 1937년 生
- 55년 화엄사에서 득도
- 68년 동국대 불교과 졸업 73년 동대학원 석사
- 조계종 4, 5, 6, 8, 9, 10대 중앙종회 의원 8대 종회의장 역임.
- 조계사, 전등사, 법주사 주지역임
- 현 동국대승가 총동문회 회장, 불교발전 연구원 이사장

첫째 사유(思惟)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사유하는 삶이란 이미 세속적인 사량분별을 철저히 떠났으며, 오직 순수한 자기자신의 내면세계를 근원적으로 관조하여 비본질적인 자아로부터 본질적인 자아로 나아가는 정신적인 삶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의 진정한 가치는 사유하는 정신적 계기를 가지는데 있는 것이고, 사유하는 삶의 계기를 통해 대자유의 인간으로서 첫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저마다 무한히 열려있는 세계속에 존재하면서 보다 높고, 보다 확고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바, 쉼없이 자기 앞에 전개되어오는 새로운 사상들을 통해 자기를 정화하고, 낡은 사상이나 관습을 버리면서 언제나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뚜렷한 의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즉 자기자아에 대한 무자각하고 무반성한 태도로 살아가는 삶도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결국 무의미하게 끝맺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삶의 개체적 주인공입니다. 사유적인 삶도, 무의미한 삶도 바로 그 주인공은 자기자신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는 말씀을 하신 뜻도 삶의 주인공은 바로 자기자신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한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육체적 자아와 정신적 자아가 합해져서 하나의 인격자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육체적 자아는 자기 자신을 보거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로만 살고, 정신적인 사유가 없는 동물은 죽을 때까지 자아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진정한 참 자아는 육체적 자아가 아니라 정신을 지닌 인격자아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을 지닌 인격자아를 이름하여 부처님적 자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적 자아인 인격자아가 잠시라도 소홀해지면 육체적 자아는 본능으로 대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언제나 눈에 속고, 코에 속고, 입에 속고, 촉각에 속고있다. 눈은 보기는 하되 듣지 못한다. 귀는 듣기는 하되 보지 못한다. 코는 냄새를 맡되 소리를 듣지 못한다. 입은 맛을 느끼되 냄새를 식별하지 못한다. 촉각은 춥고, 더움을 식별하되 맛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다섯가지 감각기관은 다 마음속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유하는 삶을 통해서 불완전한 인간자아의 근본적인 결함, 즉 근본무명을 깨달아야 하고, 부처님적 자아로 살아가는 사유하는 삶을 배워 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갖추었다"하였으니, 이제부터 사유하는 삶을 통해 부처님과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언하자면 땅으로 넘어진 자는 땅을 딛고 일어나야 하듯이 마음이 어리석어 어두운 자는 마음으로 지혜를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전통의식교육대학신(편)입생모집요강

1989년 설립되어 불교 전통의식 교육자를 양성하고 있는 교육원을 대학교육 체제로 갖추고 종합적인 불교 전통의식을 배움으로서 불교의 의식인 범패와 승무, 요잡 및 작법은 전통의 맥을 이어갈것이다.

앞으로 불교계의 발전과 조상이 남기신 훌륭한 유산을 우리 후손에게 보다 잘 전승해 주었을때 그 종교적 문화적 가치성은 더욱 크다고 볼것이다. 이에 본 교육대학에서는 사라져가는 범패의 가치성을 보다 높이고 계승 발전 시키고자 불교 전통 의식 교육에 뜻이 있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입학을 바라고 있습니다.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合掌

1.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 고
초급 교육과정	예경의식및 기초교리	20명	6개월
전통 교육과정	상주권공및 불교의식론	20명	1년제
연 구 과 정	요잡,작법,안차비 등	10명	1년제

2. 응시자격(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수계 득도한 자
2)오계를 수계한 자
3)각 종단의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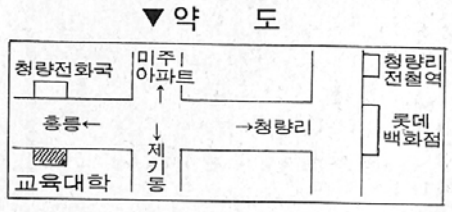
3. 전형방법 : 서류전형(면접)

4.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5. 제출서류 : 1)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수계증명서 사본
3)추천서
4)반명함판 사진 4매
5)전형료 : 30,000원

※ 교육시간 : 주5회(월~금)
접수일자 : 1996년 2월 26일~3월 15일

▼약 도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2동 604번지
☎(02) 967-7093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지상법석

전환할 책임자는 '자신'

"마음이 어리석어 어두운 자는 마음으로 지혜를 밝혀야 합니다"

자아에 대한 무자각·무반성한 삶은 죽은 목숨
'내것' 집착 버릴때 대립소멸 '공존의 자유' 누려

둘째 의지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의지적인 삶이란 일상성의 노예가 되어 그저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자연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자연과 비본질적인 것들의 가리움을 벗겨내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적극적인 삶입니다. 즉 사람은 자기자신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상적이고, 원력적이고, 선행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의지가 없다는 말은 곧 이상도 없고, 희망도 없으며, 내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내일이 없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내일이 없는 삶은 곧 죽음이요, 절망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으므로해서 그냥 산다는 사실에 만족할 수 없으며, 어떻게 사느냐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미래를 지향하는 힘이 됩니다. 특히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에서 인간의 주체를 의지라고 하였듯이, 인간 본래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참되게 자유로운 의지를 실현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반조해 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자연인인 동시에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은 그 어떤 영향도 받지아니하며 다만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인간은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모든 행위를 짓게되는 바 이는 인간의 의지로부터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의지적 작용에 따라 삶의 결실이 이루어지므로 예컨데 오늘의 자기현실이 불행하다면 그것은 이미 자기가 과거에 뿌린 의지적 작용의 결과이므로 그 책임은 바로 자기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불행한 현실을 내일의 행복으로 전환시킬 책임도 바로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처님적 자기로 살아가는 의지를 갖도록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초월적인 삶을 삽시다.

초월적인 삶이란 상대적인 관계가 아닌 현실과 이상의 균형잡힌 조화속에서 살아가는 초인적인 삶입니다. 부처님은 〈원각경〉에서 "선남자야 온갖 중생이 본래부터 지금까지 갖가지로 미혹됨은 길을 잃은 사람이 사방을 혼돈하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사대가 망령되이 운집하여 마치 육신의 모습인 줄 알고, 육진(六塵)의 그림자를 심상(心象)인 줄 착각하고 있다. 비유컨데 병든 눈으로 허공중의 꽃과 달을 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고, 또 세간에는 두 가지 의지하는 바가 있으니 하나는 있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중에 어떤 것을 붙잡기 때문에 부딪쳐지고, 붙잡아 부딪치기 때문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붙잡음이 없으면 마음이 경계에 매이더라도 취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으며 헤아리지 않아서 내게 괴로움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두고, 괴로움이 멸하면 멸하는 대로 두어 그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미혹하지 않으며 남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순리에 따르는 것이니 무슨 까닭인가. 세간의 일체의 생을 바르게 알고 보면 세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을 것이요, 세간의 일체의 멸함을 참다이 알고 보면 "세간이 있습니다고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 치우침을 떠나 중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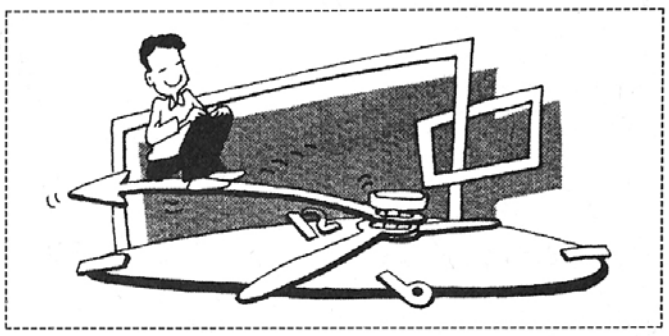
> 이 몸은 바다와 같아 오욕 받아들인다
> 이 몸은 험한 길 같아 선업을 쉽게 잃는다
> 이 몸은 시들은 꽃과 같아 이내 늙는다
> 이 몸은 폐궁과 같아 죽음이 사는 집이다

그리고 무아설에 의하면 무엇이든지 '나의 것', '내 소유의' 라고 생각하는 것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수행자는 먼저 나의 것이란 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뭐든지 내 것이라고 집착해서 동요하고 있는 사람을 봅시다. 그들의 모습은 바짝 말라버려 물이 얕은 강에 사는 물고기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것, 나에 속한다는 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초기 경전의 여기저기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수행을 완성한 사람은 탐욕을 떠나, 나의 것이라는 집착이 없으며, 희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진실한 수행자는 나의 것이라는 집착함이 없이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수행자는 무엇이든지 내 것으로 합니다. 내 것으로 본다는 것이 없으며, 또한 나의 것으로 보았던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한 수행자는 집착하는 것 없고 항상 마음을 억제하여 생각하며, 내것이라고 잡히는 것은 내버리고, 세상 속을 걸어다닌다는 것입니다.

수행자에 대해서는 세간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것이라고 그릇된 집착을 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활하고 살아가는 상황은 곧 현실입니다. 현실이란 현재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구체적 상황을 뜻하는 바, 그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일체가 나와 너라는 상대적인 관계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를 말하는 것으로써, 인간의 사회적 삶이란 상대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나와 너,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이고, 나는 너에게 어떤 관계일까. 나와 너라는 주객관계는 영원히 분리되고 대립하는 관계입니까. 예컨데 일찍 서양의 합리주의는 매사를 이원론으로 대립시켜 왔으며, 이에 동양은 본질적으로 일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즉 주객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은 주관의 연장이며 주관을 낳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비유컨데 너는 나 때문에 존재할 수 있고 나는 너를 존재케 하는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너와 내가 따로 서 있는 듯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뿌리에서 생겨난 두 가지로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밝힌 무아라는 뜻도 모든 것이 독립되어 존재하지 못하고 관계성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며 나 아닌 것과 관계를 맺지 않고 홀로 자기라는 실체를 지닌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간의 존재는 상호의존성에 있으므로 너와 나는 대립갈등의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느 주장을 수용하든지 결론은 나와 상대적인 모든 것과 공존하는 것입니다. 유독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삶은 대개가 '나'라는 경계선과 주관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사실이 왜곡되고 굴절되어 속박되거나 예속되는 것입니다. 어떤 주위적인 환경이나 조건, 나아가 일체현상에 대하여 깊은 이해로서 그 어떤 것에도 그릇된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존재의 고정관념으로부터 일체의 괴로움이 생기고, 상대를 넘어서는 그곳에 영원의 세계가 활현(活現)된다고 하였듯이 상대적인 관계가 아닌 현실과 이상의 균형잡힌 조화속에서 순리에 적응할 줄 아는 부처님적 삶을 통해서 우리는 초월적인 삶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생은 난득이라고 했듯이 부처님께서 "이 몸은 바다와 같아 오욕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이 몸은 모래성과 같아 금시에 닳아 없어집니다. 이 몸은 험한 길과 같아 선법을 항상 쉽게 잃습니다. 이 몸은 깨진 그릇과 같아 항상 샙니다. 이 몸은 마늘과 같아 몸과 마음을 독으로 태웁니다. 이 몸은 시들은 꽃과 같아 이내 늙습니다. 이 몸은 집과 같아 사백사병이 들끓는 보금자리입니다. 이 몸은 빈 주먹과 같아 어린애를 속입니다. 이 몸은 폐궁(閉宮)과 같아 죽음이 사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실착(實着)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으며, 세속의 습관에 부딪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며,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것이 최상의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처님은 본래부터 중생의 마음속에 존재하듯이 이제부터 우리는 부처님적 자기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정진합시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60

양 형 진

인타라망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4가지 상호작용의 지배를 받는다. 강핵력과 약핵력, 전자기력과 중력이다. 그 중에 중력은 가장 약한 힘이지만 먼 곳까지 그 힘이 미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성이나 성운의 형성은 이 힘에 의하여 진행된다.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는 다른 모든 물체와 이 중력에 의하여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다른 것과 고립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이 서로 연관을 맺고 있다. 이 때의 상호 연관을 공간적인 것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시공간이 뒤얽힌 것이다. 가령 5광년 떨어진 별과의 상호작용을 생각한다면, 이는 지금의 지구와 5년전의 그 별과의 연관이다. 또 그 별의 입장에서 본다면 5년전의 지구와 지금 그 별과의 상호작용이다. 우리의 우주는 이처럼 복잡하게 서로 서로를 연관지으며 존재한다. 이는 우리의 세계 어디를 보아도 그 자체 만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물체 중력에 의해 상호작용하듯
우주존재 끝없는 삼세 연기그물로 연관

이러한 상호 연관성은 물체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시공간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물이 든 양동이를 회전시키면 물의 표면이 오목하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뉴턴은 이러한 물리 현상이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원심력에 의하여 생긴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관성이란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의 기초 위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은 절대 공간에 대한 물의 회전운동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 뉴턴의 설명이다. 그러나 뉴턴과 생각을 달리하는 마흐는 물이 오목하게 들어가는 원인은 물이 전우주에 대하여 회전이라는 상대 운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마흐에 의한다면 양동이의 물을 그대로 두고 전우주를 양동이의 회전 속도에 맞춰 돌린다면 물의 표면이 휘어져야 한다. 또한 만약에 우주를 구성하는 다른 모든 물체를 제거한다면 양동이를 아무리 돌린다고 하여도 물의 표면은 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물리적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주장이 맞는지를 실험적으로 확증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마흐의 이러한 주장은 아인슈타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론에 의하면 절대적 시공간의 개념은 성립되지 않는다. 서로 엄격하게 구분되는 절대시간과 절대공간의 설정은 고전물리학에서의 동력학 기술의 출발점이었지만,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절대적 차별성이 특수 상대론에 의하여 무너지고 이 시공간마저 우주 전체의 물질 분포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일반상대론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도 사대의 인연이 화합하여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한다. 여기서 인연이라는 것은 단지 지금 현재의 시각에 성립하는 공간적인 상호연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상호연관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아뢰야식을 논의하면서 생각해 보았듯이 우리 몸에는 무량겁을 진행하여 온 생명계의 전역사가 녹아 들어 있다.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마음 속에서 세계를 인식하고 구성하게 되므로 (能變性), 나에게 나타난 세계는 무량겁의 과거와 상호연관된다. 또한 그 모든 과거와 현재의 모든 경험은 무한한 미래와 연관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제행은 단지 무상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무단하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항성과 같이 큰 물체든 티끌보다 작은 물체든, 생명체든 무생명체든 상관없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끝없는 연기의 그물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법계의 실상을 중중무진법계연기라고 이르지만, 인타라망의 비유로 설명하기도 한다. 제석천궁에는 인타라망이라 불리우는 그물이 걸려있는 데, 하나 하나의 그물코마다 보배 구슬이 달려있다. 그 구슬의 각각은 서로 서로 빛을 비추어 각각의 구슬에는 다른 모든 구슬의 영상이 첩첩이 나타나 서로의 상이 중중무진하게 되어 있다 한다. 이는 우리가 보는 개개의 존재가 서로 차별적이고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존재는 하나 하나가 절대적이면서도 서로 상즉상입하고 원융무애하여 일체가 일(一)에 포섭되고 일이 곧 일체가 되는 법계의 진상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一卽一切多卽一)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 사 • 대표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광고국 02-737-0692 •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 전화 051-634-5114 •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 전화 062-375-9986 •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 전화 053-427-8008 • 팩스 053-425-8356

경기지사 • 전화 032-613-4027 • 팩스 032-665-0965

목포보급소 • 전화 0631-281-2534

공주보급소 • 전화 0416-55-0020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 스님의 역작!

출가자에게는 수행의 지침! 재가자에게는 삶의 지표!

보살사상 경구선집



보살사상은 대승불교의 핵심사상이다. 한국불교는 대승불교가 그 근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살사상이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못한 것은 한국불교의 열악한 현실의 반영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보살의 진정한 모습과 그 정신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속의 모든 불자들이 견지하고 지향해야 할 점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太空月珠 編譯/크라운판 양장/380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大韓國人 安重根(義士)

옥중 安의사의 간수였던 일본 헌병이 존경과 참회로 바라본 인간 안중근.

약사암의 一如스님이 번역하여 국내 처음 공개되는 자료들! 놀라운 장면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네가 공소를 한다면 그것은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되고 만다. 네가 나라를 위하여 이에 이르렀은 즉 죽는 것이 영광이나 모자가 이 세상에서는 다시 상봉치 못하겠으니 그 심정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으리……." (安義士 어머니가 상고를 포기하고 죽음을 택하라는 충고)

—본문 중에서—

연락처 : (053) 852-0803, 藥師庵 一如

총판 : 책방 여시아문 (02) 737-0695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기다림 ····

긴 겨울의 혹한 속에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꿋꿋하게 자신을 지키며 봄이면 물 오른 용트림으로 새롭게 피어 오릅니다.

눈보라와 비바람의 아린 고통을 이겨야만 했고 아픔의 계절을 가슴 깊이 의미해 보면서 성숙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봄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서며 가만히 귓속말로 속삭입니다.

겨울내 잠들었던 개구리도 기지개 켜는 소리 힘차게 들리고, 산등성이에 아지랑이 피어 오르고 핑크빛 진달래 꽃망울 터뜨리는 소리 싱그럽기만 합니다.

멀리 산사에서 들려오는 독경소리와 은은하게 울리는 목탁소리에 손 모아 합장하며 세속에 더럽혀진 마음을 비워 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우신 미소는 우리의 마음 밝혀 주시고 동자승의 헐은 미소 해맑기도 하여라.

멀어져 가는 동자승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옷자락 끝 그림자 위에 개울물 여울져 흐르는 소리, 가슴에 외로움 되어 떠오르는 그리움은 애틋한 사랑으로 승화되어 피어 오릅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心)

농협온라인구좌 : 112-01-021221 예금주 이 영 숙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고은 불교대하소설

수미산 67

페허 순례

세사람은 이 세상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뜻은 어떤 음식을 먹다가 다른 음식을 먹는 것 같은 낯선 일이기 때문에 지난날의 삶도 반추해 볼 겨를이 없고 새로운 삶에 전념할 수도 없는 얼떨떨한 것이었다.

건저 내려온 합두와 만화가 바야흐로 그들만의 그윽한 만남을 이루는 판에 난데 없는 불이가 나타났으니 그 세사람 사이의 첫 반가움과는 달리 야릇한 관계가 생기는 것이었다.

불이가 나타났을 때 합두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라고 말한 일을 불이는 여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불이는 첫눈에 그녀가 바로 전생(前生)에서의 아귀계를 함께 살아온 처지였고 그 이전의 전생에서는 동쪽나라의 무육도에서 수행을 통한 연인(戀人) 사이였다는 기억을 그의 제7식(第七識)이 의식의 표면에 바늘 끝처럼 솟아나오는 아픔을 통해서 떠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자못 고즈넉히 그 하염없는 사막의 한 복판에서 맞는 아침 한동안에 따라 그 자신도 고즈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 아침 햇빛발이 그의 절도 있는 기품을 갖춘 불이의 옆얼굴을 마치 금(金)이라도 입힌 것처럼 눈부시게 만들고 있었다. 그 눈부신 얼굴에 그려지고 있는 미소는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것이 미소인지 어떤 슬픔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만화가 두 사람 사이의 짧은 시선교류 사이에 끼어들었다.

"자 빈 속에 모래라도 채워야 할 일입니다."

그러자 불이도 이제까지의 관심을 합두에게 기울이던 것을 그만 두고 만화의 말에 호응하였다.

"정녕 그래야겠습니다.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해골 옆에 누울 일 밖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세사람에게는 이곳에 태어난 사실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었다. 무엇인가 입에 넣을 것이 있어야 살기 시작할 것이 아닌가. 다른 세상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과정은 일단 모태(母胎)에 의한 태생(胎生)으로 되는 포유류의 갓난아기로 태어나거나 난생(卵生)이라면 어미가 품은 알을 깨고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경건한 과정을 생략당한 채 그저 앞뒤가 딱 잘려나간 것 같은 기성(既成)의 사람으로 내려온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로써는 특이한 것이었다.

어떤 준비도 어떤 환경도 고려되지 않은 의외의 일이었다. 과연 세사람은 어느 누구도 미치 이 세상의 천산남로(天山南路)를 지나가는 구도승의 그 모양 이외에는 식량이라던가 여행에 긴요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빈 털털이 일 뿐이었다. 심지어는 물 한모금 남아있는 가죽주머니 하나없는 어이없는 사막의 고아였지만 다행히 세사람으로 서로 의지하게 된 것이다. 비록 만화와 불이가 합두를 두고 야릇한 관계를 시작한 처지라 할지라도 그것은 둘이나 하나보다 나은 것이 아닌가.

발싸부터 누란의 스투파 밑 굳은 점토질의 바닥은 모래로만 이루어진 사막과 똑같이 마치 아궁이의 좋은 불땀에 의해서 솥바닥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뜨거워지고 있었다.

다행히 세사람의 밑창이 두꺼운 신발 때문에 아직 발바닥이 곤경에 처하지 않는 상태였지만 한낮이 되고부터는 어느 겨를에는 슬쩍 익어버릴지도 모른다.

합두는 두사람이었다가 세사람으로 된 처지를 약간 신비스럽게 여기기까지 하였다. 그녀는 우선 두 사람의 남자보다 훨씬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

빈 배를 채워야 한다던가 하는 일은 그녀에게는 백 어울리는 관심거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막에서는 미추가 아무런 차별도 되지 않는 상태와는 달리 순수한 아름다움을 지닌 합두에게는 그들이 서 있는 절터의 스투파에서 멀지 않은 곳의 오아시스를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

"물이 있습니다."

라고 가만히 말하자 만화가 "어디에 물이 있습니까?"라고 황급하게 묻는 것이었다.

"물이 있는 곳을 지나면 한 때거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합두는 알듯 모를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번에는 불이가 심문하듯이 뛰어드는 것이었다.

"그 사람들은 오는 길입니까? 가는 길입니까?"

합두는 마치 두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혼자의 말로 말하고 있었다.

"아 나타 스무마리가 방금 일어났습니다. 모래바람이 매우 강합니다."

만화로서는 이렇게 말하는 합두가 이런 극한과도 같은 땅에서 실성(失性)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것이 은근히 걱정으로 되고 있었다.

하지만 불이가 앞장섰다. "그럼 물있는 쪽으로 가십시다"라는 말을 합두에게 던지며.

불이 합두 그리고 만화의 순서로 그들은 동쪽으로 향하였다.

그들은 이미 사막에의 적응력이 생겼는지 피나 갈증에 시달리면서도 그것을 참고 가는 동안 어느 사구(沙丘) 아래에서 말라죽은 작은 숲을 이룬 나무들을 모래 속에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나무들만이 아니라 집의 흔적에 이어진 것이었다.

이 일대에 그런 집들의 흔적이 있었다면 이곳은 그 언젠가는 오아시스가 아니면 물이 흐르는 곳이었음에 틀림없다. 과연 그들이 만났던 스투파 잔재의 언덕이 더이상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러 아주 질서정연한 구획으로 된 도시의 흔적이 불사(佛寺)와 승방(僧房)을 배치한 중심으로 해서 넓혀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화는 이런 일에 얼마간 두려워하고 있었다. 아니 그 도시의 흔적에서 좀 떨어진 곳에는 지난 날 한(漢)이나 당(唐)의 군대가 여기까지 와서 주둔한 병영(兵營)의 흔적도 있었다.

폭싹 내려앉아 버린 농가(農家)들도 있고 그 부근에는 미이라가 되다 시피한 오래된 사체(死體)들을 그대로 눕혀놓은 무덤 따위도 있었다. 놀랍게도 미이라가 된 사체의 수의(壽衣)는 서양 로마의 신(神) 헤스메스의 모습을 짠 모직물이나 중국풍의 여러가지 문양(紋樣)을 남긴 견포(絹布)로 되어 있었다.

그 옷은 누가 손만 대도 바스락바스락 부서질 것 같았다. 하지만 사막의 무서운 모래바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용케 남아있는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었다.

아니 그런 사실을 납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이 일대를 지나간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세사람이 이곳으로 들어선 첫번째였으니 몇천년동안 이 물이 말라버린 뒤의 폐허는 오로지 사막에 에워싸여 있었을 따름이었다.

"어디에 물이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만화가 힐책하는 것처럼 합두에게 물었다.

"아무래도 이곳은 옛날옛적에는 물이 있었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물 한 방울이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다른 쪽으로 가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합두는 입을 다물고 걸어가고 있었다. 만화 따위는 깡그리 무시한 채의 어떤 오만으로써.

앞장섰던 불이는 졸지에 뒤에 처져있었다. 아니 처져있기보다 숫제 만화와 합두가 가는 길에서 이탈된 상태로 그 도시의 흔적 여기저기에서 살피고 있었다.

불이의 눈은 놀라웠다. 모래를 헤친 뒤에 그 모래 밑에 숨겨져 있는 옛날의 교역(交易)에서 거래되었던 먼 나라의 보석으로 된 목걸이와 청동으로 만든 등(燈) 따위도 발견한 것이다.

고대인도의 문자인 카로쉬티문자로 표기된 목간(木簡)도 있고 종이에 한자를 쓴 문서 조각도 나타났다.

기원전 77년 이전의 한 왕국이 있었던 곳이 그 왕족이 망한 몇백년 뒤까지 유지된 국제시장이었던 사실이야 불이가 짐작할 리 없겠으나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진 누란왕국은 본디는 아리안계통의 종족들이 그들의 흰 피부와 푸른 눈을 가지고 동서를 잇는 시장경제의 왕국을 세웠는데 끝내 중국에 의해 정복당한 뒤 그 변방기지로 되었다가 드디어 물이 없어지는 자연현상에 의해서 그 도시는 끝내 유령조차 없는 곳으로 되고 만 것이었다.

하지만 어느 역사책에도 이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한 일이 없다. 다만 몇개의 그럴듯한 전설이 있을 뿐이다.

어쨌거나 불이는 그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보석목걸이 하나를 그의 목에 걸고 앞서 간 일행을 잰걸음으로 따라가고 있었다.

"만화님!"

"합두님!"이라고 큰소리로 불렀으나 그 소리는 사막 위의 허공이 잽싸게 삼켜버렸으므로 어디에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좀더 걸음을 재촉하였다. 비록 배가 고팠으나 그 배고픔으로 가득한 배를 가지고 힘을 냈다.

어느 만큼 그가 달려갔을까. 사막의 길은 같는 일에 절망감을 더하는 것이었다. 발을 디디면 디딘 곳이 무너지기 때문에 걸음을 떼어놓을 때마다 힘겨워진다.

그래서 먼 나라로 파견하는 첩자를 훈련시킬 때 무엇보다도 먼저 모래밭을 달리는 것을 몇달이고 시켜서 그 걸음의 속도와 두 다리의 힘을 배가시키게 하는 것인가.

불이가 걸음을 재촉하다가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이제 50보(步)로써 1백보를 비웃는 것과 다를 바 없구나…. 아아 나에게 의심이 부족하므로 같 같이 멀고 진리가 아득하구나."

그가 지쳐서 좀 쉬고 싶을 때 저쪽 앞에 합두가 이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불이가 그녀의 모습을 보자 다시 한번 힘을 냈다.

불이가 합두의 목에 보석목걸이를 걸어준 것은 그 뒤의 일이었다.

"우선 걸고 다니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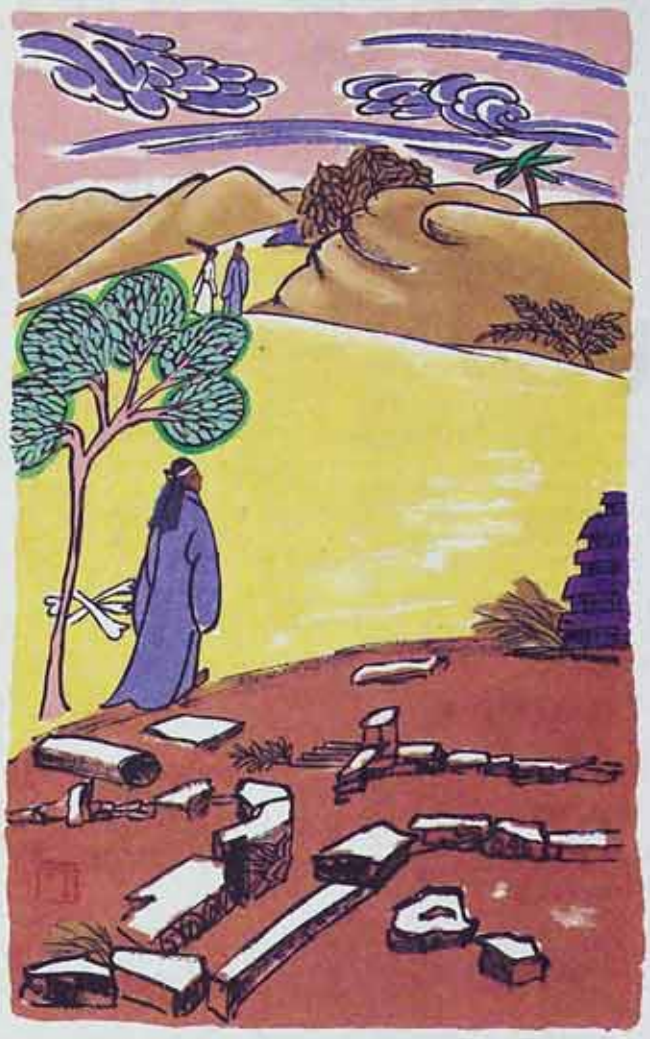
그들이 한참을 걸어가자 만화가 보였다. 만화는 실로 아담한 둥근 오아시스에 고개를 처박고 물을 마시고 있었던 것이다.

합두가 불이의 손을 잡아 끌어서 그곳으로 보냈다. 불이도 벌컥벌컥 물을 마셨다.

그 다음에야 합두가 다가가서 두손으로 물을 떠서 목을 축이는 것이었다. 합두의 그런 모습은 그림이거나 꿈 속의 어떤 동작과도 같아서 무척이나 거룩하였다.

그림 · 조향숙

기원전 동서를 잇는 국제시장이었던 누란왕국은 중국에 정복당한 뒤 물이 없어지는 자연현상에 의해 유령조차 없는 도시로 변모되었다 불이는 그 사막에서 보석 목걸이 하나를…



합두는 마음의 눈으로 오아시스를 보았고 세 사람은 그곳을 찾았다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환, 소식
• 자체홍보 • 안내
• 각종행사 • 신상품소개등
* 단 독자 여러분의 정신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권도에 벗어 않는 내용은 게재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선관단식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수련장
사)서울특별시 좌선산악회 부설
안내
☎ (0893)34-1135-6

척추교정 · 지압 개인지도
(CHIROPRACTIC)
• 교육내용
목 · 허리디스크, 신경통
관절염 · 중풍예방시술법
비만 관리 시술법
응양오행 건강 지압법
장삼수
건강연구원
입구정역
543-7306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 출판 윤주사
•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TEL (02) 720-9372~3
• FAX (02) 723-0646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보기업
전화 (02)279-2715
팩스 (02)275-3739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 · 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판매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상원B/D (을지로 2가)
전화 (02)266-2629
팩스 (02)266-2679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6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지회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법(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 · 사부대중께서는 전화 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특허 제0139호 실용신안 제0139호
聖鐘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 (02)733-6141(서울사무소)
☎ (0331)283-2083(공장)

한민족정통 (단전 기 호흡) 수련법
제1기 지도자 과정모집
◆ 수련과정: 단전호흡, 철산법, 신선운기법 36동작 육기법, 생식법, 심관법, 약침법
◆ 지방출장 지도 가능함
◆ 입시 : 3월 24일부터 6개월 과정
◆ 매주 일요일
특전 1. 수료증, 지도자 자격증 발급
2. 수료자는 본회의 중앙회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국내 및 해외에 도장을 개설할 수 있음
3. 도장 개설시 본 협회에서 행정적, 기술적 지원함
■ 회비 500,000원
■ 전화 (02)735-6795, 6796 / 팩스 (02)730-9298
한국신선도협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빌딩 4층
한국신선도협회 지도 회장 이해창

불심 포교원
••• 부전스님 모집 •••
전화:051-465-5100
주소:부산 광역시 동구 초량 2동 384-10
(부산 본역 건너편 국민은행 뒤)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 법당 · 경장
• 서울삼개대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삼개대사 법당 수미단 좌우협
• 서울(백흥사) 법당 수미단 좌우협
• 충남(갑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법당문 문짝
• 청남(법흥사) 대웅전 문짝 단청
• 충북(갑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판
• 마산(진전사) 대웅전 수미단 좌우
• 포천(백흥사) 대웅전 문짝 단청
• 단양(천문사) 대웅전수미단단청경판법상
• 서울(백흥사) 회주실 · 그외 다수 사찰
대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貞玉 합장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 · 8월 검정고시 국졸 · 중졸 · 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 한글반 · 재수생 · 직장인 · 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 입계 불이된 책상 「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 학교수업식 「강의 녹음」 학습
대학 졸업과정 | ⊙ 정치한 1 : 1 「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입계 터득 가능
축 신입회(72세, 할머니) : 中 · 高과정(24개월)
박은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 · 高 · 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6년전원졸업목표 ➡ (영 · 수) 「비디오강평교사」 특별학급 (4인1조)
청저한 학습권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 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3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회한거리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1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 다니면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일(남, 27세) 드림-
학사학위위탁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빌딩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

독 자

독자 여러분의 글 · 사진 · 만화를 기다립니다. 처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또 현대불교에 대한 의견 · 지적사항 · 제안 · 제보도 받습니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02)722-4162 FAX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현대불교를 읽고

불교청소년의 해 맞아 '새싹불자 키우기' 서원

청소년 포교는 타종교에 비해 포교의 방법이나 내용, 활동이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게다가 중고등학교의 청소년 단체가운데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곳은 4%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청소년 포교의 헛점을 드러내고 있는 현상이다.

이제부터 청소년 포교가 달라져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5.31교육개혁을 감안한다면 청소년의 포교는 더욱 시급한 과제이다.

부처님께서는 '전도선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전도의 길을 가라고 했다. 조계종이 정한 불교청소년의 해가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겠다.

이 한 득〈대구불교 산악회〉

소원성취 불공 유혹 '직업 보살' 척결 해야

오즘 부산에서는 절에 불공 · 방생을 위해 하루에도 대형버스가 어림잡아 1백여대가 출발한다. 특히 명절, 설, 보름이나 길일 일때는 시내 관광고속버스 수백대가 동원해도 부족할 정도다. 이들 신자들 대부분이 불공만 하면 소원성취 된다고 직업적으로 안내하는 자칭 '보살'들이다.

며칠전에 필자도 이 모집에 함께 동승하여 절에 다녀온 일이 있다. 문제는 주최하는 안내 '보살'의 경비징수방법. 1인당 교통비 2만원에다 회원자신과 그외 가족들의 행복을 기원해주는 기도비가 2만~5만원이다. 또 차내에서 마이크로 염불해주는 '보살'에게 축의금으로 2만원을 내야 한다. 교통비를 제외한 나머지 기도비와 축의금은 강제징수는 아니지만 체면 유지에 그냥 버틸 수 없게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1인당 적게는 6만원 많게는 10여만원을 투자해야 불공드릴 수 있다는 결론이다.

대부분이 서슴지 않고 가족명단과 함께 금전 공양을 하는 것이다. 10만원이라면 일당 2만원 여성근로자의 5일분의 노임에 해당된다.

거출된 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는 제쳐두고라도 갈때는 체면상 염불을 외우다가 올때는 유행가 장단에 마치 나이트크럽을 방불케 한다면, 그들은 절에가서 합장기도를 몇번하고 금액을 얼마나 바쳤는지 그 실적에 따라 불공정성 기준을 점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김 창 덕〈부산시 동구 수정1동〉

민족비하 용어 '이조'를 '조선'으로 써야

귀사의 지난해 12월 20일자 3면 '쌍봉사 대웅전'에 대한 기사를 보니 '이조 중기'라는 어구가 있더군요. 이것을 보고 몹시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도대체 '이조'가 뭡니까? 이조란 왜놈들이 조선을 그들의 일개 지방호족으로 격하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단어로 우리가 절대로 써서는 안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폐어가 되어 마땅한 이 단어가 불교계 정상의 신문인 귀사에서 조차 이조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으니 매우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런 낱말 하나하나가 우리의 모국어와 우리의 정신을 망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홍 승 의〈국립보건원 제품과〉

군법당 어려움 소개 후원자 관심늘어

저는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에 있는 정림사 군종병입니다. 지난해 11월 8일자에 저희 법당의 어려운 점을 소개해 주셔서 매우 기뻤습니다. '현대불교'를 구독하고 있었지만 저희 소식을 직접 신문에 실어 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낸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고 보니 무어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한마음 요전〉까지 받고 보니 더더욱 감사드리며 저희 군종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깨닫도록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가득차 오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기사를 보신 불자들이 전보나 전화를 통해 도움을 주시겠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군포교를 위해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박 경 재〈군종병〉

요구합니다

천진암 홍보자료 스님 비칭표현 시정을

변기영 신부님께

귀의 삼보하옵고,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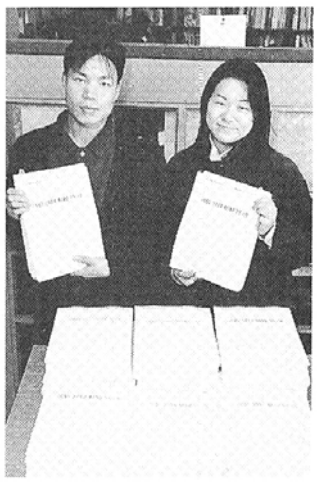
그동안 천주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토착화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가운데 천진암에 대한 신부님의 관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내외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장구한 세월동안 천진암을 성역화하시는 모습에 이교도로서의 시새음보다는 부러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신부님께서 발행하신 〈한국 천주교회발상지 천진암성지〉라는 안내지도 및 설명서에 실린 '천진암 성지와 한국 천주교회 창립사 개요'라는 글을 보고 저의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벽성조께서 …… 서둘러 종들을 깨워 천진암에 도착하여 그들과 함께 10여일간 강학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씌어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부를 때 경칭을 쓰지 않으려면 보통으로라도 불러야 하는 것이 종교인으로서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이 글에 나와 있듯이 이벽선생은 '성조께서'라는 표현을 써놓고도 스님들은 '중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천진암은 절이었고 스님들의 도움으로 몸을 숨길수 있었던 점과 "천진암성지회가 민족의 자랑이요 긍지"라고 하신 신부님의 말씀에 비춰 보았을때 차라리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승려의 한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발행한 '한국 천주교회 발상지 천진암 성지'내용중 해당부분 시정과 그동안 배포된 안내지도 및 설명서를 전량회수, 폐기처분해 줄것을 요구합니다.

법 현〈서울시 창신동 원각사〉



◇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원회가 펼쳐온 서명운동에 20만명을 넘는 국민들이 동참했다. 11일 청와대 · 국회 · 문체부 · 건교부 청원을 앞두고 관계자들이 서명부를 정리하고 있다. 경주의 문화유적을 지키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관계자들은 헤아려야 할 것이다. 유 경 미〈서울 흑석3동〉

보고만 있을수 없어요

예산 사면석불상 훼손 부처님 상호 복원 절실

지난해 11월 26일 불교문화 유적답사 일환으로 법우들과 함께 충남 예산군 봉면 화정리에 소재한 사면석불상(보물 794호)을 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면석불상은 모두 머리와 손이 잘려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불자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도 안타깝고 눈물겨웠습니다.

더욱이 이 불상은 우리가 늘 염불하고 존경하는 아미타불, 석가여래불, 미륵불이란 점에서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한 이 불상은 높이가 3M 폭이 60~120cm나 되는 큰 불상으로 백제시대의 귀중한 유물입니다.

이 불상이 머리와 손이 잘린 것이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 의해서 자행된지는 몰라도 현재 그 모습을 노출시키고 있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불상은 지하에 매장된 것을 1983년에 발굴, 보물 제794호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마땅히 올바르게 복원했어야 함이 정당한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삼보에는 살상 파손 비방 등 불순한 행위를 금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단이나 관계기관에서 원만 구족한 부처님의 상호로 복원했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돈 상〈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사찰 한문서당 마친 소감

"한문서당서 배운 예절 생활속 실천 노력할터"

처음에는 길게만 느껴졌던 한문서당 수업이 다 끝나고 지금은 한달 동안 배웠던 한자 1백 68자만 머리속에 남아 있습니다.

차가운 아침공기를 마시며 백련사 한문서당 일주문을 들어설 땐 오늘 있을 재미있는 일들, 그리고 한자공부에 은근히 기대를 가져봅니다. 처음 학동 대표의 선서와 주지스님 말씀을 들을 땐 그저 낯선 얼굴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여러 스님들과 훈장선생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는 법우가 되었습니다. 한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면서 갖추어야 할 예절, 지혜, 도리 등등. 이번 한문서당을 통해 아주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들의 생활에 있어서 이 한자와 여러 성현들의 가르침은 앞으로 유용하게 쓰여질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착한 어린이가 될 것입니다.

한달동안이나 철없는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가르쳐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착하고 슬기로운 어린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 지 혜〈응암 국교6〉

만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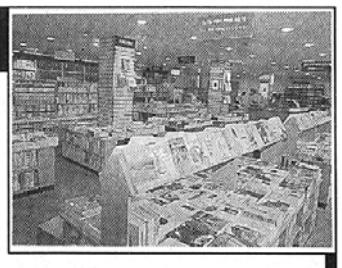
法句經 법구경

* 더러움의 장 *
믿는 데를 따르고
좋아하는 것을
따라 보시하라

이 향 원



불은 가득, 법향 가득 …



고객은 무조건 옳습니다. 특히 책방 여시아문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
책방 여시아문은
무엇이든 항상 독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

책방 여시아문은
무엇이든 항상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
가장 손쉽게 다다갈 수 있을까?'
반드시 독자들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판단되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책이라도
꼭 구비해 놓는 것이
저희 책방 여시아문의
고객 우대 실천 덕목
제 첫번째
사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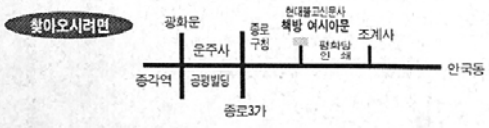
모든 진열서적이,
고객의 손끝에 쉽게 닿도록,
매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더욱 편리한 매장 이용을 위하여 전 매장을 고객 중심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불서와 첫 인연을 맺게 될 분들로부터 전문서적을 찾으시는 독자들에 이르기까지 매장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안내 표지판을 따라가기만 하면 구하고자 하는 서적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매장의 구비 서적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분류방법 또한 **'불법의 세계로 처음 들어오신 분을 위한 책'**등의 입문서와 함께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책' '삶의 질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책'** 등, 저희 책방 여시아문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목적에 따라 제대로 된 도서를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독서 환경 조성, 이것이 책방 여시아문의 또다른 지향점입니다.

통신판매 독도에서 LA까지, 독자가 원하면 어디든 갑니다

책방 여시아문이 우편 발송료를 전액 부담하는 통신 판매망이 산사에서 도심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익금보다 발송료가 더 들어도 한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는 통신 판매, 책방 여시아문만의 서비스 정신입니다.

책방 여시아문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 지금 곧, 전화하십시오. 알찬 불서 관련 정보만을 실은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를 바로 보내 드립니다. 전화 : 737-0695, 팩스 : 737-0696

문화유산 지킨 선조들 삶 소설화

장편 실록 '문화재 비화' 상·하권 출간

행간마다 '문화재 사랑' 중요성 서술

임란·일제등 문화재 약탈과정 그려

"1909년 가을이었다. 당시 2대 통감으로 있던 소네 아라스케가 고관들을 대동하고 불국사를 거쳐서 석굴암까지 다녀갔다. 오층석탑과 감실의 보살상이 없어진 것은 그 직후였다." "일본인 오구라는 일제당시 기와집 2백5십채 값인 50만원이란 거금으로 고구려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국보 118호)을 사겠다고 유혹했다. 그러나 김동현옹은 이를 뿌리치고 56년간이나 이 불상을 지켰다." "1906년 일본 궁내대신 다나카는 경천사지십층석탑(국보 86호)을 자기 집 정원석으로 쓰려고 일본으로 불법반출시켰다가 뒤에 총독부의 조사와 여론에 밀려 다시 반환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금속유물 수장가로 평가받는 김동현옹(88)의 일생을 축으로 민족문화재를 지키는 일에 온 생애를 바친 선각자들의 투쟁기와 민족문화유산의 수난사를 다룬 책이 나와 화제다. 그것은 호암미술관 고미술운영실 고제희 과장(38)이 쓴 장편 실록소설 〈문화재 비화〉(전 2권 · 돌베개 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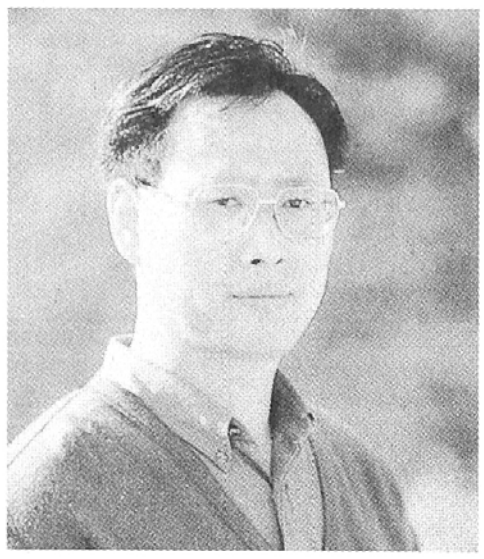
이 책은 수 천년 동안 우리 민족에 의해 창조·향유되어 온 문화유산들이 임란과 일제시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어떻게 약탈되고 파괴되었는지를 소설형식을 통해 리얼하게 보여준다. 또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국보와 보물들이 어떤 우여곡절과 사연을 겪어왔는지를 증언을 통해 흥미있게 엮어,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

조선말기와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 상당수가 조선총독부의 묵인하에 불법적으로 해외로 유출됐다. 그 결과 약 6만5천여점의 해외 유출 문화재 중 절반에 가까운 2만5천여점이 일본으로 빠져나갔다. 그러나 약탈의 위기로부터 위창 오세창, 우형 고유섭, 간송 전형필과 김동현옹 등 몇몇 선각자들은 우리 문화유산을 지켜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일본인 수장가들에게 맞섰다.

소설속에는 △대구의 악질적인 골동상 이치다가 일본으로 불법반출하려다 총독부의 조사로 뜻을 이루지 못한 중흥산성 쌍사자석등(국보 103호) △원산의 미요시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복을 기도하며 "나를 죽이고 가져가라"고 외친 금동여래입상(보물 401호) △데라우치 초대총독이 빼돌린 규장각 고서들 등등 국보와 보물에 얽힌 뒷이야기가 가득 실려있다.

김재경 기자





소설 '문화재 비화' 저자 고 제희 씨

"문화재는 국토의 일부죠"

해외유출문화재 반환 촉매됐으면

"국민들에게 일제로부터 지켜낸 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우고, 간헐적으로 학계와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왔던 해외문화재 반환청구 논쟁에 이 책이 새로운 촉매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실록소설 〈문화재 비화〉를 펴낸 고제희씨(38)는 "문화재를 지켜내는 일은 우리 땅을 지키는 만큼이나 힘든 일이었다"며 "문화재는 곧 국토"라고 강조한다.

고씨는 "김동현옹처럼 돈의 유혹을 뿌리치고 문화재를 지킨 선각자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라도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들을 되찾아 오는 일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고씨는 현재 주말마다 전국의 정자와 성현들의 묘를 찾아 현판과비문을 해석하고 관련문헌을 정리하는 등 '선현을 찾아 떠나는 답사기'를 쓰고 있다.

〈재〉



'지리산 자락' '…남한강' '우리비경…'

답사안내서 3권 나왔다

여행하기 좋은 봄날에 3권의 답사여행 안내서가 동시에 나왔다. 문화유산답사회(회장 유홍준)의 '답사여행의 길잡이' 6, 7권 〈지리산 자락〉과 〈경기남부와 남한강〉(돌베개 刊), 최진규의 〈우리 비경 답사기〉(태일 刊)가 그것.

박종분씨가 쓴 〈지리산 자락〉은 지리산 품속에 살포시 안겨있는 곡성·구례지역의 고풍스런 산사와 부도 등 50여곳의 문화유산 현장을 2백여컷의 사진과 상세한 여행정보를 통해 소개했다. 남한강 줄기 곳곳에 배어있는 선조들의 삶의 흔적을 찾아가는 〈경기남부와 남한강〉은 여주 남한강변의 서정과 안성 미륵동네의 오붓한 절등을 김희균씨가 소개했다. 〈우리 비경 답사기〉는 생태학자인 저자가 경주 골굴암과 경북 봉화의 앉은 돌부처 등 전국을 돌며 발굴한 36곳의 알려지지 않은 비경을 모아 소개하고 있다.

줄판소식

고교 불교교과서 간행

교육개혁위원회 제6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대폭 개정된 고등학교 〈종교(불교)〉 교과서가 나왔다(대원정사 刊). 서울시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95년 12월 29일 서울시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이 교과서는 열려있는 종교이해를 바탕으로 불교전반을 알기쉽기 조명해 일반 불교입문서로서도 손색이 없다. (02)754-1614

계간지 '고경' 창간

백련불교문화재단은 성철스님의 유업을 계승 발전시키고 그 가르침과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계간지 〈古鏡〉을 창간했다.

〈古鏡〉창간호에는 혜암스님(해인총림 방장)의 창간법어, 본지풍광 평석, 박성배교수(뉴욕주립대)의 '성철스님을 보는 시각에 대해', 송석구총장(동국대)·문항욱씨의 '나의 삶 나의 기도' 등이 실려있다.

한길사상서 4권 나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한길사'는 2005년까지 위대한 지적 유산을 남긴 동·서양 사상가들의 고전 2백종 3백권을 완간한다는 계획아래 '한길 그레이트북스'를 기획, 최근 1차분 4권을 발간했다.

이번에 나온 1차분 4권은 라다크리슈난의 〈인도철학사 1〉, 엘리아데의 〈종교형태론〉, 화이트헤드의 〈관념의 모험〉, 에드먼드 리치의 〈성서의 구조인류학〉등이다.

한길사는 이 기획에 불교관련 서적으로 찬드라 키르티의 〈명부론〉, 혜능의 〈육조단경〉,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의천의 〈의천문집〉, 지눌의 〈수심결〉을 포함시켜 번역·발간할 예정이다.

불교와 타종교 비교분석서

인터넷 소개 '활발'

불교와 타종교를 비교 분석한 비교서들이 해외에서도 활발히 출간, 동시에 인터넷에 소개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불교출판학회 '휠'에서 출간한 〈불교와 그리스도교〉(Buddhism and Christianity) 스노우라이온출판사의 〈그리스도와 보살〉(The Christ and Bodhisattva), 전자잡지 〈불교실천윤리학지〉(JBE)에서 발간한 〈그리스도교와 불교에서의 정의〉(Judeo-Christian and Buddhist Justice) 등.

특히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저자인 핼멧 반 글라세넵씨는 이 책에서 종교자체를 유용한 정보로 간주하고 '세상의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나는가' 등의 질문들을 두 종교의 관점에서 설명했고, (http://world.std.com) 〈그리스도와 보살〉은 카톨릭과 개신교의 전통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되새기고 달라이라마 로버트투르만등이 설명한 보살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기술했다 (http://www.well.com/~metta/ftp). 〈그리스도교와 불교에서의 정의〉에서는 전통적 성서와 팔리경전속에서 정의의 개념을 비교하고 실천불교안에서 정의의 모습도 언급했다.(http://www.psu.edu)

일본의 산희방불서림에서도 1백23년전 스리랑카에서 벌였던 빠나둘라 대논쟁의 영문판 〈그리스도교인가 불교인가〉를 일본어로 번역해 출간했다. 〈남수미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기도	일 타	효 림
2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3	도가 본시 없는데 내가 무엇을 계했나	이 청	동 지
4	무소유	법 정	범 우 사
5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6	금강경 이야기	법 륜	정 토
7	돌부처	이 근 후	여시아문
8	과학자가 본 불교의 세계	윤 주 억	밀 알
9	삶에서 깨어나기	틱 낙 한	장 경 각
10	방한암선사	김 호 성	민 족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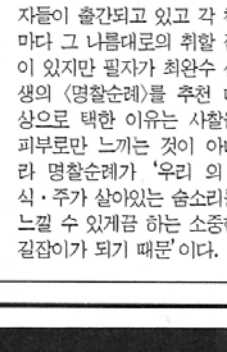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 100선

명찰순례(名刹巡禮)

불교문화 감상법 쉽게 기술

'사찰로의 초대' 안내서 역할



박 경 자
〈삼풍건설 조경이사〉

가람은 불교건축을 대표한다. 가람이란 산스크리트어 'Sangharama'의 약칭으로 원래는 중원(衆園)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나 한역하여 승원(僧園 또는 僧院)이라 하게 되었다. 이 승원으로서의 가람은 원래 당·탑·가람이라고 하여 이들 3자는 각기 개별적인 것이었으나 후세에 와서 가람이라고 하면 승원으로서의 가람에 당·탑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졌다.

최완수선생의 〈명찰순례(名刹巡禮)〉는 일반인, 스님, 공부하는 학도가 불교문화 건축인 사찰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고 있다.

선생은 책의 서문에서 밝혔듯이 종합적인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춘 자가 사찰을 조목조목 풀어 열거해 나가야 사찰에서 역사의 숨결을 실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책은 여러 문헌을 기초로 해서 다방면의 전통문화에 대한 접근으로 우리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도록 했으며,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 이념이 살아있는 사찰을 피부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독자적인 불교문화를 소생시키려는 작업이 〈명찰순례〉를 쓰는 목적이 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필자가 지난해 여름 부석사 답사길에 나섰을 때의 일이다. 여름의 저녁나절을 맞이한 시각이었다.

부석사 진입부의 사과밭을 지나 범종루에 이를 때 마침 저녁 7시라 사물(四物)인 법고(法鼓), 목어(木魚), 운판(雲板), 범종(梵鍾)을 치는 장면을 직접 보게된 것이다. 우리 일행은 모두 범종루 앞 응향각 옆에 주저 앉아서 정신없이 사물이 내는 소리와 부석사 앞에 펼쳐진 대자연과 석양의 장관에 빠져 버렸다.

여기에서 시작된 부석사 답사로 막연하나마 사물의 의미를 되새겨가며 신라인의 석축(石築)기술에 감탄하였다. 또 무량수전 배흘림의 기둥, 선묘각(善妙閣)에 얽힌 이야기, 부석(浮石)의 유래 등 모두 사전지식으로 얽은 이야기를 배경으로 그 이튿날의 새벽 산사(山寺)길까지 포함해서 정신없이 부석사에 대한 의미부여의 형식(?) 찾기에 바빴다.

이처럼 답사길의 사찰이 주는 불교문화이해의 길잡이가 되는 책자가 최완수선생의 이 〈명찰순례〉이다.

명찰순례의 대상사찰로는 우선 유서깊은 절이 선택되었다. 한 달에 한 번 원고가 나가므로 일정에 맞추어서 지역 안배를 하였다 한다. 서울에서 왕복거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먼저 고려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좋은 책은 한번 읽고 버리는 책이 아니다. 관계되는 일에 부딪쳤을 때 길잡이로서 우선 떠올릴 수 있는 책이어야 한다.

많은 문화유적에 관한 책자들이 출간되고 있고 각 책마다 그 나름대로의 취할 점이 있지만 필자가 최완수 선생의 〈명찰순례〉를 추천 대상으로 택한 이유는 사찰을 피부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명찰순례가 '우리 의·식·주가 살아있는 숨소리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소중한 길잡이가 되기 때문'이다.

불교소설의 진수!
이 책을 읽는 동안 당신도 구도자가 됩니다.

대륙의 신라왕자
신용산 장편소설

현대 첨단 과학으로도 해명이 불가능한
기적의 실체인 등신불로 化하여
중국에서 "지장보살"로 추앙받고 있는
신라승 김교각 스님의 생애를
그린 책!



지장보살 김교각!
입멸 후 1,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중국인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가?

그는 결코 왕자로서의 자존심과
구법승으로서의 겸허함을
잃지 않았다.

신국판 / 382쪽 / 값7,000원

백운 장편소설
연선도인 ① ②



하천한 천민의 모습에서
걸출한 큰스님으로 되기까지의
피나는 구도행각을 그려낸 소설!

신국판/① ②권/각권 5,000원 (㉞권 집필중입니다.)

율곡에겐 훌륭한 어머니 신사임당이 있었듯
서산대사에게는 걸출한 스승 연선도인이 있었다.
우리나라 조계종의 거봉, 6조 부용당 연선도인!

그로 인해
청허 휴정 · 부휴 선수의 양대 산맥이 힘차게 뻗어 나가
우리 불교계 전체를 이끄는 횃불이 되었으니 · · · · · ·

우리출판사를 아껴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전하는 최대의 선물!

우리출판사 전화: 313-5047 / 5056 팩스: 393-9696

"불교정신을 문학작품으로"

조계종, 불교문학 1억3천만원 현상공모

소설·시·시나리오·평론·동화 등 7개 장르

'96 문학의 해를 맞아 교계사상 최대규모인 총 1억3천만원의 불교문학 현상공모가 실시된다.

문학을 통한 인간성 회복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불교정신과 민족적 정서를 조화시켜 문학적으로 승화시켜온 불교문학 창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실시되는 이번 현상공모는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월주)이 주최하고 불교문학현상공모위원회(위원장 고은)가 주관한다.

△소설 △시 △시조 △희곡 △시나리오 △동화 △평론 등 총 7개부문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공모의 응모자격은 기성작가와 신인등 대상에 구별이 없으며 불교관련 소재 작품이나 불교사상 또는 불교정신이 투영된 문학작품으로 신작에 한해 응모할 수 있다.

시상은 장편소설 5천만원, 중·단편소설 1천5백만원, 희곡·시나리오·평론 각 1천5백만원, 시·시조·동화 당선작이 각 7백만원이며 당선작이 없을 경우 '가작'으로 하며 가작 상금은 당선작의 절반이 된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교계 및 일간신문 연재 또는 게재와 책자 간행이 예정돼 있고 TV드라마 및 영화제작도 추진한다.

심사발표는 오는 11월30일로, 불교신문에 게재하며 개별 통보한다. 자세한 문의 및 접수는 총무원 문화사회부. (02)737-9684

한편 조계종은 12월에 있을 시상식을 기념해 시낭송회, 불교문학작품집 및 불교문인 사진전시, 신라 이후 우리나라 불교문학목록집 발간 등의 행사도 아울러 갖는다.

이경숙 기자

교계 문학상 현황

일붕법왕·현대불교·성파시조·동쪽나라 등 4개

교계는 그동안 녹원스님이 제정한 '녹원문학상' 월간 〈불교사상〉지가 제정한 '만해문학상' 계간 〈불교문학〉의 '불교문학상' 등이 명맥을 거듭하며 불교문학 활성화의 불을 일구어 왔으나 지금은 폐지된 상태. 조계종의 불교문학 현상공모전 발표를 계기로 그밖에 교계의 문학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 **현대불교문학상**: 현대불교문학회 주관. 등단 10년이상의 역량있는 작가대상. 시·소설·평론 등 3개부문 각 2백만원. 5월 시상. (02)308-9520

■ **일붕법왕문학상**: 일붕문학회 주관. 공로상(시조 수필 소설) 본상(소설) 특별상(민속 사진). 3월말 시상. (02)395-6655

■ **성파시조문학상**: 부산시조문학회 주관. 영남일원 등단 10년이상의 시조시인이 대상. 10월말 시상. 2인 각 150만원. (051)204-4441

■ **동쪽나라아동문학상**: 〈동쪽나라〉 주관. 역량있는 신예 아동문학가 발굴. 동시 단편 장편동화 부문 총 1천만원 고료. 1월초 시상. (02)263-8438



불교문학 현상공모운영委 고은 위원장

"불교문학 훌륭한 포교사"

"경전은 신앙대상이자 대문학"

서구문화 한계 돌파구 계기

"우리나라 고대가요(향가)의 대부분이 불교사상·정서가 녹아있는 불교문학입니다. 고려나 조선시대의 詩중에는 빼어난 선시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기독교가 쇠퇴하면서 큰 물줄기를 이뤄온 기독교 문학이 한계를 느끼고 동양사상에서 그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계는 물론 일반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인 1억3천만원의 상금을 내걸고 불교문학 현상공모를 주관하는 불교문학현상공모 운영위원회 고은 위원장(본지 논설고문)은 이번 공모를 통해 좋은 불교작품이 많이 나와 불교문학의 중흥과 세계화에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경전은 신앙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규모의 대문학"이라 정의한 고은위원장은 자타카·화엄경·유마경 등 경전은 불교경전 중에서도 백미이면서 동시에 소설·드라마적 요소가 풍부한 문학걸작이라고 소개하며 이러한 무궁무진한 자료를 활용하여 탁월한 상상력과 구성력이 가미된다면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문학작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만해의 '님의 침묵' 김동리의 '등신불' 미당의 시 등을 예로 든 고위원장은 훌륭한 문학작품은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에 살아있으며, 드라마로 연극으로 영화로 뮤지컬로 상시 재구성되기에 그 어느 것보다 훌륭한 포교방편이며 따라서 이번의 문학현상공모야말로 어느 대작 불사에 못잖은 중요한 대불사라고 확신했다.

고은 위원장은 '문학의 해'인 올해 좋은 불교문학이 탄생한다면 그것이 촉매제가 되어 이와 같은 문학현상공모가 정례화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며 이번 공모에 관심있는 이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했다.

문·화·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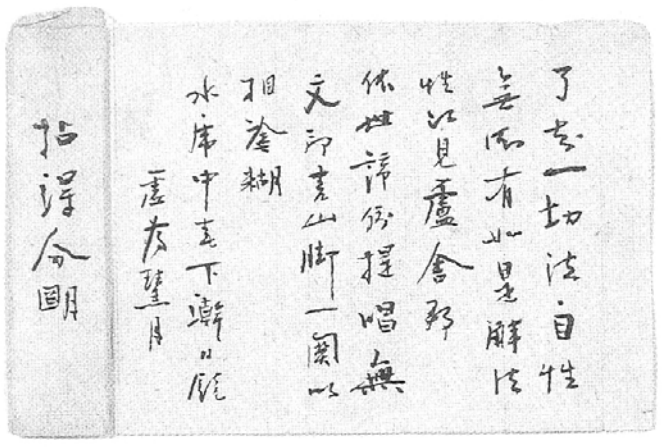
만해스님 '님의 침묵' 판본 1백종 넘어

만해 한용운스님의 대표작 〈님의 침묵〉이 지난 1926년 초판 단행본 출간 이후 지금까지 나온 판본이 1백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님의 침묵〉 판본을 수집 소장하고 있는 전보삼교수(만해사상연구소장)에 의하면 〈님의 침묵〉은 지난 1926년 5월20일 회동서관에서 단행본으로 최초 발간된 이후 한성도서주식회사 정음사 민을사 일조각 서문당 등 국내 유수의 각 출판사들에 의해 현재까지 꾸준히 발간되어 오고 있으며 이들 판본 중에는 하와이주립대 출판부에서 나온 영문판 등 영문본 3종과 최근 프랑스 마르세이유 오뜨루땅출판사에서 나온 불어판이 들어있다.

한 인물의 한 시집이 하나의 제목으로 판본을 거듭하기는 〈님의 침묵〉이 전무후무한 일로 이는 만해스님의 〈님의 침묵〉이 시대와 계층을 초월해 민족정신과 문학의 근간이 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문학계는 평가하고 있다.

전보삼교수는 "발간 70주년이 되는 5월 20일을 전후해 지난해 책방 '여시아문'에서의 전시에 이은 또 한번의 판본전시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 근세불교의 중흥조 경허스님이 혜월스님에게 준 전법게. 이번 전시회서 처음 공개된다.

근세 47선사 선서화 '한눈에'

불일미술관 개관기념 '근세고승유묵전'

경허스님 전법게·법맥상속 친필 공개

서간문 주류…선승들 가풍 '볼 기회'

경허 만공 한암 용성 만해 한영 학명 동산 효봉 경봉 청담 전강 탄허 구산 향봉 운허 자운 향곡 성철 고암스님….

한국 불교의 선풍을 진작시키며 한국불교사의 맥을 이뤄온 기라성같은 대선사들이 다시 불자들 앞에 나투셨다.

법련사(회주 현호) 불일미술관은 격동기를 살며 한국불교의 중흥을 일군 47선사들의 선서화 묵적을 모은 '근세고승유묵전'을 3월6일부터 개최하고 있다.

교계 유일의 전문미술관으로서 개관기념으로 여는 첫 기획전인 이번 근세고승유묵전에는 선사들의 계송, 경구, 사군자, 선시, 법서 등 다양한 묵적들이 선보이고 있다. 근세 선불교의 중흥조인 경허스님(1849~1912)이 제자인 혜월스님(1861~1937)에게 법을 전해준 전법게와 구한말 개화운동가 동인스님의 서간문은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귀중한 자료. 경허스님의 전법게는 지난 1902년 동래 범어사에서 혜월스님에게 준 것으로서 조계종 종조인 태고 보우스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법맥상속 친필도 같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또한 서화 글씨 시조 등에 뛰어났던 경봉스님(전 통도사 극락선원장)의 달마조사상과 글씨, 송광사 초대방장을 지낸 구산스님의 난초 등 유묵들도 관심을 끄는 작품들이며 만해 한용운스님의 친필원고, 글씨 등도 발길을 오래 머물게 한다. 특히 이번 유묵전에는 선사들간에 서로 왕래한 서간문 친필이 다수 공개되고 있어 휘호와는 다른 진솔한 멋을 풍겨주고 있다.

일반 서예가나 화가의 글씨·그림과 달리 수행을 오래한 선사들의 필묵·선화는 탈속한 마음의 극치를 쏟아내는 발묵법(潑墨法)을 통해 무궁한 내면의 세계를 표출하는 '선서화'로서 '무언설법(無言說法)' '우주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법기(法器)'로까지 평가되고 있다. 무기무격(無拮無格)한 용필과 농담, 갈필 속에서 선사들의 선지(禪旨)와 도정(道程)을 살필 수 있다. 그러므로 근세고승유묵전을 통해 큰스님들의 수행력과 자화상을 보는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것.

교계에는 그동안 크고작은 선서화전이 많이 열렸지만 이처럼 많은 큰스님들의 유묵을 한 자리에 모아 전시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로, 송광사 통도사 수덕사의 성보박물관과 통도사 극락선원 등에 보존되어 있는 서화들을 옮겨왔다. 이 전시회는 오는 4월2일까지 열린다. (02)733-5590

〈숙〉

문화소식

신춘 불교음악 발표회

조계종 총무원이 주관하는 신춘불교음악발표회를 위해 연합합창단이 지난달 26일부터 연습에 들어갔다. 음악발표회날인 오는 17일까지 매주 월·목요일에 실시되는 이번 연습에는 서울 경기 사찰 합창단 40여개에서 350여명이 선발 참여하고 있다.

3월17일 음악제에는 '경사로다'(최영철 작사 작곡) '지계의 노래'(대행스님 작사 김동환 작곡) '우리도 부처님같이'(맹석분 작사 이달철 작곡) 등 합창곡 6곡 중창곡 11곡 등 총 17곡이 불리워진다.

1회 익산불교음악제

이리불교대학 가릉빈가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회 익산불교음악제가 오는 23일 오후 3시 이리시민회관에서 열린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열리는 이번 음악제는 찬불가 합창·중창과 지범스님 명국환 한명숙씨 등 불자가수들이 초청 공연하며 다함께 부르기로 공연 마지막을 장식한다.

13일까지 오숙례씨 개인전

불자화가 오숙례씨의 개인전이 오는 13일까지 해반갤러리(인천시 북구 부평3동, 515-7985)에서 열린다. 엷은 수채화빛으로 채색한 한지 위에 나무를 재료로 내면의 형상을 오브제한 오숙례씨의 작품 소재는 수도암, 봉곡사, 종가집 등 전통문화에서 얻고 있으며 이것들을 오늘의 감각으로 재구성했다.

정신대할머니 그림전

정신대할머니들의 평생의 한과 설움을 화폭에 담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빛을 향해 서리라'는 제목으로 서울 중앙병원 1층 로비에서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이 미술전에는 강덕경(67) 김순덕(75) 이용녀(70) 등 정신대할머니들이 '빼앗긴 순정' '못다핀 꽃'의 제목으로, 갈고 닦은 작품 31점을 전시하고 있다.

고려화엄변상집 50% 할인

민족사(사장 윤재승)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화엄경 80권의 내용을 80장의 변상도에 담은 〈고려화엄변상도〉를 정가(58만원)의 50% 할인 판매한다.

화엄변상도는 오로지 우리나라에만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판본은 현재 국보로 지정돼 해인사 대장경각에 봉안돼 있다. (02)732-2403~4

공연기금마련 연등판매

불교극단 바람(대표 현장)은 부처님오신날 기념 '경허대선사 일대기'를 공연하기 위한 기금마련 연등 판매를 하고 있다.

지난 90년 창단된 '바람'은 그동안 '비구여 비구여' '사문의 모' '선재동자' 아동극 '손오공' 등 꾸준히 무대의 막을 올려왔으나 전반적인 불교연극의 침체속에서 재정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장스님은 "광대무변하고 대자대비한 불교의 세계를 연극으로 표현함으로써 생활속의 입체적이고 능동적인 포교를 하고 싶다"며 "연등판매 수익금 전부가 '경허대선사 일대기' 공연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 말했다. 극단 바람 연등사업부 (02)737-0885.

◇기사넘쳐 '불심시심' 쉽니다.

공 고

오는 4.11 총선은 지방화 시대, 세계화 시대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민주정치 발전의 분수령으로 범국민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권위주의적 질서와 제도 속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부정 타락 선거 풍토는 새로운 통합 선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위세를 떨치며 정치 발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래 시작된 우리의 불법 타락선거의 병폐는 선거 망국론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심각하게 유권자의 불신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한국 불교종단협의회에서는 민주 발전에 분수령이 되는 금번 제 15대 총선을 깨끗하게 치뤄 건전한 선거문화풍토를 정착시킴으로써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산하에 공명선거계도위원회를 설치하고 28개 회원 종단과 연계하에 다음과 같이 공명선거 계도 활동을 실시하오니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 활동지표
가.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의 구현
나.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주의 선거문화 개혁
다. 정책 및 인물 중심의 선거풍토 정착
라. 적법한 홍보 및 공정한 선거 관리 실현

2. 부정선거의 유형
가. 금품살포, 향응제공, 선심 관광
나. 후보자간 흑색비방선전, 인신공격
다. 동문회, 향우회, 종친회 등 연고 집단의 선거 개입
라. 후보자의 불법(편법)홍보
마. 선거 비용 과다 사용
바. 언론 매체의 편향 보도
사. 기타 선거법 위반 등

3. 활동기간: 1996. 2. 10 ~ 4. 10 (2개월간)

4. 활동내용
가. 각종 법회를 통한 계몽활동
사찰 또는 신행 단체별로 각종 법회를 통하여 공명선거의 중요성과 부정선거에 동참하지 않기 결의 등 계몽활동을 전개한다.
나. 공명선거 홍보 및 선전활동
유권자의 의식개혁을 위하여 안내 전단, 스티커, 프랑카드 등을 제작하여 사찰 및 신행 단체 그리고 일반 불자들에게 배포한다.
다. 입후보자 불법 선거 감시 활동
각 사찰 신도회 또는 신행단체의 임직원과 청년 불자들을 감시요원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의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전개한다.
라. 부정선거 신고 센터 운영
종단협의회 사무실 내에 부정선거 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선거 부정에 대한 불자들의 신고를 받는다.
마. 각종 모니터 활동
각 종단별로 모니터 요원을 지정하여 후보자(경력, 정책, 선거 운동) 및 각종 언론 매체의 보도 상황 등을 모니터한다.

■ 참고: 전국의 불자 여러분은 해당 지역의 부정선거 사례를 공명선거 계도 위원회 신고 센터(전화732-2612)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신고전화:(02)732-2611, 732-2612, 732-2613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공명선거 계도위원장 김월서
서울 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 -19

장애딛고 '부처님 음성' 찾는 행렬

광림사 연화복지학원 '팔공산 갓바위 순례' 동행기

"자정출발 새벽 5시 부처님 전 도착 마음으로 독경듣는 47 청각 장애인"

2월25일 새벽 4시 팔공산 갓바위 가는 길. 살을 에는 찬공기에 별빛이 시리도록 반짝이는 시간임에도 정초 불교성지를 향하는 행렬은 끊일줄을 모른다. 서울 광림사(주지 해성스님) 신도와 부설 연화복지학원의 청각장애인(농아자) 47명도 5시간의 밤길을 달려와 성지순례에 오르고 있었다. 새벽어둠을 깨우며 순례자를 맞이하는 염불독경 소리가 47명의 농아자에게 들릴리는 만무했지만 염불독경 소리따라 발걸음이 부단히 움직이고 있다.

"저분들이 느끼는 감갑함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인지 대부분 성미도 급하게 되죠." 스님의 말대로 일일이 수화로 의사표현을 해야 하는 그들에겐 같은 한국인과의 대화에서도 통역이 필요하다.

순례에 나선 농아자중에는 소아마비로 보행이 불편한 이병노씨(농아조교회장)와 10년전 망막파괴로 시각마저 잃어버린 최명석씨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최씨는 수화를 통한 대화마저 어려운 상태.

"절에 오기 전에는 좌절과 비관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죠. 술과 노름에 폭 절어 있었습니다." 지옥보다 더한 절망의 수렁에서 구원의 빛이 되어 준 것은 부처님법이었다. 장애인도 모두 불성이 있는 일불제자임을 알고나서 느낀 환희심은 너무나 컸다. 그때부터 삶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씨의 경우에는 부인과 아들도 불교를 믿는 불자가정이 됐다.

새벽 5시경, 마침내 부처님 전에 다다른 농아자들은 향을 사르고 촛불을 밝힌 다음 부처님 전에 참배했다. 끝없는 참회기도가 솟구쳐 나왔다.

신태남씨(41)는 "그동안 아내에게 못해준게 몹시 후회가 된다"며 "새해에는 자비심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또 한 회원은 "이렇게 높은 곳에 절을 짓고 부처님을 모신 불심이 너무 놀랍다"며 "불심을 키워 모든 장애를 극복해 나갈 자신감이 생겼다"고 감격해 했다.

한글수화를 주로 타종교인들이 만든 탓에 불교수화용어개발은 매우 미흡한 상태지만 농아자들은 이날 부처님과 수많은 법담을 나눴다. 수화아닌 수화로 말없는 말을 담고 있는 불보살의 손모습(手印: 무드라)은 이들 농아자들에게는 더욱 특별하고 친근한 의미로 다가온다. 현재 불교수화연구원도 운영하고 있는 해성스님은 "수화가 불교에서 나왔다는 말도 전해진다"며 "불교수화 및 전문가 육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한다.

갓바위 성지순례를 마친 불자들은 인근의 은해사와 동화사를 방문후 금강에서 방생법회를 가진 다음 서울로 향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5시간의 밤길을 달려 갓바위에 도착한 청각장애인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환희심을 나눴다.

특별기고

새로운 실크로드와 한국불교

김 양 식 〈한·인 문화연구회장〉

인도의 설화집이나 민화집을 훑어보면 우리가 어려서 듣던 호랑이와 까치, 호랑이와 토끼, 콩쥐팥쥐 등등의 옛날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한데 놀란다.

그런가하면 우리의 생활방식, 특히 가정에서 가족관계가 이루고 있는 끈끈한 유대 등 삶의 생각과 감정 등에서도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인도이다.



바로 지난 며칠전 한국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인도방문이 이루어졌다.

더구나 김영삼대통령은 '신 실크로드'를 열기 위하여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를 제안했고, 양국 정상은 합의를 보았다는 보도다. 욕심같아서는 문화예술의 올바른 교류도 강조되었으면 금상첨화가 아니었을까 한다.

이미 8세기초에 신라의 혜초스님은 성지순례를 위해 인도를 여행했다. 1908년 한 고문서가 발견되면서 세상에 밝혀진 귀중한 역사적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했는지 모른다.

이보다도 훨씬 앞서 우리는 인도와의 교류를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봐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미 가야국 김수로왕에게 그 먼 뱃길을 따라 시집을 온 아유타야왕국의 공주가 있었지 않았던가. 당시 아유타야왕국은 그 땅에서도 가장 왕성한 국력을 펼쳤던 불교대국이었던 사실로 미루어보아 이미 기원전 3세기 전후해서는 이땅에 불교가 전파되어 있었으며, 그 불연(佛緣)으로 말미암아 아유타야왕국의 공주가 가야의 김수로왕에게 시집을 오게 된 것이 사실이었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이처럼 생각할 때, 이땅의 불교 도래연대는 기원전으로 훨씬 거슬러 올라가야 마땅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같이 이루어진 두 왕국의 교류는 양 왕국간의 긴밀한 유대와 신의가 이루어지면서 종교와 사상, 문화와 예술, 의식주의 양식들의 교류가 매우 자연스럽게 또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란 추측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한다.

김대통령의 인도 공식방문은 먼 거리에 서서 바라만 보던 양국의 국민감정의 물꼬를 터놓았다는데 큰 뜻이 있다고 본다.

물론 양국이 직면한 경제 정치 등의 현안문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기원전에서부터 양국간에 이루어진 불교와 그 종교에 따른 사상과 철학 다양한 문화예술의 교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깊고 넓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 내세울 수 있는 문화예술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 역시 불교의 정신문화에서 비롯됐음은 누구도 부인치 못한다.

그러나 오늘날 인도에 있어서의 불교인구는 겨우 1퍼센트에 불과하다. 우리가 인도땅에서 불교와 만날 수 있는 곳은 다만 불교유적지에 남아있는 사원들에 불과하다. 그러한 자리에는 이미 아시아 불교국들이 자국의 불교사원들을 세워 거꾸로 인도땅에서 포교에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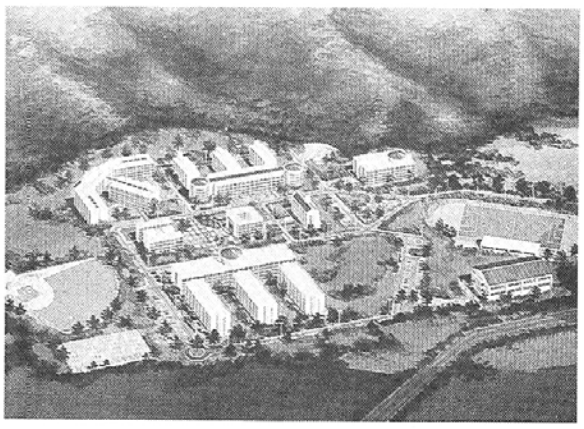
부다가야만 해도 중국, 태국, 스리랑카, 월남, 일본 등의 불교사원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마치 각국의 불교를 인도땅에 역수출하듯이 포교에 힘쓰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것이 일본이다. 넉넉한 자본으로 그들은 절 옆에 병원시설을 갖추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있으며 큰 규모의 숙소를 지어 여행자들의 쉴 곳을 마련하여 주고 있다.

한국불교계에서도 요 몇년간, 적어도 인도땅 4성지에 각각 한국절을 짓고 있다는 기쁜 소식도 있다. 조만간 그 땅에 우리의 절이 지어질 것이다. 그 공간을 통하여 한국불교는 무엇을 어떻게 그곳 인도인들에게 봉사하며 도움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먼저 대승불교사상을 제대로 포교하고 선(禪)불교의 진수를 그 땅 사람들 가슴에 새로운 빛으로 심어주었으면 좋겠다.

현재 인도 인구는 9억에 이른다. 그중 겨우 1%에 지나지 않는 불교인구들과 불교학자들과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유대와 교류가 이루어져야 겠다. 특히 일시적이거나 가시적인 행사위주가 아닌 진심이 담긴 지역사회 포교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국 불교사상의 재정립과 올바른 불교정신문화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인도에 잠재되어 있는 부처님가르침이 21세기 꽃으로 다시 피어나길 발원한다.



◇동국대 21세기 기획단이 최근 교직원, 학생, 동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동국발전을 위해서는 제3캠퍼스 설립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사진은 제3캠퍼스 조감도.)

"제3캠퍼스 설립 우선과제"

직제개편 · 수도권 종합병원 건립 필요

동국대 21세기 기획단 '학교발전' 설문

동국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직제개편, 수도권 종합병원건립, 제3캠퍼스 설립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동국대 21세기 기획단(단장 정병조교수)이 최근 펴낸 동국 21세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서의 동국발전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동국대 교직원 학생 동문등 8백43명의 응답자중 교수와 직원 대부분은 제3캠퍼스 설립을 우선과제로 들었으며 학생들은 직제개편과 수도권 종합병원 건립을 꼽았다.

대학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합리적인 경영관리와 재단전입금 확보라는 대답이 전체 응답자의 75.7%를 차지했다. 이중 교수와 직원들은 대학경영합리화를, 학생들은 재단전입금 확보, 동문은 엄정한 인사관리를 중요한 과제로 지적했다.

학교현황과 관련하여 교수 학생 학교의 수준과 직원들의 업무능력은 대개 '그저 그렇다' '권위적이다'는 평가가 많아 전체적으로 학교에 대한 자긍심 고취및 업무효율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5위권대학과 세계1백위권 진입을 위해 교수평가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41.4%)과 연구하는 학풍을 조성하고 교세를 진흥시키기 위해 우수교원확보가 필요하다(58.9%)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학교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으로는 복지생활시설의 확충및 보완을 많이 지적했다.

김원우 기자

예경 · 헌공 · 천도교육

동산불교교육원 개강

불교의식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동산불교의식교육원 제1기 강좌가 9일 개강한다.

이곳에서는 예경 헌공 법회 천도의식은 물론 결혼과 장례 등 경조사의식 등을 교육한다. 특히 한문으로된 의식문을 우리글로 옮겨 불교의식의 대중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불교의식교육은 각종 불교대학에서 단편적으로 이뤄지긴 했으나 1년의 과정을 두고 중점적으로 교육하기는 동산불교의식교육원(02-732-1206~8)이 처음이다.

목탁소리

임 연 태 〈취재3부 차장〉

진영스님 영전에 분향 올립니다

"산승이 입원하여 병원의 과장님께 전신을 기증하니 연구를 잘 하셔서 의술을 발전시켜 병고를 제하소서 부탁을 하고나니 생사가 하나임이 마음속 역력하고 가지막 가는 길에 또 한번 봉사길이 부처님 은혜로다."

진영스님, 3월의 관악산은 새생명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스님은 이승의 옷을 벗어 두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스님 가시고 안계시는 이 사바세계에는 스님 잃은 슬픔보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보이신 최상승 보시의 유훈이 더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두달의 투병중에도 회고록을 쓰시며 구도자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고 이 나라 의학도들을 위해 육신을 보시하신 스님의 큰 마음은 관악을 뒤덮고 수미산을 넘어섭니다.

범어사 내원암에서 27세의 청솔같은 나이로 무명초(無明草)를 자르시고 운수납자로 제방의 선실을 편력하신 후 관악산 언저리에 보광사 중창을 발원하신지도 어언 13년, 아직 초라한 천막법당은 스님의 소탈한 성품을 닮아 있습니다. 교도소를 찾아 팥죽으로 동짓날을 기뻐하고 군부대를 찾아 책과 과일로 장병들을 격려하시던 스님은 찾아 드는 걸인의 어깨도 다정히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런 스님의 몸에 담낭암의 독초가 자라 기어이 원적에 들게 함은 이승 수행공덕이 넘쳐 다음생의 성불을 속히 성취케 하는 인연법이 아닐런지요.

한양대 의과대 학생들은 스님의 법구(法軀)로 체득한 의술로 세상 병고를 구할 것이니 스님의 보시행은 의학계에 아름다운 이야기로 면면히 전해질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득찬 세상 무덥까지 그 욕심을 안고 가는 뭇 중생들의 가슴에도 스님께서 보이신 무소유의 참뜻이 벽력같이 울릴 것이니 올 봄 관악산 보광사 법당곁에 피어날 만다라 꽃을 기다립니다. 도솔에서 내려오는 국화향기 그윽한 스님의 영전에서 보시공덕의 불가사의를 전하는 스님의 육성을 다시 듣습니다.

"입원을 할 때는 체중이 매일줄고 몸보시 하고나니 이제는 체중 느네 혈압도 정상이요 혈액도 맑아지네 마음이 정상되니 모두가 정상일세" (지난달 24일 입적한 진영스님의 '수미산 나그네의 회고록' 중에서)

불교성지순례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특별 기획상품을 마련하였사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원합니다.

-혜초여행사 임직원 일동 合掌-

대만 성지순례 3박4일
3월 25일 출발 모집중(확정)

특별기획 1 중국 티벳 네팔 9일
- 일 정 : 서울-상해(1)-성도(1)-라사(1)-장체-시가체(1)-라사(2)-카트만두(1)-기내(1)-서울
- 동참금 : 230만원
- 기 간 : (1차) 3월 17일-3월 25일
  (2차) 5월 12일-5월 20일
  (3차) 6월 23일-7월 1일

특별기획 2 중국 불교유적지 13일
- 일 정 : 서울-상해(1)-계림(2)-서안(1)-낙양(2)-용문석굴-소림사-정주(1)-태원-오대산(1)-대동(1)-운강석굴-북경(2)-서울
- 동참금 : 180만원
- 기 간 : (1차) 3월 23일-4월 4일
  (2차) 4월 22일-5월 4일
  (3차) 5월 27일-6월 8일

특별기획 3 중국 불교 성지순례 9일
- 일 정 : 서울-상해-보타산(2)-낙가산-영파(1)-천태산-항주(1)-구화산(2)-소주(1)-상해(1)-서울
- 동참금 : 135만원
- 기 간 : (1차) 4월 8일-4월 16일
  (2차) 5월 25일-6월 2일
  (3차) 6월 20일-6월 28일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각 사찰, 신도회 단체 성지순례, 수시 출발 · 상담환영 (일정조정 가능)

인도 성지순례 9일
- 일 정 : 서울-델리-아그라-바라나시-부다가야-라지기르-나란다-파트나-쿠시나가르-룸비니-발람푸르-기원 정사-델리-서울
- 동참금 : 150만원

스리랑카 성지순례 6일
- 일 정 :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플론나루아-시기리야-덤불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서울
- 동참금 : 118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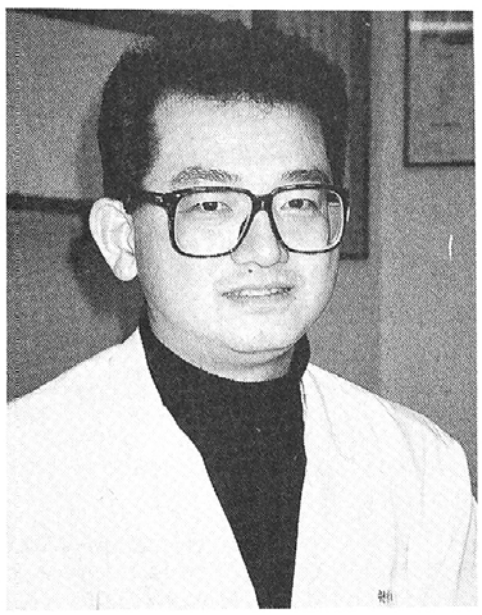
대만 성지순례 5일
- 일 정 : 서울-타이페이-고웅-불광사-화련-타이페이-서울
- 동참금 : 65만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 5일
- 일 정 : 서울-덴파사-족자카르타-보로부드르-자카르타-서울
- 동참금 : 95만원

미얀마 태국 성지순례 8일
- 일 정 : 서울-양곤-파간-만달레이-양곤-페구-양곤-방콕-서울
- 동참금 : 145만원

"영세민 진료통해 이웃사랑"

무료 한방인술 펴는 불자한의사 강재훈씨



◇소외된 이웃을 찾아 한방인술을 펼쳐온 강재훈씨.

"제가 대학(경희대 한의대 82학번)을 다니던 80년대는 정치·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죠. 그당시 저는 학우들과 도서관이 아닌 거리에서 다른 삶을 위한 투쟁을 펼쳤었지만 한계를 많이 느끼곤 했습니다. 못다했던 저의 꿈을 이제는 사회 봉사활동으로 다하고자 나선 것이 무료 한방진료입니다."

강재훈(37, 부산 강재훈한의원 원장)씨에게 있어 무료 한방진료 활동은 소외된 이의 삶과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의 실천과 다르지 않다. 매월 2회에 걸쳐 하는 두송종합복지관(관장 지현스님) 무료진료에는 관내 영세민 50여명이 진료를 신청하는데, 치료시간 외이도 이들과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나누며 그들의 생활이 이내 친숙해진다.

"그분들의 생활에 가까이 가고 싶은 것은, 의료행위라는 물리적 요법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접근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방치료는 인간의 심성을 중히 여겨 그 진료도 직접적·대증적 요법에 앞서 간접적·근본적 방법을 우선시 합니다."

5개월여 동안 꾸준히 해온 무료진료 활동에는 동의대 한의대 재학생과 졸업생들도 함께해 좀더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아직 약재와 의료인원이 부족해 어려운 점도 많다. 진료시 가장 많이 쓰이는 '약침(한약재를 증류시켜 침과 약의 효과를 혼합한 의료기구)' 구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요즘은 진료 전날 아내와 함께 밤을 새우다시피 해 약침을 만든다.

강원장은 또 순수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참된 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라는 단체의 부산지부 회장 일을 맡고 있기도 해 그가 운영하는 한의원은 부업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매월 2회 두송사회복지관 방문 자비 나눠
진료전날 아내와 함께 '약침' 만들며 밤샘

자신의 일에 스스로 상을 내게 될까봐 조심스럽다는 강원장은 "저는 믿음이 돈독한 것도 아니고, 불교의 언저리에서만 맴돈다 할까요. 그러나 앞으로도 소외된 이와 항상 아우르는 생활불교, 실천불교의 믿음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힌다.

부산=박병근 기자

"한일협정은 日침략 면죄부다"

과거청산국민운동본부 6월22일 개정안 발표예정

한일과거청산범국민운동본부와 6·3동지회는 지난 28일 송현클럽에서 한일협정 개정안 요강발표회를 갖고 한일협정 체결 31주년이 되는 오는 6월 22일 한일협정 개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윤 상임의장은 취지문을 통해 "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은 한반도 강점 및 침략전쟁의 책임을 명확히 하지 못한 채 일본에 면죄부를 준 굴욕적인 매국협정"이라며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법률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상범교수(동국대·법학)는 한일협정 개정안에는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모든 문화재의 반환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향상 △식민지배 및 수탈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표현을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직자양성대학원 무효화 추진

범종단 교육개혁대책위 6일 결성

교육개혁위원회의 제2차 교육개혁방안중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 설립의 부당성을 지적해온 교계는 6일 범종단적인 불교대책위원회를 결성한다. 〈관련기사 3면〉

조계종 (가칭)불교대책위는 최극 각 종단에서 가입을 타짐함에 따라 출범일정을 오는 6일로 미루고 조직결성 및 대책위원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따라 태고 천태 진각종등 종단협소속 종단대표자를 비롯 교육관계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의 설립 무효화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4일 교육개혁위원회에 건의서를 낸 동국대 불교대학 서윤길학장에 따르면 청와대관계자와 전화를 통해 "법령시행령 제 31조에 명시된 '신학대학원'을 '종교관련 대학원'으로 변경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포교사 118명에 품수

부산불교교육대학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이하우)은 지난달 24일 오후 3시 제5기 포교사 과정 수료식 및 포교사 품수식을 거행, 조계종 포교사 1백18명을 배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성타스님을 비롯하여 불교교육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禪茶一如의 즐거움 茶園녹우청산 736-3782

'15대총선 어떻게…' 16일 불기협토론회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16일 오후 2시부터 조계사문화교육관에서 '15대총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불교도의 올바른 정치의식 함양과 공정선거 풍토조성을 위해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제 실시 1년과 불교계(심익섭·동국대교수) △선거에 임하는 불교도의 자세(김병준·국민대교수) △불교활동과 선거법 적용(중앙선관위)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비서실장·안기부장등 경질해야"

부불련 7인대책위, '국군중앙교회 예배' 관련 촉구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7인대책위원회(위원장 도봉)'는 지난달 28일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김대통령의 국군중앙교회 방문과 관련 비서실장, 국방장관, 안기부장에 책임을 물어 이들을 경질시킬 것을 요구하고 3월5일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대규모 항의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인대책위는 또 교육개혁위원회가 지난 2월9일 발표한 제2차 교육개혁방안중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제 도입'과 관련해서 이는 실제로 기독교 신학대학 인재양성과 개신교 목사의 대량수급을 위한 국가의 배려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조직개편모임' 구성

전불련, 발전청사진 마련

전국불교운동연합(상임의장 지선)은 지난달 24, 25일 대전 유성에서 제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전불련 조직개편을 위한 논의모임을 구성했다.

'대의원총회 및 불교운동 전진의 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불교계 혁신진영의 통일 및 세력정립의 기초, 교계 혁신진영이 제시하는 정책에 기초한 종합 청사진 마련이라는 활동방향을 정하고, 전불련 조직개편을 논의할 조직개편 추진위원 10인을 선임했다. 또 실천승가회의 전불련 탈퇴안을 동의 하고, 총선출마로 공동의장직 사표를 제출한 이문욱 공동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기독교인과 논쟁후 사찰 사무장 숨져

지난 26일 오후 2시30분경 서울 면목동 소재 법화종 수도암법당에서 이 사찰 사무장 김진수씨(68)가 숨져있는 것을 아들 하연씨(28)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중랑경찰서는 숨진 김씨가 전도하러온 개신교 신도 원모씨(44·여) 등 여자 2명과 논쟁을 벌이다 흥분해 심장마비를 일으켰거나 원씨 등이 밀어 뜨려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27일 부검을 실시,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전국규모 불교청소년단체 추진

조계종 포교원 15개지부 결성키로…포교활성안등 4대 과제 확정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불교청소년의 해'를 맞아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와 양립하는 전국규모의 청소년단체를 추진할 것이라고 지난 24~25일 대구 동화사에서 개최한 청소년 지도사 모임에서 밝혔다.

포교원은 또한 △전국규모청소년단체 육성 △청소년 포교에 대한 인식전환 △청소년 포교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문화사업 추진을 불교청소년의 해 4대 과제로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조직결성과 사업에 착수했다.

특히 불교청소년연합회(가칭)를 이달내로 법인화하기 위해 세부조직으로 전국 15개 시도별 지부, 1백80여개 시군구별 지회, 7천여개의 중고등학교 및 사찰별로 분회를 결성, 전국규모의 청소년단체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포교원은 각 지역별로 사찰, 학교, 청소년단체 및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교구본사 및 지역사암연합회 등과 연대하여 지역 조직위원회를 결성하는 한편 지부 결성의 세부사안은 교구본사 포교국장회의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할 예정이다.

한편 포교원은 시대에 맞는 청소년 포교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지도자 육성을 위해 오는 3월 월간 청소년법회(가칭), 지도자 지침서, 단원수첩, 단원활동집 등을 발간하고 매년 1회이상 불교청소년 지도자 연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통도사 서운암에 불 요사채 2동 전소

경남 양산 통도사 서운암(주지 성파)에서 일요일인 지난달 25일 오후 4시경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 요사채 2동이 전소됐다.

불을 처음 발견한 신도의 말에 따르면 요사채 안쪽에서 연기가 발생한 직후 불이 번졌다는 것이다. 화재가 발생한 직후 양산소방서 소속 소방차가 긴급출동해 화재를 조기에 진압, 다행히 다른 건물로는 불이 번지지 않았다. 서운암은 현재 16만 도자대장경 조성불사가 진행중이다.

청교련 '부여봉사센터' 개원

지회개설 현판식도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부여지회(지회장 정민스님)는 지난 1일 보리사에서 현판식 및 자원봉사센터 개원식을 개최했다.

충청권에서는 최초로 개원되는 자원봉사센터는 보리사내 정보회, 청년회를 비롯 지역내 불자들이 후원회를 조직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자원봉사센터는 상반기 사업으로 길거리 농구대회(5월), 자원봉사활동(수시), 농촌 일손돕기 등을 첫 사업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밖에도 부모 학생 시설(고아원)의 3대가 한가족을 형성하는 인연맺기 운동을 비롯 캠페인, 위문 자선 구호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자원봉사센터 설립을 추진해 온 이선열씨(사무국장)는 "농촌이라는 지역 특수성을 십분발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 할 것"이라며 "농번기 일손돕기, 자연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음 세상이치가 팔만대장경

마음이 있음으로써 태양도 지구도 우리 몸도 형성되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구안에다 육신안에다 마음으로 또 갖가지 정원을 꾸며놓은 것이다. 그러기에 이 세상 이치가 그대로 팔만대장경이요 진리라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생활을 떠나서는 진리를 찾아 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웃고 웃는 생활속에서 자기 자신이 실체로서 있는지 살펴보라. 〈한마음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대구 공명선거협의회 발족

고발창구등 운영…불교단체 참여 활발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시민단체협의회(회장 이정환) 발대식 및 결의대회가 지난 28일 오후 7시 원불교 대구경북구청 법당에서 불교인권위원회 대구지부, 원불교 대구청년회, 대구불교산악회, 대한불교대불회, 대구경실련,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흥사단, 대구여성회 등 12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공선협은 부정선거 고발창구 운영, 공명선거를 위한 영호남 유권자대회, 공명선거 캠페인 등을 벌일 예정이다.

중·고 교원 9명 임용

동국학원 이사회

동국학원(이사장 녹원)은 지난 21일 제 1백38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96년도 새해예산 1천6백여억원을 심의 통과하고 중·고등학교 신규교원 9명을 임용했다.

한편 동국대 임기중 연구교류처장의 재임용은 유보됐다.

종교편향문구 공문 부천원미구청 '사과'

공문서에 특정종교의 문안을 사용, 불교계의 반발을 빚었던 부천시 원미구청측이 지난달 14일 사과의 뜻과 함께 담당공무원에게 주의·훈계로 문책했다고 밝혔다.

대중불교 3월호

대중불교의 빛을 찾아서
대구 삼영불교서점 / 이승환 회장 · 14
쇠북소리 · 선거와 거짓말 / 임헌영 · 10
귀담아 듣고 새겨볼 이야기
"최고급 승복 주문받음"이라 / 김정자 · 12
대중불교시사
서면 인터뷰 · 서석재/추미애/이문옥/조순환 · 48

진단 / 직장직능불교 현황 · 76
취재 · 조계종과 선학원 꼭 갈라서야 하나 · 82

기획 / 극에 달한 종교 편향
한계에 이른 종교갈등과 그 책임 · 38
종교편향, 대통령이 부추긴다 · 42

불교교리 산책 · 유식(2)상식과 유식 / 정승석 · 24
선화일편 · 금강산(金剛山)이야기 / 설산 · 34
우리 절의 신행, 이렇게 한다 · 고통에서 행복으로/ 현장 · 72
해외불교석학열전(3)
알렌 와츠(Alan Watts)/ 정희수 · 94

칼라화보
원성스님의 동심의 노래②봄의 향연 / 원성 · 53
구산선문(6)사굴산문 굴산사터 · 54
얼과 문화 · 함평 고막다리 · 60

첫 개인전 여는 석정스님 · 64
해외불교 · 몽골불교가 위기를 맞고 있다/김선정 · 86
산천기행 답사기
- 선인들의 자취를 찾아 떠나는 즐거움 · 66

◀3월, 효림스님과 함께 떠나는 '대중불교 산천기행'

남한강변의 폐사지와 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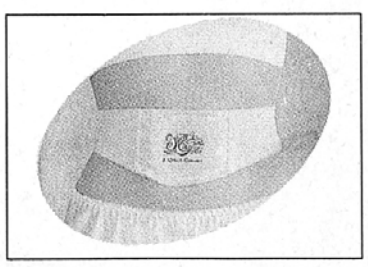
인연의 땅, 원력의 땅을 찾아가는 대중불교의 산천기행이 답사 문화의 새로운 장을 마련합니다. 함께 배우고 불심을 키워 갈 마음이 젊은 모든 불자를 환영합니다.

■가는 곳 - 폐사지의 하일라이트 / 여주 고달사지, 원주 흥법사지, 법천사지, 거돈사지, 신륵사, 구룡사 등의 폐사지와 절들
■기 간 - 1996년 3월 9~10일(1박 2일)
■모이는 곳 - 압구정동 현대 백화전 야외 주차장 (오후 3시 출발)
■참 가 비 - 55,000원(대학생 50,000원, 초중고생 40,000원)
■접 수 - 전화(02)752-7047, 764-1614

은행지로번호 국민은행 098-01-0236-597 김판등(산천기행)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2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건강백세 ⑤

눈병의 처료

영양결핍 특히 비타민A의 부족은 야맹증, 결막건조증, 각막건조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기타 매독이나 결핵으로 인해 각막실질염(角膜實質炎)이나 홍채염(虹彩炎)을 야기하는 수기 있어서 해당질환을 철저히 치료할 필요가 있다.

노화나 당뇨병 또는 외상성의 후유증으로 안구의 맑은 수정체에 혼색결함이 생겨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백내장도 요즘은 수술요법의 발달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한방에서는 삼황사심탕(三黃瀉心湯)으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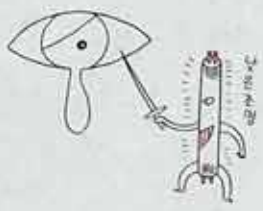
녹내장(綠內障)은 안압이 상승하여 시신경이 상하고 시력이 저하되어 시야결손을 가지고 온다.

당뇨병이나 신장염, 고혈압, 결핵, 매독 등이 원인이되어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중심성망막염(中心性視網膜炎)은 망막이 혼탁해지는 것으로 망막안의 혈관이 경화 또는 파열되어 발생한다.

눈은 양(陽)의 결집체라고 볼 수 있어 열독(熱毒)을 근본적으로 싫어한다. 헬렌켈러가 열병을 앓은 후 실명했었다든지, 부자(附子)등 열성약물로 인해 약시 또는 실명이 되는 등의 예로 잘 설명되어진다. 독서시의 거리나 근거리 TV시청이 시시나 난시가 된다는 등 입증되지 않은 잘못된 상식이 범람하여 주의가 요망되며, 오히려 낮은 조도(照度=참고로 일광의 조도는 10만룩스)와 불안한 조명이 가성근시(假性近視)나 가성난시(假性亂視)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되는바 학생들이나 장시간 조명하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눈은 인체중 혈관이 천재(淺在=얕게)하고 있어서 생체상태가 빨리 반영된다. 한의학에서는 눈만 가지고도 오장육부(五臟六腑) 전체를 진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눈동자는 신장(腎臟)과 간장(肝臟)의 기능이 직접 반영되어 중요한 예후(豫後)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눈물은 최상의 안약이다.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눈물을 짤 줄 흘리는게 최선이다. 요즘 눈물이 때말라 간다고 개탄을 하고 있다.살벌하고 냉혹해진 세태를 말한다.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소중한 만남 ①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본사 사장상〉



그림 · 이준석

이렇게 예쁜 우리 딸이 자폐아라니…
앞으로 다른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갈
까마득한 날들을 어찌해야 한단말인가

자는 병원에서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정서면에서 행동면에서 전반적인 발달면에 장애를 갖고 있는 딸을 키우는 한 가정의 주부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도 밖으로 나타는 증상을 통해서 문제시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지극히 건강한 우리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더우기 한참동안 기다리던 첫 아이여서 무척이나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일은 매우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감정이 지나치리만치 예민해서 환경이 조금만 바뀌거나 주위가 시끄럽기만해도 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집안에 낯선 사람이 오거나 여러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싫어했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반면에 엄마에대한 집착이 강해서 엄마를 늘 곁에 두지 않으면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기억력은 놀랄 정도로 뛰어나서 한번 가르쳐준 글자나 숫자, 물건, 사람 등을 한번의 실수도 없이 구별해 냈습니다. 반면에 말을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엄마인 줄을 알면서도 '엄마'라고 부르질 않았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혼자서 중얼거릴 뿐 상대방과 대화할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었던 저는 세상의 엄마들이 다 이렇게 힘들게 아이를 키우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제 스스로 안정을 찾으리라고 자신을 위로했지요.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엔 혹시 우리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다섯 살이 되어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시켜 보라고 유치원을 보내고부터 이렇게 기다리기만해서는 안될 일이라는 생각에 병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을 다닌지 한달 두달이 지나도 그 또래 아이들과는 너무도 다르게 한 구석에서 그냥 울거나 우두커니 앉아 있기만 할뿐 전혀 적응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병원 저 병원 검사란 검사는 모두 받아 보았지만 검사상 나타나는 이상은 없었습니다.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찾아간 곳은 결국 소아정신과였습니다.

정서장애, 발달장애, 행동장애, 자폐증… 도대체 자폐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소하기만 했습니다. 얼마간 치료를 하면 깨끗이 나아지는 병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폐증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사회성이 결여되어 사회적 적응이 어렵고 자기 세계에 빠져 일상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상적인 발달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 저해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사회에 적응을 해서 정상적인 발달을 지속해야 원만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것임에도 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심하게 일탈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발달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우기 고도로 발달된 현대의 학도 그 원인을 아직 밝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난감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우리 딸이 자폐아라니…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가 어렵다니…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모두가 다른 사람과 부딪치며 배우고 느끼며 성장해 나가야 할 까마득한 날들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앞이 캄캄했습니다.

몸 속의 피가 모두 바짝바짝 말라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가 점점 성장해 감에 따라 외형상 나타나는 장애보다도 문제는 더 크고 심각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다른 아이가 들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어느새 뺏아버리기 일쑤고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복잡하면 울고 아무데나 앉겠다고 떼를 쓰고 매사가 그런 식이었습니다. 기분이 좋다가도 갑자기 짜증을 내고 아무때나 울곤 했습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다니는 것같았습니다. 멀쩡하게 생긴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니 엄마를 보는 주위의 시선이 곱지 않은 건 당연했습니다.

조기 특수교육, 음악치료, 놀이치료… 아이가 나아지기만 한다면 무엇인들 못하랴 싶었습니다. 하루종일 아이에게 매달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교육을 받은 후 많은 발전이 있는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좌절감이란 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학교에서도 적응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업 중에 행방불명이 되어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고… 한 시도 눈 밖에서 떼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장애아라는 현실을 받아들여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니 효과도 나타나지 않아 좌절하게되고 아이에 대한 감정도 분노와 동정심의 악순환이 계속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캄캄한 절망뿐인 심정을 느껴 보셨는지요?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심한 우울증까지 겹쳤습니다. 아이를 잘못 양육했다는 자책감으로 괴로움은 더했습니다.

김영미 〈경기도 화성시 감일동〉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㉖

PARABHAVASUTTA

So it was heard by me :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 At one time Bhagavat dwelt at Savatthi, in Getavana, in the park of Anathapindika. Then when the night had come, a certain deity of a beautiful appearance, having illuminated the whole Getavana, went up to Bhagavat, and having approached and saluted him, he stood apart, and standing apart that deity addressed Bhagavat in stanzas:

어느 때 거룩하신 스승께서는 사밧티의 제타 숲,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장자의 동산에 계시었다. 한 밤중에 이르러 용모가 아름다운 한 신이 제타 숲을 두루 비추면서 스승께 가까이 다가왔다. 스승께 예배드린 후, 한쪽에 서서 시로써 호소하였다.

♦ 'He who although counterfeiting the virtuous is forward, disgraces families, is impudent, deceitful, unrestrained, a babbler, walking in disguise, such a one is a maggadusin (that is, defiling the way).' (88)

"행세한 계율을 잘 지키는 체하지만, 고집세고 가문을 더럽히며, 오만하고 남을 속이며, 자제력이 없어 수다쟁이며 잘난 체하는 사람을 가리켜 '도를 더럽히는 자'라고 한다."

♦ 'He who has penetrated these (four Samanas), who is a householder, possessed of knowledge, a pupil of the venerable ones, wise, having known that they all are such,-having seen so, his faith is not lost ; for how could he make the undepraved equal to the depraved and the pure equal to the impure?' (89)

"학식이 있고 총명한 재가(在家) 신도는, '그들 네 종류의 수행자는 다 이와 같다'고 알아, 그들을 통찰하여 그와 같이 보더라도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는 더럽혀진 것과 더럽혀지지 않은 것, 청정한 이와 청정하지 않은 자를 혼동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define (~을) 더럽히다
*householder 재가(在家)신도
* parabhava 파멸, 패배 (빠알리어)

오중욱 기자

고행자 ㊽

타고르 作

1996 문학의 해 |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꽃과는 처녀들이 노래하며 들어온다.)

근심, 걱정짓든 시간은 지나가네.
빛 가운데 핀 꽃들은
시들어 그늘 속에 떨어져가고,
사랑하는 사람 위해 아침의 시원함 속
나는 화환을 엮으리라 생각했지요.
꽃도 따지 못한 채 아침은 지나가고
사랑이신 나의 님은 가버렸지요.

고행자 한낮이군. 태양은 정말 강렬해져 간다. 하늘은 마치 새빨갛게 달아오른 놋대접을 엎어놓은 것 같구나. 대지는 뜨거운 한숨을 몰아쉬고 회오리바람에 모래는 춤추며 말려오른다. 인간의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나는 보고 말았다! 나는 어찌하여 다시금 이러한 인간들의 작은 세상으로 되돌아와 그들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아니지, 나는 자유다. 내 주위에는 세상이라는 거추장스러운 것은 없다. 나는 청정한 고요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소녀 봐산띠와 한 여인 등장)

여 인 소녀여, 너는 로구후의 딸이 아니더냐? 너는 이 길을 비껴가야 된다. 이 길은 사원으로 가는 길이란 것을 모르느냐?

봐산띠 저는 이 길의 제일 가장자리로 걷고 있어요, 마님.

여 인 허나 네 사리의 옷자락이 내게 닿은 것 같았는데 나는 여신께 바칠 공양물을 갖고 가는 길이다. 그러니 공양물이 더럽혀지면 않되니까 말이다.

봐산띠 그렇지만 남들이 모두 말하듯이 저는 더럽습니다.

고행자 허나 그들 또한 모두 더럽혀져 있단다. 그들은 그들의 존재의 먼지 속을 뱀들고 있지. 다만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이 사바세상을 씻어내리는 사람만이 깨끗한 것이란다. 그래 너는 무엇을 했단 말이더냐, 아가야.

봐산띠 돌아가신 우리 아빠는 남들이 지키는 규율과 신들을 거역했답니다. 또 아빠는 의식도 지키지 않았답니다.

고행자 너는 어찌하여 내게서 멀리 떨어져 서 있느냐?

봐산띠 제게 손을 얹어주실 건가요?

고행자 그렇구말구. 사실은 그 무엇도 나를 건드릴 수 없지. 나는 언제나 영원 가운데 있는 것이기에. 네가 원한다면 이리 가까이와서 앉거라.

봐산띠 (갑자기 울기 시작하면서) 제가 어르신네 옆에 앉은 다음에는 잘대로 가라고는 하지말아 주세요.

고행자 눈물을 닦거라, 아가야. 나는 고행자이라. 내 마음 속에는 미움도 없으며 애착도 없느니 나는 너를 나의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내게 있어 너는 이 푸른 하늘과 같구나.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이 사바세상을 씻어내는 사람만이 깨끗한 것이란다"



그림 · 심민섭

소녀는 작은 머리밑에 팔베개를 고이고 잠들었구나. 나는 이제 이 아이를 두고 가야겠군. 그러나 소심한 자여, 너는 도망쳐 버려야만 하는가. 이 작은 것으로부터 도망쳐야만 하는가. 이는 자연의 거미집이며 이는 다만 나방에게나 위험할 뿐 나같은 고행자에게는 아닌 것이다.

봐산띠 (놀라 잠을 깨며) 저를 남겨두고 떠나시나요 어르신네여? 아주 가버리고 마는 것인가요?

고행자 어찌해서 나는 너에게서 떠나야하는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그립자를 두려워하는 것인지?

봐산띠 길거리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시나요?

고행자 그러나 고요함은 내 영혼 안에 있는 것. 〈계속〉

생활 속의 불교 ㊹

형상을 떠나 마음에 개금불사를 하라

고려 말의 호국충신 최영 장군이 평생 좌우명으로 간직했던 말은 '황금 보기를 돌 같이 하라'였다. 황금을 탐욕의 상징으로 보고 늘 무욕(無慾)의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다. 고려의 국교가 불교였으니 그 또한 독실한 불자였을 것이고 불자인 이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했을 것이다.

양(梁)나라의 무제(武帝)는 달마대사를 만나자마자 자신이 힘써온 거국적 규모의 불사를 자랑하면서 그 공덕이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다. 그러자 달마대사는 '없다!'고 대답한다. 왜인가?

달마대사의 일갈 속엔 무주상(無住相)의 법문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 「양무제! 그대가 공덕을 쌓는다는 생각에서 불사를 했으니 아무리 많은 사찰을 건립하고 법당을 장엄케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상을 키운 것일 뿐 부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마음 닦기엔 단 한 치의 진보도 없노라. 그러니 공덕은 무슨 공덕이랴?」

어느 때 인도의 아사세 왕이 부처님을 청해 공양을 올린 후 부처님께서 기원정사로 돌아 가시는 길을 밝히기 위해 수많은 등불을 켜 놓았다. 그것을 본 난타라는 노파도 감격한 나머지 구걸한 돈으로 기름을 사서 등 하나를 밝혀 놓았다. 새벽이 되자 아사세 왕의 등불은 기름이 떨어져 꺼져 갔으나 난타의 등은 여전히 밝았다.

날이 밝아오매 목련존자가 이를 끄려 했지만 오히려 더욱 밝아졌는데 그것을 보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위신력으로는 끌 수 없다.' 하시며 이 노파는 30겁 후에 부처가 되리라 수기하셨다.

그 유명한 빈자일등(貧者一燈) 이야기이다. 왕은 돈이 많아 수많은 등 공양을 했지만 거지 노파는 부처님을 뵙고 감격하여 마음의 등을 밝혔기에 공덕이 왕보다 수승했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는 이야기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복을 짓는다.' '공덕을 쌓는다.'는 말에 익숙해져 있다. 보시 많이 하고, 공양 자주 올려야 복덕이 높이높이 쌓인다고 믿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 복덕은 어디에 쌓이는가? 서방정토일까, 극락세계일까?

또 그 복덕은 언제 되찾을 수 있는가? 내세일까, 현세일까?

또 그 복덕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일까? 극락 세계를 가는 승차요금으로 쓰일까, 아니면 은행 예금처럼 찾고 싶을 때 찾아 쓰는 것일까?



부처님께서는 평생 동안 숲에 머무시며 탁발과 분소의만으로 지내셨다. 겉 모습으로 말하면 거지 중에 상거지 같은 생활을 하셨는데 그렇게 사신 부처님께서 과연 황금을 좋아하셨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불사(佛事)로 장엄케 하는 것조차 원치 않으셨다. 심지어 '나를 의지처로 삼지 말고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하셨다. 다름 아닌 '네 마음에 집중하여 거기서 진리를 깨달아라.' 하신 것이다. 그러니 마음이 아니고 형상이라면 만불·만등 불사인들 공덕이 있을 것이며 황금 불사인들 공덕이 되겠는가?

부처님의 거룩하심에 감동했다면 그분이 직접 보여 주시고 가르치신 대로 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을 따른 역대 조사들이 초개 같이 몸을 던져 공부하신 게 송고해 보이고 존경스럽다면 그분들이 하신 대로 따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참 불자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도 역대 조사님도 마음에 불을 밝히고 마음에 개금불사(開金佛事)를 하라고 하셨지 아상을 자극하는 형상을 권하는 말씀은 한 마디도 하신 적이 없다.

경전마다에는 '사구게' 하나만이라도 수지한다면 그 공덕은 칠보를 수미산만큼 공양하는 것보다 크다.'고 쓰여 있다.

협찬 : 안택순 · 강홍자 · 안소현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禪茶一如의 즐거움
茶園 녹수청산
주소: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6-37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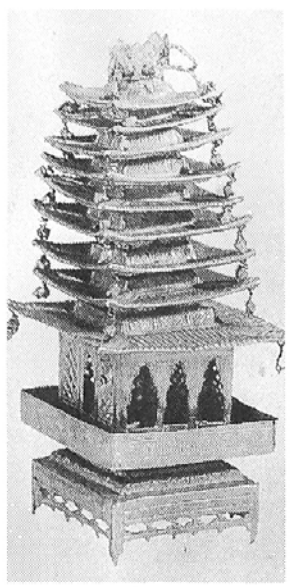
현대불교

법공양판 (복지법인 승가원) 18~19면
방송·연예 20면

불교문화재 왜색 그늘 벗는다



◇경기 파주 용미리석불입상(보물 제93호)은 고려시대 마애불상으로 천연암벽을 몸체로 삼아 그 위에 목·머리·갓등을 만들어 얹어놓은 거불(巨佛)로 불상 옆에 명문이 남아있어 귀중한 문화재로 꼽히고 있다.



◇경기 남양주 수종사부도내유물(보물 제259호)은 수종사 석조부도 중수때 발견된 고려시대 것으로 금동구층소탑(사진)과 은제도금육각감, 철자호가 포함돼 있다. 구층소탑은 격자문 및 난간형 등을 음각으로 표현한 뛰어난 예술미를 자랑하고 있다.

성보 252건등 국보·보물 503건 재평가

명칭·등급·가치·왜곡여부 고증통해 조정

문체부가 일제지정 문화재에 대한 전면재평가에 나섬으로써 불교관련 문화재의 재평가에 따른 불교역사의 일제잔재 청산작업이 이루어지게 됐다.

문체부 8월까지 실사

둔체부는 지난 달 23일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를 재평가실무위원과 평가기준, 방법, 일정 등을 확정 발표하고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에 나섰다.

특히 이번 일제지정 문화재 재평가 작업에서 전체 503건중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문화재가 재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불교계도 이번 기회를 통해 일제통치기간동안 왜곡됐던 '불교역사 바로세우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일제때 지정된 불교문화재는 국보47건, 보물 198건, 사지 6건 사적 1건 등 모두 2백52건. 이를 분류별로 보면 △목조건조물은 무위사 극락전(국보13호)등 국보 13건과 봉정사 대웅전(보물55호)등 보물15건 △석조건조물은 원각사지 10층석탑(국보2호)등 국보 23건과 법주사 사천왕석(보물15호)등 보물 162건 △전적·고문서는 해인사 대장경판(국보32호)과 송광사 대반열반경소(보물90호)등 보물 9건 △회화는 부석사 조사당벽화(국보46호) △공예는 상원사동종(국보36호)과 갑산사동종(보물88호)등 보물 5건 △조각은 불국사 금동비로사나불좌상(국보26호)등 국보 8건과 실상사 철제여래좌상(보물41호)등 보물 7건 △사지는 황룡사지등 5건 △사적 및 명승은 경주불국사경내 등이다.

문화재위원회가 정한 재평가항목은 문화재 지정명칭 및 등급의 경우 △일본식표현 △부적절한 명칭 △역사왜곡 △불합리한 등급지정 등이며, 문화재 가치평가기준은 △우리역사와 무관한 유적 △가치평가 왜곡 △지정사유 타당성 결여 등 3개 항목이다.

이를 토대로 문화재관리국은 평가대상문화재를 모두 14개 군으로 나눠 각 군별로 관련 문화재위원과 문화재 전문위원 2~3인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어 오는 8월까지 철저한 재평가를 위한 사전조사를 할 예정이다. 그후 분과위원회 심의(9-10월)와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11-12월)를 거쳐 문화재 지정해제, 지정명칭 변경, 등급 유지및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계는 불교가 호국의 이념을 이어오면서 민족정신을 고취시켜왔고, 예술적 가치와 희소성을 지닌 목조·석조건조물이 많다는 점, 또 기법상 특이성과 시대별 대표성을 지닌 공예·조각품이 많은 점에 비추어 이번 재평가작업에서 상당수 문화재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함께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에 일단은 환영하면서도 지난 88년 문화재 재평가작업을 벌이다 객관성 확보등의 문제로 시행이 중단된 것을 예로 들면서 지정해제, 등급조정 등의 조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평가작업 신중기해야

문화재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재평가대상 문화재중 왜색명칭을 갖고 있는 일부 문화재를 제외하고는 다소간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일본인들에 의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거나 잘못 규정된 우리 문화유산을 우리 시각에서 새롭게 평가해 보자는 것이 이번 작업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재평가위원은 △1분과 문명대(동국대 교수), 주남철(고려대 교수), 김주태(문화재전문위원)등 11명 △2분과 임창순(태동고전연구소장), 정양모(국립중앙박물관장)등 10명 △3분과 최영희(한림대 교수) 이원순(국사편찬위원장)등 15명 △5분과 김윤식(고려대 교수), 우한정(자연보존협회 사무총장)등 8명이다.

한명우 기자

일제 지정 불교문화재(목·석조건조물)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국보 2	원각사지 10층석탑	서울 종로구	보물 104	보원사지 5층석탑	충남 서산군
국보 4	고달사지부도	경기 여주군	보물 106	보원사 법인국사보승탑	충남 서산군
국보 5	법주사 쌍사자석등	충북 보은군	보물 106	보원사 법인국사보승탑비	충남 서산군
국보 7	봉선홍경사비갑	충남 천안시	보물 107	보광사 중창비	충남 부여군
국보 8	성주사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충남 보령군	보물 108	부여정림사지 석불좌상	충남 부여군
국보 9	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	충남 부여군	보물 111	개선사지 석등	전남 담양군
국보 10	실상사 백장암 3층석탑	전북 남원군	보물 115	안동이천동 석불상	경북 안동시
국보 11	미륵사지 석탑	전북 익산군	보물 116	영주석교리 석불상	경북 영풍군
국보 12	화엄사 각황전앞석등	전남 구례군	보물 118	상주증촌리 석불입상	경북 상주시
국보 13	무위사 극락전	전남 강진군	보물 119	상주북봉리 석불좌상	경북 상주시
국보 14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경북 영천군	보물 120	상주증촌리 석불좌상	경북 상주시
국보 15	봉정사 극락전	경북 안동군	보물 121	굴불사지 석불상	경북 경주시
국보 17	부석사 무량수전앞석등	경북 영풍군	보물 122	경주두대리 마애석불입상	경북 경주시
국보 18	부석사 무량수전	경북 영풍군	보물 123	경주보문리 당간지주	경북 경주시
국보 19	부석사 조사당	경북 영풍군	보물 125	무장사지 3층석탑	경북 경주시
국보 20	불국사다보탑	경북 경주시	보물 126	무장사지 3층석탑	경북 경주시
국보 21	불국사 3층석탑	경북 경주시	보물 127	경주삼랑사지당간지주	경북 경주시
국보 22	불국사 연화교칠보교	경북 경주시	보물 128	반야사 원경왕사비	경남 합천군
국보 23	불국사 청운교백운교	경북 경주시	보물 129	원공사지 3층석탑	경남 합천군
국보 35	화엄사 4사자 3층석탑	전남 구례군	보물 132	화엄사 동5층석탑	전남 구례군
국보 40	정혜사지 13층석탑	경북 경주시	보물 133	화엄사 서5층석탑	전남 구례군
국보 41	용두사지 철당간	충북 청주시	보물 135	석조부도	대구 북구
국보 44	보림사 3층석탑 및 석등	전남 장흥군	보물 136	경주 남산 미륵곡 석불좌상	경북 경주시
국보 47	쌍계사 진감선사대공탑비	경남 하동군	보물 137	봉림사 지증대사적조탑	경북 문경군
국보 48	원정사 팔각9층석탑	강원 광창군	보물 138	봉림사 지증대사적조탑비	경북 문경군
국보 49	수덕사 대웅전	충남 예산군	보물 139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강원 평창군
국보 50	도갑사 해탈문	전남 영암군	보물 143	개심사 대웅전	충남 서산군
국보 52	해인사 장경판고	경남 합천군	보물 144	통도사 대웅전	경남 양산군
국보 53	연곡사 동부도	전남 구례군	보물 145	용문사 대웅전	경북 예천군
국보 54	연곡사 북부도	전남 구례군	보물 146	관룡사 약사전	경남 창녕군
국보 55	법주사 팔상전	충북 보은군	보물 150	중주반죽동 당간지주	충남 공주시
국보 56	송광사 국사전	전남 순천시	보물 151	연곡사 3층석탑	전남 구례군
국보 57	쌍봉사 철감선사탑	전남 화순군	보물 152	연곡사 현각선사탑비	전남 구례군
국보 59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비	강원 원주시	보물 153	연곡사 동부도비	전남 구례군
국보 62	금산사 미륵전	전북 김제군	보물 154	연곡사 서부도	전남 구례군
국보 64	법주사 석연지	충북 보은군	보물 155	보림사 동부도	전남 장흥군
국보 67	화엄사 각황전	전남 구례군	보물 156	보림사 서부도	전남 장흥군
보물 3	원각사비	서울 종로구	보물 157	보림사 보조선사 창성탑	전남 장흥군
보물 4	중초사지 당간지주	경기 안양시	보물 158	보림사 보조선사 창성탑비	전남 장흥군
보물 5	중초사지 3층석탑	경기 안양시	보물 159	방어산 마애불	경남 함안군
보물 6	고려동경대사자등탑비	경기 여주군	보물 161	정수사 법당	인천 강화군
보물 7	고달사 원종대사 혜진탑	경기 여주군	보물 162	장곡사 상대웅전	충남 청양군
보물 8	고달사지 석불좌	경기 여주군	보물 164	천령사 회전륜	경북 문경군
보물 9	서봉사 현오국사탑비	경기 용인군	보물 169	봉암사 3층석탑	경북 문경군
보물 14	청성사 진각국사 대직원조탑비	경기 수원시	보물 170	쌍봉사 철감선사탑비	전남 화순군
보물 15	법주사 사천왕석등	충북 보은군	보물 171	봉암사 정진대사원오탑	경북 문경군
보물 16	억정사 대지국사비	충북 충주시	보물 172	봉암사 정진대사원오탑비	경북 문경군
보물 17	정토사법경대사자등탑비	충북 충주시	보물 173	망해사지 석조부도	경남 울산시
보물 22	금산사 노주	전북 김제군	보물 178	전등사 대웅전	인천 강화군
보물 23	금산사 석련대	전북 김제군	보물 179	전등사 약사전	인천 강화군
보물 24	금산사 혜덕왕사 진응탑비	전북 김제군	보물 180	신륵사 조사당	경기 여주군
보물 25	금산사 5층석탑	전북 김제군	보물 181	잠폭사 하대용전	충남 청양군
보물 26	금산사 석종	전북 김제군	보물 185	무량사 5층석탑	충남 부여군
보물 27	금산사 육각다층석탑	전북 김제군	보물 186	경주 남산 용장사곡 3층석탑	경북 경주시
보물 28	금산사 당간지주	전북 김제군	보물 187	경주 남산 용장사곡 석불좌상	경북 경주시
보물 29	금산사 심원암화강3층석탑	전북 김제군	보물 189	송림사 5층전탑	경북 칠곡군
보물 30	만복사지 5층석탑	전북 남원시	보물 190	거돈사 원공국사 승묘탑	서울 종로구
보물 31	만복사지 석좌	전북 남원시	보물 191	보현사 남원대사 오진탑	강원 강릉시
보물 32	만복사지 당간지주	전북 남원시	보물 192	보현사 남원대사 오진탑비	강원 강릉시
보물 33	실상사 수철화상능기보월탑	전북 남원시	보물 193	문문사 금당앞 석등	충남 청양군
보물 34	실상사 수철화상능기보월탑비	전북 남원시	보물 197	창암 석조삼존불입상	충북 청주시
보물 35	실상사 석등	전북 남원시	보물 198	경주 남산 불곡석불좌상	경북 경주시
보물 36	실상사 부도	전북 남원시	보물 199	경주 남산 신선암 마애석불	경북 경주시
보물 37	실상사 3층석탑	전북 남원시	보물 200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석불	경북 경주시
보물 38	실상사 증각대사응료탑	전북 남원시	보물 201	경주 남산 탑곡마애조상군	경북 경주시
보물 39	실상사 증각대사응료탑비	전북 남원시	보물 203	청도 박곡동 석조삼존좌여래상	경북 청도군
보물 40	실상사 백장암 석등	전북 남원시	보물 212	관룡사 대웅전	경남 창녕군
보물 42	용담사지 석불입상	전북 남원시	보물 215	백련사 구기 마애석가여래상	서울 서대문구
보물 43	만복사지 석불입상	전북 남원시	보물 216	법주사 마애여래의상	충북 보은군
보물 45	익산연동리 석불좌상	전북 익산군	보물 217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충남 부여군
보물 46	익산고도리 석불입상	전북 익산군	보물 218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충남 논산군
보물 47	성주사지 석3층석탑	충남 보령군	보물 219	개태사지 석불입상	충남 논산군
보물 48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전남 해남군	보물 220	영주 북지리 석조여래좌상	경북 영주시
보물 53	개심사지 5층석탑	경북 예천군	보물 221	영주 가흥리 마애삼존불상	경북 영주시
보물 54	고령 지산동당간지주	경북 고령군	보물 222	합천 치인리 마애불입상	경남 합천군
보물 55	봉정사 대웅전	경북 안동시	보물 223	도피안사 3층석탑	강원 철원군
보물 58	안동안기동 석불좌상	경북 안동시	보물 225	신륵사 다층석탑	경북 경주시
보물 59	속수사지 당간지주	경북 안동시	보물 226	신륵사 다층전탑	경북 경주시
보물 60	영주리 석불입상	경북 영주시	보물 228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경북 경주시
보물 61	불국사 사리탑	경북 경주시	보물 229	신륵사 보제존자석종비	경북 경주시
보물 62	경주 서악리 마애석불상	경북 경주시	보물 230	신륵사 대장각기비	경북 경주시
보물 63	경주배리석불입상	경북 경주시	보물 231	신륵사 보제존자석조앞석등	경북 경주시
보물 69	망덕사지 당간지주	경북 경주시	보물 232	관촉사 석등	충남 논산군
보물 71	한안 대산리석불	경남 함안군	보물 233	쌍봉사 석등	전남 화순군
보물 72	단속사지 동3층석탑	경남 산청군	보물 235	장의사지 당간지주	경남 산청군
보물 73	단속사지 서3층석탑	경남 산청군	보물 236	미륵사지 당간지주	전남 익산군
보물 74	통도사 국장생석표	경남 양산군	보물 242	개목사 원통전	경남 양산군
보물 75	창녕 송현동 석불좌상	경남 창녕군	보물 243	동화사입구 마애불좌상	대구 동구
보물 76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	강원 춘천시	보물 244	동화사 비로암 석지로마애불상	대구 동구
보물 78	거돈사원공국사 승묘탑비	강원 원주시	보물 245	오봉동 석조석가여래좌상	경북 금릉군
보물 80	흥천사명리 당간지주	충북 충주시	보물 246	고려사 석조석가여래좌상	경북 의성군
보물 81	한송사지석불상	강원 강릉시	보물 247	동화사 비로암 3층석탑	대구 동구
보물 82	강릉대창리 당간지주	강원 강릉시	보물 248	동화사 금당암 3층석탑	대구 동구
보물 83	강릉수문리 당간지주	강원 강릉시	보물 249	부석사 3층석탑	경북 영주시
보물 84	신복사지 석불좌상	강원 강릉시	보물 250	빙어사 3층석탑	경북 봉화군
보물 85	굴산사지부도	강원 강릉시	보물 251	선봉사 대각국사비	경북 영일군
보물 86	굴산사지 당간지주	강원 강릉시	보물 252	보경사 원진국사비	경북 경주시
보물 87	신복사지 3층석탑	강원 강릉시	보물 253	청탑사석등	경북 영덕군
보물 88	도갑사 석조대좌상	전남 영암군	보물 254	통화사 당간지주	경북 경주시
보물 89	과주 용미리 석불입상	경기 파주군	보물 255	부석사 당간지주	경북 경주시
보물 93	과천마륵리 석불입상	충북 충주시	보물 256	갑사 철당간 및 지주	충남 공주시
보물 96	괴산외사리 석불입상	충북 괴산군	보물 257	갑사부도	충남 공주시
보물 97	괴산 원풍리 마애불좌상	충북 괴산군	보물 258	석조부도	경북 영주시
보물 98	충주철불좌상	충북 충주시	보물 263	송광사 하사당	경북 칠곡군
보물 99	천흥사지 당간지주	충남 천안시	보물 264	해인사 석조여래입상	경남 합천군
보물 100	안국사지 석불입상	충남 당진군	보물 265	청탑사 석조석가여래좌상	경북 영주시
보물 101	안국사지 석탑	충남 당진군	보물 266	청탑사 3층석탑	경북 영주시
보물 102	보원사지 석조	충남 서산군			
보물 103	보원사지 당간지주	충남 서산군			

인터뷰 문화재 재평가 위원 문명대 교수



"평소 일제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오던 차에 이번 문체부의 '우리 역사 바로세우기'차원의 일제 지정문화재 재평가는 불교는 물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취지에서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8년 문화재관리국의 용역을 받아 문화재 재평가작업을 벌인 바 있으며, 이번 재평가작업에도 참여하는 문명대교수(동국대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장)는 일제 지정문화재 재평가는 꼭 해결해야 할 민족적 과제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민족적 과제…충분한 조사·검증 필요"

지난 88년 문화재 재평가작업때 국보와 보물, 지방문화재까지 방대한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벌였던 문교수는 당시 일제 지정문화재의 재평가작업의 필요성에 대한 원칙론에는 합의가 됐으나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기에는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았음을 상기시켰다. 이번 재평가작업 역시 많은 논란과 대립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만큼 조심스럽고도 세부적인 접근으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과학적인 원칙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제 지정문화재 재평가작업은 분명히 명분과 가능성면에서 충분히 활용한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대의명분을 좇아 짧은 기간내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충분한 조사와 연구, 검증과 토론등 여유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넌내로 계획된 재평가작업은 그대로 진행하되, 논의나 검증이 좀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문화재의 명칭이나 등급이 바뀔 경우 교과서와 각종 자료는 물론 해외에 배포돼 있는 자료를 모두 수정해야 하는 등 문화재 재평가는 단순히 그 문화재의 가치고하를 결정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우리 역사자체를 바꾸는 일이며, 우리의 가치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비하여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점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발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네트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다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제작
-사찰의 역사, 배출한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삶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야 할 21세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사찰·불교 단체 행사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중계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행사 기획·연출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행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연출

•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는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HYUNDAI PRODUCTION

주소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팩스
02-375-4143

승 가 원

법공양 페이지

* …… 현대불교신문은 교계의 각 종단 또는 사찰과 공동으로
* …… 제작하는 법공양면을 펴내고 있습니다. 법공양면은 본
* …… 지의 편집의도에 따라 제작되는 기존의 지면(주16면)
* …… 과는 별도로,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이 스스로 제
* …… 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온정 답지… '소쩍새마을'에 봄바람



◇소쩍새마을이 새롭게 단장됐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은 비가 새고 냄새나던 움막시설을 총 47개동 1백80여평의 단층조립식 건물로 개축하고 구랍 26일 완공식을 가졌다.

중앙승가대 인수 '복지법인 승가원' 운영

본관·식당등 신축 '새 보금자리' 마련

원생 103명에 쾌적한 환경제공

소쩍새마을 현황

7만여 후원자들의 따뜻한 사랑과 애정어린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었던 원주 치악산 소재 소쩍새마을이 지난해 7월 MBC TV의 'PD수첩'에 의해 원장 정승우씨(일명 일력)의 비리가 폭로돼 일대 파란을 겪게 되면서 많은 후원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방송이 나간 며칠후 중앙승가대는 "이제 시설운영을 포기하고 소쩍새마을의 모든 시설 및 자산의 일체와 소쩍새가족 모두를 순수 승려교육기관이며 사회복지학과가 개설돼 있는 중앙승가대학에 이양하겠다"는 정씨의 간청에 따라 중앙승가대학은 소쩍새마을의 제반사항을 전격 이양받게 됐다.

이후 중앙승가대학은 TV방영으로 속수무책 방치돼 오던 소쩍새마을의 정상화를 위해 '소쩍새마을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작년 9월 18일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보각스님을 소쩍새마을의 원장으로 임명하고 사회복지 전문가들로 조직된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가칭)사회복지법인 승가원' 법인사무실을 개설했다. 이로써 승가원은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103명의 원생들에게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설운영과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보각스님 이하 승가원의 말없는 노력 끝에 정상궤도에 진입한 소쩍새마을은 치악산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힘겨운 줄다리기에도 불구하고 공사허가를 얻어내 구랍 26일에는 본관 식당 등 180여평의 신축건물을 완공, 종합사회복지센타로서 모습을 드러냈다.

낡은 천막에서 어둠고 캐캐한 냄새로 몸살을 앓아야 했던 원생들에게 따뜻하고 쾌적한 새 보금자리를 제공하게 된 것.

또 같은날 소쩍새마을에서 4년여동안 함께 생활해 오던 정신지체장애인 최도식, 이미나씨 커플을 비롯한 장애인 2쌍이 화촉을 밝히는 훈훈한 경사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중앙승가대학 (가칭)승가원은 2월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으로 정식 법인승인을 받고, 비전문적으로 꾸려왔던 무인가 시설인 소쩍새마을을 명실상부한 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하게 됐다.

이같은 소쩍새마을의 연이은 흐뭇한 소식에 힘입어 그동안 끊겼던 후원자들의 손길이 다시 줄을 잇게 되면서 지난달에는 1억2천여만원의 후원금이 답지, 소쩍새마을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



◇승가원은 지체 진료소를 개설, 진료사를 통하여 모든 원생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승가원은 전문 특수학교 교사 및 의료사를 채용해 놀이치료 및 언어치료, 반복훈련, 물리치료실을 이용한 신체교정작업 등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소쩍새마을 최도식·이미나, 김영식·이미영 커플이 1천여 하객의 축복 속에 구랍 26일 새 출발했다. 이날의 결혼식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닌 소쩍새마을이 암울한 그림자를 벗고 정상화에 진입하는 첫 날 개짓을 의미한다.

복지법인 승가원 일지 ('95·7·4~'96·2·6)

1995. 7. 4 : MBC PD수첩 '소쩍새마을' 방영
7. 8 : 소쩍새마을을 운영해 오던 정승우씨(일력)가 소쩍새마을의 모든 사항을 중앙승가대학에 이양의사 밝힘
7. 11 : 중앙승가대학 긴급 교무회의 소집 —소쩍새마을 인수 결정
7. 18 : 사회복지법인 소쩍새마을 발기인회의 개최
9. 15 :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정승우씨(일력) 구속
9. 18 : 새 원장으로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보각스님 임명
9. 26 : 법인설립추진 임시 사무실 개소(학교내 사회복지학과 사무실)
10. 12 : 법인허가 신청서 접수(성북구청)
10. 18 : 법인허가 서울시 상정
10. 30 : 원주시청에 공사허가 신청
11월초 : 원주시 공사허가에 관한 국립공원의 동의서 요구
11. 4 : 법인허가 보건복지부 상정



◇1995년 12월 낙성한 개축건물에 미련된 법당.

11. 5 : 가칭 '승가원' 법인사무실 운영(안암동 소재)
11. 10 : 국립공원 치악산 사무소의 개축허가에 관한 동의 반대, 법인허가 신청서 서울시로 반려(보건복지부 소관부처 회피)
11. 20 : 법인허가 신청서 보건복지부로 재차 상정(서울시)
11. 22 : 국립공원 관리공단 본부 개축허가건 신청
11. 23 : 국립공원 관리공단 본부 개축허가건 불허
11. 27 : 국립공원 관리공단 치악산사무소와 최종적 타결, 공사시작
12. 7 : 법인허가 신청서 보건복지부로 재차 반려(보건복지부 책임회피)
12. 8 : 원장 보각스님 보건복지부 방문, 승인약속 받아냄
12. 26 : 개축 건물 완공(본관 98평, 부속건물 2개동) 장애인 2쌍 결혼식, 봉불식
1996. 2. 6 : 소쩍새마을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승인

원생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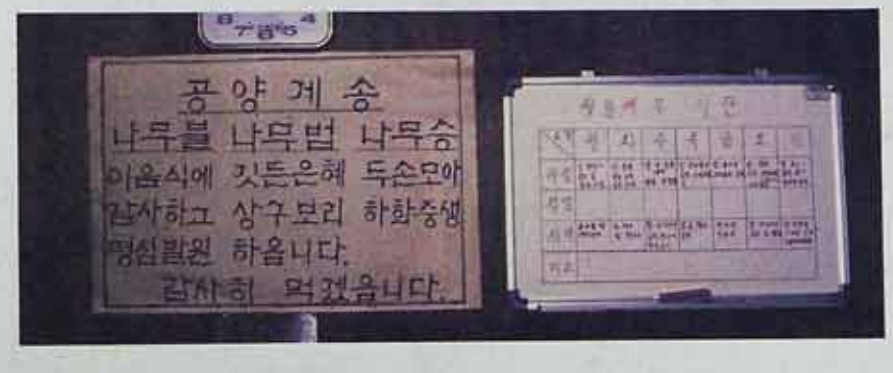
소쩍새마을은 여러분들의 마을입니다

소쩍새마을은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여러분의 보금자리 입니다. 누구든지 마을에 오시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시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에서 지내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 놓은 소쩍새마을의 대문을 두드리십시오.

원생입소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2통
- 의료보험증 사본
- 도장
- 장애인 카드
- 주민등록증
- 생활 전반에 대한 기록



연락처

소쩍새마을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2리 1312—2
전 화 : (0371) 762—3745, 763—3730
팩 스 : (0371) 763—3730

법인사무국/ 서울시 성북구 안암 5가 102—62 원우B/D 3층
전 화 : (02) 928—0750~1
팩 스 : (02) 928—0752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 *
다. 법공양면은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 ···· *
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 ···· *
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 *
있습니다. ···· *

법공양 페이지

승 가 원

승가원 사업계획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소쩍새마을에는 다양한 연령층에 정상인 17명의 원생들이 생활하고 있어 복지와 재활사업이 광범위하고 종합적으로 시행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승가원은 십여년동안 특정인이 중심이돼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운영이 이뤄진데서 탈피, 시설에 전문인력을 갖추어 요보호 대상자의 인격형성과 생활개선에 역점을 두고 종합적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특히 승가원은 전문의료사업지원 및 재활특수교육, 보육 등 소쩍새마을 식구들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킬 각종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향후 국내 종합복지센터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장애인 복지 놀이치료 및 언어치료를 통한 반복훈련, 물리치료를 통한 신체 교정작업, 전문인의 정기적 치료사업과 상담요법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등 장애인의 재활에 역점을 둘 계획. 특히 올 봄에는 특수학교인 청원학교에 8명의 장애아동을 입학시키는 등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 재활작업에 적극 나설 방침이며, 향후에는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특수학교'를 설립,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복지를 실현할 것이다.

청소년·아동복지 일반교과목을 중심으로한 학습지도, 특기·취미교육, 생활체련교실, 정서함양교실, 사회적응훈련교실, 컴퓨터교육, 청소년과 아동들의 현장체험교육, 공부방 조성, 교육이 가미된 놀이시설의 확충 등 승가원은 소쩍새마을을 전문교사의 교육이 뒷받침된 참된 교육현장으로서의 조성을 시도한다.

노인복지 실버산업이 각광받고 있는 현대사회의 정서를 고려, 승가원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무료시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승가원은 70대 노인 중 15%에 달하는 노인들이 치매로 고통받고 있다고 자체 분석하고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정신병원 설립을 중장단기 계획으로 세워놓고 있다. 또 노인들의 질적인 삶을 위해 '노인 對 노인 인연 맺어주기' '아동, 청소년 對 노인 인연맺어주기', 효도관광, 상담실 운영등의 사업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비구, 비구니스님들의 노후를 위해 각 100실씩의 객실이 마련된 무료 실버타운을 조성, 명실상부한 종합복지센터로 자리할 방침이다.

재활교육 시설에 전문인력을 배치, 단순히 원생들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재활교육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기쁨과 보람을 맛보도록 하는 데 사업전개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재활사업으로 승가원은 의료사업과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을 꼽고 있다.

1차적으로는 자체 진료소를 개설하고, 진료사를 통하여 모든 원생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또 2차내지 3차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산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 중앙병원 협의를 거쳐 진료에서 수술까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여러명의 원생들이 진료와 치료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및 아동, 노인의 재활을 위해 단순한 반복훈련인 콩나물 재배에서 부터 정상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동양란 재배까지 직업재활도 꾀 계획이다.

재활 특수교육·의료사업등 역점

전문인력배치 장애인에게 교육기회
노인시설·프로 개발등 실버타운 준비



◇소쩍새마을 어린이들이 특수교사, 보육사, 사회복지사들의 보살핌 속에서 재활의지를 다지고 있다. 승가원은 원생들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킬 각종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소쩍새마을 지금은…

소쩍새마을에도 싱그러운 새봄이 찾아온다. 하지만 치악산 깊은 계곡에는 아직 잔설이 남아 있다. 이렇게 산속의 봄은 늘 이랫마을보다 늦게 찾아 온다. 하지만 봄을 기다리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따뜻한 양지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새학교, 새학년 이야기에 시간가는 줄을 모른다.

하나 둘 마을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던 원생들은 기억하기 조차 싫은 예전의 처절했던 모습들을 되새겨야만 했다. 그러나 사회는 냉혹하지만은 않았다. 중앙승가대학이 운영권을 맡은 이후 최근엔 꼬박꼬박 후원금을 보내는 불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 얼굴마다 환한 웃음"

학인스님·자원봉사자들 상주 '정 나누기'

강원도 원주군 관부면 금대리 치악산 자락에 위치한 소쩍새 마을.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갓난아이부터 80노인에 이르기까지 1백 31명의 가족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생활하는 보금자리이다. 이들은 지난 겨울이 유난히 추웠다. 지난 7월 TV보도가 나간 뒤 7만여명의 후원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이들을 돌보아오던 봉사자들 마저 하우스 손을 비벼대며 리면으로 기니를 이어야 했던 식당. 콧물을 흘리면서 양지쪽에 옹크리고 앉아 누군가 찾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다 지친 아이들의 모습은 이제 더이상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그동안 등을 돌렸던 후원자들이 최근들어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지난달 승가원 법인허가가 나면서부터 소쩍새 마을은 더욱 활기에 넘친다. 특히 승가원측이 특수교육과 출신의 교사와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요원들 채용은 물론 오는 4일 8명의 원생들이 특수학교인 청원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어서 소쩍새 마을 가족들은 더욱더 새봄이 기다려진다.

이렇게 그동안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감수해야 했던 소쩍새 마을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쩍새마을의 변화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가장 먼저 찾아 볼 수 있다. 중앙승가대학 학인스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소쩍새마을에 상주하면서부터 아이들을 씻기고 옷을 세탁하고 께에서 도시아이들 못지 않은 모델(?)로 꾸민 것이다. 이처럼 소쩍새 마을은 아이들의 발랄한 모습에서 뿐만 아니라 시설에도 변화가 왔다. 회색빛 천으로 둘러싸인 비닐하우스와 관짝집처럼 초라했던 2천여평의 소쩍새 마을이 하나 둘 할리기 시작했고 새롭게 단장한 따뜻한 보금자리가 새로 마련된 것이다.

빛이 들어오지 않아 어두침침한데다 악취마저 짙게 배어있던 비닐



◇승가원이 운영을 맡은 이후 소쩍새마을 어린이들은 어느 때보다 신나고 활기에 넘친다.

하지만 그렇게 흔들어대는 세상사에 현혹되지 않고 꿋꿋히 이겨낸 소쩍새가족들. 사람만 나타나면 한결같이 반갑게 뛰쳐나와 환한 웃음을 보이는 그들이 오늘날의 진짜 부처인지도 모른다. 항상 그자리에 변함없이 보금자리를 틀고 있는 소쩍새가족들은 더이상 울지 않는다.

소쩍새 마을은 언론의 보도 이후 숱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소쩍새마을 원장 보각스님 인터뷰



"보살은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호구책이 아닌 사명감으로 원생들을 이 마을의 주인으로 '모시고'사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지난해 9월18일 소쩍새마을의 원장으로 취임한 보각스님(중앙승가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10여명의 상근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항상 당부하는 말이다.

"원생을 주인으로 삼아 합리적 운영에 최선"

취임 3개월 개축건물 완공
전재산 불교복지에 회향

사회복지학과 학과장, 중앙승가대학 사회복지연구소 소장, 삼전사회복지관 관장으로서 학문적으로나 시설운영의 경험으로나 소쩍새마을을 정상화시키고 시설을 여법하게 운영해 갈 수 있는 적임자로 정평이 나면서 학교와 중앙승가대학 학인스님들의 요청에 의해 원장 소임을 맡게 된 보각스님.

낮밤을 가리지 않고 원생들을 위해 쉴새없이 소쩍새마을의 정상화를 위해 뛰고 있는 스님은 지난 10여년간 한푼두푼 모아온 전 재산 3억원을 중앙승가대학 발전기금, 강화 선원사 양로원건립기금 그리고 불교사회복지시설 등에 선뜻 내놓는 등 끊임없는 보살행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자처하고 있기도하다. 이같은 스님의 행적은 그동안 소쩍새마을을 둘러싼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했다.

또 스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은 취임한지 불과 3개월만에 치악산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끈길긴 줄다리기에도 불구하고 1백80여평 개축건물 완공이라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원주 소쩍새마을에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아, 무의탁 영아 및 노인 등 103명의 원생들이 오랫동안 인간다운 생활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위해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할 때입니다"라고 밝힌 스님은 그동안의 경험을 십분 발휘해 명실상부한 종합사회복지센터로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다.

"단순히 원생들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교육·직업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원생들이 인간으로서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살아있는 복지죠."

스님은 또 자원봉사자교육 후원자 모임결성, '후원자의 날' 제정등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효율적인 관리기에도 세심한 관심을 보인다.

이같은 원생들에 대한 스님의 식지않은 열정은 소쩍새마을에 뿐 아니라 불교사회복지계 전반에 희망적인 서광을 예고하는 듯하다.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모집

저희 소쩍새마을의 가족과 더불어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평등사상을 실천할 수 있는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의 따뜻한 사랑을 기다립니다. 어렵고 소외된 마을 가족들을 내 가족처럼 돌보며 함께 생활하실 분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또 마을의 1백명이 훨씬 넘는 가족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매일 먹는 부식과 간식, 장애인들의 치료와 운동에 필요한 여러 기구들, 학생들의 학습용 컴퓨터 등등.

눈에 보이는 도움뿐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랑과 정성까지 소중히 받겠습니다. 마을 가족들이 사랑을 베풀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여러분이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길 기다립니다.



연락처

소쩍새마을 / 강원도 원주시 관부면 금대2리 1312-2
전 화 : (0371) 762-3745, 763-3730
팩 스 : (0371) 763-3730

법인사무국 / 서울시 성북구 안암 5가 102-62 원우B/D 3층
전 화 : (02) 928-0750~1
팩 스 : (02) 928-0752



불자가수 김흥국

"2002년 월드컵 한국서"
노래·방송 홍보 분주

지난달 말 불자가수회 제4기 회장에 선출된 김흥국씨가 2002년 월드컵 유치 홍보를 위한 축구가요 '2002년 월드컵 코리아'제작하고, 불자들로 구성된 유치지원단을 결성하는 등 월드컵 한국유치 막바지 홍보작업에 한창이다.

자칭타칭 '가요계의 차범근, 축구계의 김흥국'이라는 애칭을 듣고 있는 월드컵 홍보유치위원 김씨는 지난해 이미 '가자 월드컵 코리아'를 발표해 2002년 월드컵 한국유치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축구가요 신곡 준비중
불자 유치지원단 구성

"이건우 작사, 김진룡 작곡의 새 노래 '2002년 월드컵 코리아'는 쉽고 경쾌한 행진곡풍의 가사와 리듬으로 월드컵의 환희를 표현, 전국민 누구나가 부를 수 있는 국민가요가 될 것"이라는 김씨는 이 노래가 전국민의 호응을 받아 월드컵 유치에 더욱 한마음이 되었으면 했다. 김씨는 오는 17일부터 말레이지아에서 열리는 96 아틀랜타 올림픽 축구 최종예선에서 이 노래를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김흥국씨는 자신이 단장으로 있는 연예인 회오리 축구팀의 회원인 가수 이승철, 방실이, 탤런트 이병철씨 등과 함께 올림픽 예선에 참가, 한국축구에 대한 열띤 응원과 홍보를 펼칠 계획.

불자가수회 회장 외에 현재 한국기아도움기구 홍보실장을 맡아 바쁜 시간속에서도 김흥국씨는 동산불교교양대학을 졸업, 무진장스님으로부터 운봉(雲峰)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2002년 월드컵 유치경쟁국인 일본이 막바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김흥국씨는 "월드컵 한국유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위해 오는 3월중순경 불자들로 2002년 월드컵 유치 지원단을 구성해 보다 조직적인 홍보활동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2002년 월드컵 유치는 2천만 불자들의 뜨거운 참여와 부처님의 원력으로 꼭 성사될 것 같다는 김흥국씨는 '축구공 하나로 21세기 통일한국의 미래를 열고 싶다'는 서원을 세웠다.

이은자 기자

불교 TV 시사·오락물 늘려 '봄단장'

불교TV는 3월 개편을 맞아 방송시간을 연장(평일 12시간 30분, 토요일 14시간 35분, 일요일 15시간 35분)하고 교양, 오락, 토크쇼 등 다채로운 신설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가깝게 다가올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된 프로그램은 먼저 시사토론프르그램 'TV대중공사'(토요일 오후 12시 35분)가 관심을 끈다. 한주간에 있었던 주요 사건을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 그 문제점 진단과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움직이는 젊은 불교를 생생하고 흥겹게 꾸며낼 버라이어티 '현장쇼! 스타를 찾아라'(토요일 11시 10분)는 MC로 유명한 미스코리아 이영현이 진행을 맡아 전국 사찰 불자들의 끼와 신심을 겨루는 쇼프로그램이다.

또한 '뜰앞의 잣나무'(토요일 오전 10시 15분)가 불교계의 고승대덕 및 불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인생관 및 생활불교의 현장을 담아 보여 주며, '교계는 지금'(일요일 오전 9시)은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등 여러 종단의 주요행사를 소개하는 한편 불교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날카롭게 꼬집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밖에 그동안 날마다 좋은날을 통해 방송됐던 선재스님의 사찰음식코너가 '선재스님의 푸른 맛 푸른 요리'(금,토요일 오후 1시 25분)로 독립돼 향료와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사찰음식의 독특한 조리비법을 더욱 상세하게 소개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김병조의 스타쇼가 본격 토크쇼로서의 면모를 다져 '김병조의 이야기쇼'(화요일 오후 1시5분)로 새롭게 선을 보인다.

한편 불교TV는 오는 9일 창사 1주년을 맞아 영상포교 원년을 진단하는 내용의 특집프로그램을 편성했다.

불교TV 개국과 함께 변모된 불자들의 신행형태를 살펴보고 멀티미디어 시대 불교TV의 진로를 진단하는 '불교TV 2000'(9일 10시 10분)과 보다 심층적인 하이미디어 시대의 포교방향에 대해 진단하는 '특집리포터 뉴미디어 시대의 포교'(9일 12시 10분)등을 마련했다.

〈은〉



◇개편과 함께 '김병조의 이야기쇼'로 새롭게 변모하는 김병조의 스타쇼 장면



◇일연스님



◇윤원철교수



◇권기종교수



◇이영현씨

방송 진행자 새인물 교체

BBS 일연스님 불교TV 이영현씨

봄을 맞아 각 방송사의 간판프로그램들이 진행자를 교체하고 상큼한 새 봄을 예고하고 나섰다.

BBS '무명을 밝히고'는 지난 1일부터 윤원철교수(서울대 종교학과)가 진행을 시작했으며 '경전공부'도 오는 11일부터 6개월간 〈능엄경〉강의를 일연스님(동학사 주지)이 펼치게 된다.

불교TV는 '알기쉬운 교리강좌'에 11일부터 권기종교수(동국대 불교학과)가 대승불교를 주제로 3개월간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또 불교TV 3월 신설프로그램인 '현장쇼! 스타를 찾아라'는 미스코리아 출신 MC 이영현씨가 진행을 맡게돼 벌써부터 생동감 넘치는 진행이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EBS(교육방송)에도 불자탤런트 여운계씨가 '만들어 볼까요'를 진행하고, 김청씨는 청소년 드라마 '우리는 Y틴'에 출연하고 있다.

인 터 뷰

"무보수로 노인 위로 공연 노래봉사로 회향합니다"

63세 할머니 가수 김 안 수 보살

남들은 정년퇴직하고 여생을 편히 보낼 나이인 60세에 가수로 나서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는 할머니불자가 있다. 더구나 불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찾아 다니며 위문공연을 자청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끄는 가수가 바로 김안수보살(63)이다.

두 아들과 네 손자를 둔 김보살은 지난 92년 '인생은 60부터 김안수 디스코타임'이란 노래 테이프를 취입,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 나이에 인기를 얻거나 돈을 벌려고 가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의롭게 지내는 노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나섰지요."

김보살은 데뷔 6개월만에 독집 디스크를 내고 지난해에는 유명한 원로 작곡가인 남국인씨에게 곡을 받아 '운대로 복대로' '울퉁도 타령' 등의 노래가 들어간 새 음반도 발표했다.

그동안 양로원 경로당 등 노인들 행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노래를 불렀지만 공연료는 한 푼도 안 받았다.

"같은 연배이어서인지 내가 노래하면 박수가 더 많이 나와요. 아들 며느리 손자들에 둘러싸인 우리같은 노인도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는데 양로원에 계신 분들은 오죽 하겠어요."

지금까지 가 본 행사중 유난히 기억에 남는 곳은 93년 9월에 개최한 이북5도 실향민 위문잔치. 당시 북

"불교 경로행사 불러만주면 어디든"

녘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 하는 60대 이상 노인들에게 그의 노래 '한도 많은 통일이여'는 눈물을 자아내게 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지난해 사할린 귀국 교포들이 모여사는 고령에서의 위문공연도 한번더 공연하고픈 마음이 들 정도로 측은함을 자아냈다고 한다. 26세때 두아들만 남기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 삯바느질 구멍가게 행상 미용실경영 등 안해본 고생이 없다는 김보살은 지금도 머리를 스스로 매만지고 옷도 동대문 시장에서 옷감을 지어 만들어 입을 만큼 알뜰하지만, 불우노인들에게 큰 돈은 보시못해도 성의껏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한다.

"30여년 넘게 절에 다녔어요. 불교노인시설에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어요."

70세까지 노래부르겠다는 김안수 보살은 봉사와 자비행으로 노년을 회향하고 싶어한다.

연락처(02)476-3233

이경숙 기자



불교영화 '유리' '카루나' 칸느영화제 출품

불교영화 두편이 세계 3대 영화제중의 하나인 제49회 칸느영화제에 도전한다.

주인공 유리의 40일간의 구도행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옮긴 영화 '유리'(감독 양윤호)가 이미 칸느영화제에 출품을 마쳤고, 오는 16일 개봉되는 영화 '카루나'(감독 이일목)도 곧 출품할 예정.

이 두영화는 불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근원적 삶과 민족의 영원인 통일의 문제를 각각 그려내고 있어 영화제 출품과 그결과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칸느영화제는 오는 5월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칸느서 열린다.

불교TV 창사 1주년 기념식

불교TV는 창사 1주년 기념식을 오는 8일 오후3시 불교TV 15층강당에서 갖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간 불교TV의 발전에 기여해온 공로로 성일스님(신흥사 주지), 이정부씨, 이계진씨, 김병조씨 등에게 감사패가 전달될 예정이다.

BBS 광고수익 급신장

지방국개설 영향 전년비 40%늘어

BBS 불교방송이 지난해 광고수익에서 40.37%라는 폭발적 성장을 기록했다.

BBS는 93년 총광고수입 57억5천만원에서 94년에는 58억5천만원으로 마이너스 성장이나 다름없는 1.74%증가 수준에 머물렀으나 95년에는 82억3천만원으로 증가, 94년대비 40.37% 실적을 올렸다.

이같은 BBS의 광고증가는 부산 광주등 지방 2개국이 동시에 개국됨에 따른 지분증가와 96년 개국예정인 대구 청주 지방국의 개국등으로 BBS가 준 전국방송화 되면서 광고판매의 자연적 증가와 광고주의 인식변화가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BBS 영업국 김창영국장은 "기존의 소극적 운영에서 벗어나 지난해 중반기부터 계획적이고 공격적인 광고 영업전략을 실시했기 때문"이라면서 "94년에 중단됐던 광고대행사 초청 프로그램설명회를 5월과 6월에 다시 시작했고 지방국 개국과 지방국 프로그램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한 것이 큰 영향을 끼친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BBS는 96년에는 95년대비 10% 초과 목표 88억(월 7억3천3백)을 세워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웃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세요

■현대불교의 독자 한분 한분이 곧 진리의 수레바퀴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2천만 불자의 긍지를 대변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2천만 불자의 자랑스런 대변인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있는 곳, 그곳이 곧 법당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지면 가득 신행의 지침이 될 부처님의 말씀이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곁에 두면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좌절을 희망으로, 고통을 수행의 거름으로 바꿔 놓을 지혜와 용기야말로 현대불교의 변치 않은 메시지입니다.

이웃에 현대불교를 권하는 독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께 현대불교를 권해 주시거나 법보시를 해 주신 분께는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단 1명이라도 권유하신 분께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1명 권유시 : 본지 3개월 무료 구독권
2명 권유시 : 본지 6개월 무료 구독권
3명 권유시 : 본지 9개월 무료 구독권
4명 권유시 : 본지 12개월 무료 구독권

-구독 기간은 6개월, 1년 단위이며 1명을 기준으로 3개월 무료 구독권을 드립니다.
-이미 구독하고 계신 분께는 해당 기간만큼 구독기간을 연장해 드립니다.

신문 받으실 분(구독 권유 □, 법보시 □)

성명		전화		연령	
주소					
성명		전화		연령	
주소					
성명		전화		연령	
주소					
성명		전화		연령	
주소					

권유하신 분

성명		전화		현대불교 구독여부	이미 구독 • 구독하지 않음
주소			전화번호		

자르는 선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전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밖의 사항은 본사 영업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우편번호 110-170)

전화 (대표) 02-737-8881
팩스 02-737-0697